

# 리아호나



연차 대회 말씀

새로 발표된 성전  
여섯 곳



경전에서 배우기, 낸시 크룩스톤

주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경전]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경전]을 연구하거니와 이 [경전]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요한복음 5:39).

# 연차 대회 2011년 목차

제48권 • 제11호

## 토요일 오전 모임

- 4 다시 만나며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6 경전의 힘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 9 개인적인 계시와 간증  
바바라 톰슨
- 11 때가 이르리라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
- 14 미루지 말고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일을 하십시오  
호세 엘 알론소 장로
- 16 청소년들에게 주는 권고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
- 19 여러분은 주님께 중요합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토요일 오후 모임

- 23 교회 역원 지지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24 자녀들의 마음은 돌이켜질  
것입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 28 자녀  
닐 엘 앤더슨 장로
- 31 준비할 시간  
이안 에스 아던 장로
- 33 위를 바라보는 것이 낫습니다  
칼 비 쿡 장로
- 35 구속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장로
- 38 회개는 신성한 은사입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 41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엘 톰 페리 장로

## 신권 모임

- 44 싸움 끝나는 날까지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 47 아론 신권의 권능  
키스 비 맥멀린 감독
- 50 인생에서 단 한 번 오는 기회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델 장로
- 53 주님의 방법으로 베푸십시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56 신권 준비: “형제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60 용감하게 홀로 서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일요일 오전 모임

- 68 증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71 주님을 소망하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74 물몬경,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  
태드 알 콜리스터 장로
- 77 딸의 어머니를 사랑하십시오.  
일레인 에스 돌튼
- 79 이름의 중요성  
엠 러셀 밸라드 장로
- 82 거룩한 곳에 서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일요일 오후 모임

- 86 성약  
러셀 엠 벨슨 장로
- 90 예수님의 가르침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 94 영의 방법으로 가르칩시오  
매튜 오 라차드슨
- 96 선교사들은 교회의 보배입니다  
가즈히코 야마시타 장로
- 98 영생을 택하십시오  
랜들 케이 베네트 장로
- 101 기도라는 특권  
제이 데븐 코니쉬 장로
- 104 마음에서 울리는 노래  
쿠엔틴 엘 쿡 장로
- 108 다시 만날 때까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상호부조회 총회

- 109 내 손녀 (손자)들이 상호부조회에  
대해 이해했으면 하는 것들  
줄리 비 백
- 114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 117 성약에 충실하십시오  
바바라 톰슨
- 120 물망초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64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역원
- 124 연차 대회에서 소개 된 일화 색인
- 125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 125 본보 보조 조직 회장단
- 126 교회 소식



# 제181차 반연차 대회 요약

## 2011년 10월 1일 토요일 오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게리 제이 콜먼 장로. 폐회 기도: 로웰 엠 스노우 장로. 음악: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리차드 엘리엇과 앤드류 언스워스; “동트니 날이 밝는다”, 찬송가 4장: “With Songs of Praise”, 영어 찬송가 71장;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를 위하여”, 찬송가 25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이스라엘의 구주”, 찬송가 27장; “난 하나님의 자녀”, 어린이 노래책, 2~3쪽. 머피 편곡, 미출판; “진진하게 주 예수 믿으니”, 찬송가 55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 2011년 10월 1일 토요일 오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고원용 장로. 폐회 기도: 브래들리 디 포스터 장로. 음악: 유타 주 플레전트뷰와 북 옥든 스테이크 어린이 연합 초등회 합창단; 지휘: 바니아 와이 와킨스; 오르간 반주: 린다 마켓츠; “God’s Daily Care”, 영어 찬송가 306장과 “I Thank Thee, Dear Father”, 영어 어린이 노래책, 7쪽, 왓킨스 메들리 편곡, 미출판; “가족은 영원해”, 찬송가 189장, 왓킨스 편곡, 미출판;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찬송가 18장; “주는 이 몸을 사랑해요”, 어린이 노래책, 16쪽과 “주 살아 계시고”, 찬송가 188장, Jackman 출판, 왓킨스 메들리 편곡, 미출판.

## 2011년 10월 1일 토요일 저녁 신권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리차드 지 힝클리 장로. 폐회 기도: 고이치 아오야기 장로. 음악: 유타 주 플레전트 그로브 멜기세덱 신권 합창단; 지휘: 저스틴 빌즈; 오르간 반주: 클레이 크리스천슨: “Rise Up, O Men of God”, 영어 찬송가 324장, 스타헬리 편곡, Jackman 출판; “늘 함께 합소서”, 찬송가 97장, 빌즈 편곡, 미출판;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 찬송가 36장; “오라 주의 자녀들”, 찬송가 13장, 빌즈 편곡, 미출판.

## 2011년 10월 2일 일요일 오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폴 케이 시브로스키 장로. 폐회 기도: 제임스 비 마르티노 장로. 음악: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앤드류 언스워스와 클레이 크리스천슨: “거룩하신 복음으로”, 찬송가 9장; “위대하신 여호와여”, 찬송가 43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Consider the Lilies”, 호프만, 리온 편곡, Jackman 출판;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찬송가 6장;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찬송가 146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나 그리스도 믿습니다”, 찬송가 70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 2011년 10월 2일 일요일 오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에프 마이클 왓슨 장로. 폐회 기도: 그레고리 에이 슈바이처 장로. 음악: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보니 굿리프와 린다 마켓츠; “Arise, O God, and Shine”, 영어 찬송가 265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주 사랑 느껴요”, 어린이 노래책, 42~43쪽, 카든 편곡, 미출판;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찬송가 32장; “이제 비오니 주여”, 찬송가 71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 2011년 9월 24일 상호부조회 총회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줄리 비 벅. 개회 기도: 바바라 시 브래샤. 폐회 기도: 샌드라 로저스. 음악: 유타 주 이글 마운틴과 사라토가 스프링스 상호부조회 합창단; 지휘: 에밀리 와들러; 오르간 반주자: 보니 굿리프와 린다 마켓츠: “동트니 날이 밝는다”, 찬송가 4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찬송가 63장, 마누킨 편곡, Jackman 출판; “들으라 만방 하늘 음성”, 찬송가 167장;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찬송가 32장.

## 대회 말씀 자료

여러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 연차 대회 말씀에 접속하려면 [conference.lds.org](http://conference.lds.org)에 접속하십시오. 그런 후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녹화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대회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배부 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 메시지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 메시지는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가장 잘 맞는 대회 말씀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표지

앞: 사진 촬영, 존 루크. 뒤: 사진 촬영, 레스 닐슨.

## 대회 사진

솔트레이크시티 연차 대회 장면: 크레이그 다이먼드, 웰턴 시 앤더슨, 존 루크, 크리스티나 스미스, 코디 벨, 레스 닐슨, 웨스턴 콜튼, 사라 젠슨, 데렉 이스라엘슨, 대니 라, 스코트 데이비스, 크리스티 조던, 카라 콜; 브라질: 바바라 앨브즈, 데이비드 맥내니, 산드라 로자도스; 캐나다: 로렌트 루쿠익스; 엘살바도르: 후세 베나; 영국: 사이몬 존스; 일본: 아오노 형제; 멕시코: 모니카 모라; 필리핀: 월모 라토레와 앤 로자스; 남 아프리카: 롬 밀네; 스웨덴: 아나 피터슨; 우르과이: 모렐 페나.



2011년 11월호, 제48권, 제11호  
리아호나 09691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임

**제일화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십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팩커, 엘 톱 페리, 러셀 엠 넬슨, 앨런 에이치 옥스, 앤 러셀 벨라드,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날 엘 앤더슨

**편집인:** 폴 비 파이프  
**고문:** 스탠리 지 엘리스, 크리스토퍼 골든 이세, 요시히코 기쿠미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라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애덤 시 울슨  
**공동 편집인:** 수잔 배렛, 라이언 카, 엘리사 매릴  
**편집 스태프:**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튼, 라켄 포터 콘트, 레리 힐러,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마이클 알 모리스, 셀리 제이 오데커코, 조슈아 제이 퍼기, 체드 이 패리스, 잰 핀보로우, 리차드 엠 롬니, 제넷 토마스, 엘리사 전테노, 폴 벤덴버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누드슨  
**미술 책임자:** 스코트 벤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선임 디자이너:** 시 캄벌 보트, 토마스 에스 차일드, 콜린 핑클러, 에릭 피 존슨, 스코트 엠 무이  
**제작 스태프:** 클레트 네베커 오온,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킴 핀스타커, 캐슬린 하워드, 드니스 커비, 지니 제이 날슨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  
**배부 책임자:** 에반 할슨

통 관: 제541호, 제48권, 제11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1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성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o@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1,0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원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기러키어, 인도네시아어, 일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1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mailto: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http://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November 2011 Vol. 35 No. 11.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연사들(가나다순)**

- 가즈히코 아마시타, 96
- 닐 엘 앤더슨, 28
- 델린 에이치 옥스, 90
-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델, 50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24
-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38
-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19, 53, 120
- 랜들 케이 베네트, 98
- 러셀 엠 넬슨, 86
- 로버트 디 헤일즈, 71
-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35
- 리차드 지 스코트, 6
- 매튜 오 리차드슨, 94
- 바바라 톰슨, 9, 117
- 보이드 케이 팩커, 16
-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114
- 엘 톱 페리, 41
- 엘 휘트니 클레이튼, 11
- 엠 러셀 벨라드, 79
- 이안 에스 아턴, 31
- 일레인 에스 돌튼, 77
- 제이 데븐 코니쉬, 101
- 제프리 알 홀런드, 44
- 줄리 비 백, 109
- 칼 비 쿡, 33
- 쿠엔틴 엘 쿡, 104
- 키스 비 맥멀린, 47
- 테드 알 콜리스터, 74
- 토마스 에스 몬슨, 4, 60, 82, 108
- 헨리 비 아이어링, 23, 56, 68
- 호세 엘 알론소, 14

**주제 색인**

- 가르침, 94
- 가족 역사, 24
- 가족, 28, 77
- 간증, 9, 60, 68, 74, 82
- 개인적인 가치, 19, 120
- 개종, 68, 96
- 건담, 68, 71
- 결혼, 28
- 경전, 6, 74
- 계시, 6, 9, 16, 82
- 교회 성장, 11, 41
- 교회 이름, 79
- 구속, 35
- 기도, 82, 101
- 기쁨, 38, 120
- 기술, 24, 31
- 모범, 41, 60, 77, 90, 96
- 물문경, 6, 50, 68, 74
- 방문 교육, 109, 114
- 배움, 94
- 복지, 53
- 봉사, 14, 47, 50, 53, 56, 68
- 부모의 본분, 28, 77
- 부부 선교사, 44
- 사랑, 53, 77, 96, 120
- 사랑(자애), 68, 109, 114
- 상호 부조회, 109, 114
- 선교 사업, 11, 41, 44, 50, 79, 96
- 선택의지, 98
- 성경, 74, 90
- 성스러운 본질, 19
- 성신, 6, 9, 16, 33, 47, 82, 94
- 성약, 86, 117
- 성전 및 성전 사업, 4, 24, 41, 109, 117

- 소망, 19, 71
- 속죄, 33, 35, 38, 90
- 순종, 33, 38, 86, 90
- 시간 관리, 31
- 신권, 24, 47, 56, 60, 86, 109
- 신앙, 28, 33, 71, 101, 104
- 아론 신권, 47
- 아버지, 77
- 역경, 71, 104
- 연차 대회, 4, 23, 108
- 예수 그리스도, 35, 41, 74, 79, 90, 101
- 예언, 11
- 용기, 33, 60
- 우선순위, 28, 31
- 의무, 47, 56
- 인내, 71
- 자녀, 28
- 자립, 53
- 자존감, 19, 120
- 제자의 본분, 109
- 준비, 50, 56, 96
- 책임, 98
- 청녀, 77
- 청소년, 16, 24, 44, 47, 50, 77
- 표준, 44, 60, 77, 82
- 필멸, 16
- 하나님 아버지, 108
- 활동화, 14, 35, 50
- 회개, 16, 35, 38, 44
- 희복, 11
- 희생, 50, 120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다시 만나며

오늘과 내일, 이들에 걸쳐 주어지는 말씀을 귀담아듣고, 주께서 우리가 알았으면 하고 바라시는 것들을 배우는 동안, 주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간구합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제181차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반연차 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대회로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이 저를 십이사도 정원회로 부르신 지 48년째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8년이라는 세월을 말입니다. 그때가 1963년 10월이었는데, 그 후 이토록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분주할 때에는 시간이 유난히 더 빨리 흐르는 듯 느껴지는데, 지난 6개월 역시 그랬습니다. 그 기간에 있었던 여러 일 중에서도 특히 5월 1일에 조지아 애틀랜타 성전을 재헌납한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자리에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 내외와 월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님 내외, 윌리엄 알 위커 장로님 내외가 저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재헌납식 전날 저녁에 '남극광'(남극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발광 현상-웁간이) 이란 제목으로 열린 문화 행사에서 성전 구역 내의 2,700명에 이르는 청년 청년들이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 어떤 공연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정말

뛰어난 공연이었습니다. 청중들은 공연 중 여러 차례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다음 날 성전은 두 번의 헌납식을 통해 재헌납되었으며, 주님의 영이 풍성히 임했습니다.

8월 하순에는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이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성전을 헌납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이어링



자매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 내외, 윌리엄 알 위커 장로님 내외,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인 실비아 얼리드 자매님과 남편이신 제프리 얼리드 형제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아이어링 회장님은 그 헌납식이 참으로 영적인 행사였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연말에는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 내외가 다른 총관리 역원 몇 분과 함께 과테말라 케트살테낭고로 가서 그곳에 세워진 성전을 헌납하실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성전 건립은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신축될 성전 몇 곳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우리 교회가 지은 시설 중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성전은 가족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가족들이 함께



인봉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계 전역에 있는 모든 성전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며 또한 그 성전이 회원들의 삶에 축복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에 유타 카운티에 있는 프로보 태버네클이 끔찍한 화재로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후기 성도들이 무척 사랑했던 이 경이로운 건물은 이제 외벽만 남아 있습니다. 신중하게 숙고한 끝에 우리는 그 건물을 외벽까지 완전히 복원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건물은 프로보 시의 두 번째 성전이 될 것입니다. 현재 있는 프로보 성전은 교회에서 가장 빠르게 운영되는 성전입니다. 프로보와 인근 지역에서는 성전에 참석하려는 충실한 회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그곳에 세워질 두 번째 성전이 그분들을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또한 기쁘게 다음 지역에 세워질 새로운 성전을 발표합니다. 콜롬비아 바랑키야, 남아프리카 더반, 콩고 민주 공화국 킨샤사, 와이오밍 스타밸리. 그리고 추가로 프랑스 파리에도 성전을 짓기 위해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들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성전 부지 및 기타 건축에 필요한 인허가 등이 확보되면 추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전에 열린 여러 대회에서 저는 회원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 성전을 세우려는 노력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어려움 없이 방문하게 된 회원들이 많아진 반면에, 여전히 성전이 너무 멀어서 경비가 부족해 가지 못하는

회원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전에서 누릴 수 있는 성스럽고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우리는 성전 참여자 지원 기금이라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금은 성전 방문을 갈망하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엄두를 내지 못하는 회원들이 한 차례 성전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돕는데 쓰입니다. 이 기금에 기부하고자 하는 분들은 매달 감독님께 드리는 현금 명세서에 그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주어지는 말씀을 귀담아듣고, 주께서 우리가 알았으면 하고 바라시는 것들을 배우는 동안, 주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경전의 힘

빛으로 가득한 선물 상자와 같은 경전은 우리 마음을 밝게 비춰 주고, 하늘에서 오는 인도와 영감을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대** 회 동안 이 연단에서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힘을 느낍니다. 저희에게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며, 또한 그런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험과도 같은 삶을 사는 동안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힘든 도전들을 겪어야 한다는 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셨습니다. 그중에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시험의 날을 훌륭히 지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경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느 시대에서나 선택된 남성과 여성들이 힘겨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신을 통해 영감을 주셨습니다. 또한 권세를 받은 종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행복의 계획과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한 지침으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표준 경전이라고 부르는 보화, 즉 구약전서와 신약전서, 물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를 통해 언제나 그러한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신을 통해 이루어진 영감 어린 교통에서 비롯된 경전은 순수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표준 경전에 실린 내용의 온당성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신을

통해 동기를 받고 영감을 얻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가득한 선물 상자와 같은 경전은 우리 마음을 밝게 비춰 주고 하늘에서 오는 인도와 영감을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경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는 열쇠입니다.

정확하게 인용될 때, 경전은 권세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전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우리에게 충실한 친구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우리는 경전을 펼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얻는 지혜는 성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진리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깊이 생각하고 탐색하고 암기하는 일은 언제 어디서나 열 수 있는 보관함에 친구와 보화 그리고 진리를 채워 넣는 것과 같습니다.

성구를 암기하면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성구 하나를 암기하는 일은 마치 새 친구 한 명을 사귀는 것과 같습니다. 힘들 때 도움을 주고 영감과 위안을 주며 변화가 필요할 때 동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새로 얻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시편에 실린 다음 구절들을 암기하면서 큰 힘과 이해력을 얻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시편 24:1~5)

성구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올바른 인생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경전은 우리를 기꺼이 돕고자 하는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과 같습니다. 성구를 암기해 두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든든한, 영원한 친구를 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성구를 깊이 생각하면 계시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고 성신의 인도와 영감을 불러오는 열쇠를 얻게 됩니다. 경전을 통해 격노한 영혼이 잠잠해지고, 평화와 희망을 얻으며, 삶에서 부딪히는 도전들을 이겨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솟아날 것입니다. 구주를 믿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정서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치유할 커다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치유도 더 빠를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성구는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읽어 보았던 성구는 삶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신신하게 다가와 마음을 새롭게 해 주고, 또 다른 시야를 열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전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합니까? 표시를 해 둡니까? 영으로 인도를 받은 순간이나 심오한 교훈을 배운 일을 기억하기 위해 여백에 적어 두십니까? 구약전서를 포함하여 모든 표준 경전을 사용하십니까? 저는 구약전서에서 귀한 진리들을 배웠습니다. 제 삶의 지침이 된 진리의 토대를 구약전서에서 얻었으며,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고자 할 때에도 그 책은 훌륭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전서를 사랑합니다. 어느 곳을 봐도 주옥 같은 진리가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사무엘상 15:22)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

내 아들이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잠언 3:5~7, 11~13)

신약전서 역시 보석과도 같은 진리가

가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37~40)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누가복음 22:31~34, 56~62)

그날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교리와 성약에 담긴 다음 성구도 제 삶을 풍성히 축복해 주었습니다. “내 말을 선포하려 힘쓰지 말고 먼저 나의 말을 얻으려 힘쓰라. 그리하면 네 혀가 풀리리라. 그런 후에 내가 원하면, 너는 나의 영과 나의 말, 참으로, 사람을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11:21)

저는 몰몬경에서 매우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진리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또 이제 나는 너희가 겸손하며, 유순하고 온화하며, 쉽게 권함을 받으며, 인내와 오래 참음이 가득하며, 모든 일에 절제하며, 어느 때에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부지런하며, 영적인 것이나 현세적인 것이나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며, 너희가 받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기를 원하노라.

또 돌아보아 너희에게 신앙과 소망과 사랑이 있게 할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항상 선행이 넘치게 되리라.”(앨마서 7:23~24)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만일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니, 이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아니함이라. 그런즉 모든 것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랑을 붙들라. 이는 모든 것이 반드시 시들되-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영원히 견딜이요,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이를 지닌 것으로 드러나는



자는 잘 될 것임이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가 계신 그대로 우리가 그를 볼 것인즉,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게 하며, 우리로 이 소망을 갖게 하며, 그가 순결하신 것같이 우리가 순결하게 되게 할지이다.”(모로나이서 7:45~48)

제 소중한 아내 지닌은 몰몬경을 사랑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이미 지닌은 몰몬경을 삶의 토대로 삼았습니다. 아내는 미국 북서부 지역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던 시절에도 간증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칠 때 몰몬경을 활용했습니다. 저희 둘이 함께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서 선교 사업을 할 때에도 아내 지닌은 몰몬경을 사용하여 전도할 것을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아내는 몰몬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은 주님의 영을 받게 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하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이 지니신 신성에 대해 더욱 강한 간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아주 젊은 시절부터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해왔는지 정확한 햇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내는 연말이 되면 조용히 앉아서 몰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읽었습니다.

1991년에 저는 가족에게 특별한 성탄절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제 일지에는 그 소망을 어떻게 이루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91년 12월 18일, 수요일, 낮 12시 38분. 가족을 위한 몰몬경 녹음 작업을 막 마쳤다. 이 신성한 작업을 하면서 이 경전에 대한 간증이 커졌으며, 경전과 더 가까워지고, 거기서 진리를 익혀 주님을 위해 봉사할 때 그 내용을 활용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커졌다. 이 책이 정말 좋다. 이 책이 참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 준비되었으며, 그 내용 하나하나가 온 세상에 퍼질 것이라는 간증이 뚜렷하게 생긴다. 겸손한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이 책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은 이 책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보화를 찾고, 이 생에서 더 행복해지고, 더 평화로워지며, 더 많은 일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이 참되다는 것을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간증한다.”

우리 모두 경전 공부를 통해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고든 비 헝클리, “가슴 설레는 참된 간증”, 리아호나, 2005년 8월호, 6쪽 참조.



바바라 톰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 개인적인 계시와 간증

충실하게 계명을 지키고 신앙으로 구할 때, 주님의 방식으로, 그분께서 정하신 시기에 응답이 올 것입니다.

**오**래 전 대학생 시절에 제가 살던 집에는 TV가 없어서 라디오로 연차 대회를 들었습니다. 연사들은 훌륭했으며, 저는 성신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당시 한 총관리 역원이 구주와 그분의 성역에 관해 말씀하시고 힘있는 간증을 나누신 일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성신은 제 마음 속에 그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해 준 개인적인 계시였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여덟 살 때 침례와 확인,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니다. 그때도 정말 훌륭한 축복을 누렸지만, 그 이후로 성장해 나가면서 저는 여러 방식으로 성신의 은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은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어린 아이에서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겪는 시련과 여러 일들 속에서 우리는 성신을 통해 신성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에 부딪힐 때 이렇게 자문하기도 합니다.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종종 물문경에서, 가족에게

복음을 가르친 리하이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리하이는 후기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많은 계시와 가르침을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니파이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더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주님께 인도를 구했습니다. 축복과 영감이 임했고, 니파이는 아버지가 가르치신 말씀이 참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니파이는 마음을 다해 주님의 계명을 따르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니파이는 자신에게 지침이 될 개인적인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반면,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니파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은 주께 물어보았나이까?”<sup>2</sup>

그들의 대답은 나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았노라. 이는 주께서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심이니라.”<sup>3</sup>

니파이는 그 순간을 형제들에게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방법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당신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시나이까? -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나의 계명을 지키며 받게 되리라고 믿으며 신앙으로 내게 구할진대,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알려지리라.”<sup>4</sup>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방법은 사실 아주 분명합니다. 계시를 받고자 소망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한 후, 신앙으로 구하고, 응답을 받게 되리라고 진실로 믿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지켜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께 여쭙 때마다 즉시 모든 구체적인 행동 요령과 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충실하게 계명을 지키고 신앙으로 구할 때, 주님의 방식으로, 그분께서 정하신 시기에 응답이 올 것입니다.

어릴 때 저는 개인적인 계시나 기도에 대한 응답은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어떤 계시는 들을 수 있는 실제 음성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만, 저는 영이 우리와 여러 방식으로 소통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리와 성약 6편에는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물었음이라, 보라, 내가 물을 때마다 너는 나의 영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sup>5</sup>

“내가 네 마음을 밝혀 깨닫게 해주었[으며]”<sup>6</sup>

“내가 그 일에 대하여 네 생각에 평강을 말하지 아니하더냐?”<sup>7</sup>

계시를 받는 것에 관한 가르침은 다른 구절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네게 임하여 네 마음에 거할 성신으로 말미암아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말하리라. 이제 보라, 이것은 계시의 영이니”<sup>8</sup>

“내가 네 가슴을 내 속에서 뜨겁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것이 옳은 줄 느끼게 되리라.”<sup>9</sup>

“나는 네게 나의 영을 나누어 주리니, 그것은 네 마음을 밝혀 주며 네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 주리라.”<sup>10</sup>

개인적인 계시는 주로 경전을 공부할 때, 선지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듣고 따를 때, 충실하고 의롭게 살고자 노력할 때 옵니다. 때로는 경전 한

구절이나 연차 대회 말씀 속 한 문장에서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때에도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시는 이 모든 형태로 전해집니다.

회복 초기에 많은 회원들은 부지런히 계시를 구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영감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님은 브리검 영 회장님에게서 교회 자매들을 가르치고 격려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스노우 자매님은 “자매들이 각자 그들의 삶이나 가정 생활에서, 또 교회에서 그들이 맡은 책임을 수행할 때, 그들을 인도할 영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자매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그 일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축복이 올 것이라고 전해 주세요. 권능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지혜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능을 얻을 것입니다.’”<sup>11</sup>

스노우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자매들에게 성신의 인도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신은 ‘사람이 마음에서 품은 모든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고, 부족한 부분을 모두 채워 [줍니다.] 영으로 충만할 때면 …… 제 영혼은 가득 [칩니다.]’”<sup>12</sup>

다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회장님은 “계시와 간증이 항상 압도하는 힘의 형태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간증은 평화로운 느낌으로 한 번에 조금씩, 천천히 옵니다.”라고 가르치시며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진심을 다하여 개인적인 영감을 가져오는 빛을 구합니다. 우리 마음에 신앙을 점화시킬 수 있는 신앙의 불꽃을 내려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 성신의 신성한 역사하심을 받아들이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sup>13</sup>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시련에 부딪힐 때, 간증은 우리를 강화하고 복돋워 줍니다. 사람들은 힘겨운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결혼이나 자녀 문제, 외로움 또는 이루지 못한 꿈과 희망으로 고통받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헤쳐 나가게 해 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과 결합된 우리의 간증입니다.

‘내 왕국에 속한 딸들’이라는 책에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큰 슬픔과 공황에 시달리던 헤드비그 바이라이헬이라는 한 독일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이 많고 베푸는 일을 좋아하는 바이라이헬 자매는 빈곤에 허덕이는 상황에서도 굶주린 전쟁 포로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훗날 “이 모든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간증을 지킬 수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녀는 실제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간증을 지킨 것이 아니라 간증이 저를 지켜 주었습니다.”<sup>14</sup>

강한 간증이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그러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간증이 우리를 지탱해 줄 만큼 충분한 힘이 있도록 가꾸고 강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찬을 취하고, 성약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자주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며 [우리] 신앙의 창시자이시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의 공덕만을 의지하[게]” 합니다.<sup>15</sup>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적절하게 계시의 영을 구하고 활용한다면 ‘주의 빛 가운데 행하[게]’(이사야 2:5;

니파이후서 12:5)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어떤 때에는 계시의 영이 즉각적으로 강렬하게 임할 것이고, 또 다른 때에는 조용히, 점차적으로, 참으로 부드럽게 와서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오든지 그 빛은 여러분의 영혼을 밝히고 크게 하며, 이해력을 넓혀 주고(앨마서 5:7; 앨마서 32:28 참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인도하고 보호해줄 것입니다.”<sup>16</sup>

주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고 지혜를 주시고 지도하여 축복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자 소망하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계시를 받고자 소망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한 후, 신앙으로 구하고, 응답을 받게 되리라고 진실로 믿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하면 질문에 대한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46:13.
2. 니파이전서 15:8.
3. 니파이전서 15:9.
4. 니파이전서 15:11; 또한 10절 참조.
5. 교리와 성약 6:14.
6. 교리와 성약 6:15.
7. 교리와 성약 6:23.
8. 교리와 성약 8:2-3.
9. 교리와 성약 9:8.
10. 교리와 성약 11:13.
11. 엘리자 알 스노우,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 회의의 역사와 업적*(2011), 45쪽.
12. *내 왕국에 속한 딸들*, 46쪽.
13.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여러분에게 있는 잠재력과 특권”,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60쪽.
14. *내 왕국에 속한 딸들*, 79쪽 참조.
15. 모로나이서 6:4-6.
16.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계시의 영”,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90쪽.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  
칠십인 회장단

## 때가 이르리라

저 역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사업이 기적처럼 경이롭게, 저침없이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점** 은 시절에 저는 선교사로서 페루 리마 도심에서 몇 달 동안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주 리마에 있는 아르마스 광장을 지나다녔는데, 광장 맞은편에는 페루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있는 대통령 궁이 있었습니다. 동반자와 저는 광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된 복음을 들어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때 종종 저는 대통령 궁에 한 번 들어가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았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저는 여러 형제님들과 함께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을 모시고 그 대통령 궁에 들어가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아름다운 방들을 구경했고, 가르시아 대통령에게서 환대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궁에 대해 궁금해했던 1970년대 선교사 시절에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그 일이 실현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봉사하던 시절에 비해 페루는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교회가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때는 스테이크 단 한 곳에 11,000여 명의 회원들만 있었지만, 지금은 약 100개의 스테이크에 50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회원이 몇 사람밖에 없었던 도시는 이제 활기 넘치는 스테이크와 멋진 집회소가 세워져 더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대단한 성장을 보인 일에 대해서는 설명할 가치가 있습니다. 구약전서에 나오는 예언을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히브리인 노예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된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 꿈과 해석을 알려 달라고 간구했고,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 왕이 침상에서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다니엘은 왕이 머리와 가슴, 팔, 다리, 발이 있는 무서운 신상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가 굴러 나와 그 크기가 점점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돌에 부딪혀서 신상이 산산조각 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신상이 미래에 세워질 정치적 왕국을 상징하며 “[미래에 있을]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현대 경전을 찾아보겠습니다. 천사 모로나이는 1823년에 처음으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났고, 조셉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을 전하였으며, [그]의 이름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지[리라]”<sup>2</sup>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열일곱 살밖에 되지 않은 조셉은 그 말에 분명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1831년에 주께서는 조셉에게 하나님 왕국의 열쇠가 다시 “땅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땅 끝까지 복음이 굴러 나아가기를, 마치 손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나아가 드디어 온 땅을 가득 채우듯 하리라.”<sup>3</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말과 같습니다.

1898년에 월포드 우드럽 회장은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 1834년에 겪은 경험, 즉 커틀랜드 근처에서 열린 신권 모임에 관한 경험을 들려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모든 신권 소유자에게 작은 통나무 학교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5명이 조금 넘는 작은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 우리가 다 모아자 선지자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 이 사업에 관해 간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그들의 간증이 끝난 후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오늘 밤 이곳에서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크게 감화되었으며, 많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 교회와 왕국의 운명에 대해서는 어머니

무릎에 누인 아기보다도 아는 것이 많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 오늘 밤 이곳에는 신권 형제들이 몇 사람 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는 남미와 북미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세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sup>4</sup>

이 예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하나님의 왕국은 산에서 뜨인 돌과 같이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
- 조셉 스미스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질 것입니다.
- 교회가 미 대륙과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

이런 예언이 170년 전에는 터무니없는 것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미국 변방에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몇 년마다 박해를 피해 도망 다니던, 몇 안

되는 신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무리가 국경을 넘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 신앙의 토대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1925년 성탄절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남미 대륙 전체를 헌납하셨습니다. 하지만 1926년 8월까지 침례를 받은 개종자는 몇몇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남미 대륙 전체에서 최초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85년 전의 일로, 오늘 이 대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 그때 살아계셨던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세워진 시온의 스테이크는 23개이며,

####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아르헨티나 전국 각지에는 수십 개에 달하는 스테이크와 수십만에 이르는 교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남미 대륙에 있는 스테이크는 600개를 훌쩍 넘어섰으며, 회원 수는 수백만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의 왕국이 대륙을 가득 채우고 조셉 스미스의 이름은 우리뿐 아니라 그분이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했을 여러 나라에서, 그분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에까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보스턴부터 방콕, 멕시코시티, 모스크바에 이르기까지 현재 전 세계에는 약 3천 개의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와드와 지부 수는 2만 9천 개를 육박합니다. 조상 시대에 개종한 회원들이 있는, 안정된 단계로 접어든 스테이크가 여러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회원들이 소규모로 모여 전세 건물에서 작은 지부 단위로 모이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매해 교회는 전 세계에 더 멀리 퍼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채울 것이고 방방곡곡에 알려지리라는 예언은 허황된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믿기 어려울까요?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은 이미 우리 눈 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때 대영제국은 해가 지는 일이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그 제국은 이제 쇠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업은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기에 이 사업에서 해가 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했을 뿐입니다. …… 우리의 사업은 끝이 없습니다. …… 우리에게 빛장을 걸었던 국가들도 머지 않아 개방될 것입니다.”<sup>5</sup>

우리는 지금 몰몬경에 대한 이 예언이 곧 성취되리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브라질 살바도르

있습니다.

“또 …… 열왕이 입을 봉하게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듣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될 것임이니라.

이는 그 날에, 나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한 일을 행하실 것임이니, 그 일이 그들 중에서 크고 기이한 일일 터이므로”<sup>6</sup>

이 주님의 사업은 참으로 위대하고 기이하지만 필연적으로 수많은 정치, 문화, 학문적 지도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전진합니다.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한 번에 한 개인, 한 가족의 변화를 이루어 나아가며, 그 성스러운 가르침은 모든 곳의 사람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다음 말씀은 오늘날 교회가 보이는 기적과 같은 성장에 대한 열쇠가 됩니다. “또 더욱이 내가 네게 이르노니, 구주에 대한 지식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두루 퍼질 때가 이르리라.”<sup>7</sup>

세상 모든 곳에 전하도록 신성하게 부름받고 명을 받은 우리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구주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정의 시대에 지상에서 사셨으며,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비할 데 없는 메시지가 바로 교회가 지금과 같이 성장하는 진정한 원동력이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아 이를 전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복음을 지상에 회복하셨으며, 사도와 선지자와 신권 열쇠를 다시 지상에 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 있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을 통해 그분의 교회를 이끄십니다. 그분의 교회는 손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되어 지구촌 곳곳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조셉 스미스에 대해 감사드리며, 또한 지상에서 그 이름이 존중되는 한편 더욱더 많이 매도되는 모습을 보며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기에 일어난 이 위대한 사업이 조셉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압니다. 이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평강의 왕자이신 그분 아들의 사업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간증드리며, 저 역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사업이 기적처럼 경이롭게, 거침없이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참으로 “구주에 대한 지식이 ……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두루 퍼질 때가 이르렀습니다.” 구주께서 온 인류의 구주시라는 것과 이 사업에 대한 저의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다니엘 2:28, 35, 44; 또한 1~45절 참조.
2. 조셉 스미스-역사 1:33.
3. 교리와 성약 65:2.
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2004), 25~26쪽.
5. 고든 비 힝클리, “교회 현황”, 리야호나, 2003년 11월호, 6쪽.
6. 제3니파이 21:8~9.
7. 모사이아서 3:20.



호세 엘 알론소 장로  
칠십인 정원회

# 미루지 말고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일을 하십시오

구주께서는 행복과 기쁨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훌륭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이들은 슬픔과 큰 혼란 속에서 생활합니다. 의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지도 않고, 자신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을 얻지도 못합니다.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를 때 참된 행복을 얻는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자 교사이시며, 완전한 모범이십니다.

주님은 봉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궁핍한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이웃을 섬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주를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보이게 되고, 그럼으로써 더욱더 그분들을 닮아갑니다.

베냐민 왕은 봉사에 담긴 가치를 이야기하며 “[우리]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다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봉사하고 사랑을 보일 기회는 누구에게든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우리에게 “구조하라”,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라”라고 당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의 손길을 느낀 사람들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충실하게 봉사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며, 더욱 구주처럼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영생의 약속을 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 주셨을 때 그가 말한 것처럼 말할 것입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sup>2</sup>

우리에게는 매일 도움을 주고 봉사할 기회가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일을 하십시오. 직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프거나, 외로움을 느끼거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움을 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빗속에서 차가 고장이 나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구하는 이웃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해야 할 올바른 일은 무엇이며, 올바른 시간은 언제입니까?

저는 두 아이의 옷을 사려고 가족과 함께 멕시코시티 중심가로 갔던 일이 생각납니다. 아이들은 매우 어렸습니다. 첫째 아들은 겨우 두 살이었고, 둘째 아들은 한 살이었습니다. 길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잠시 멈춰 서서 뭔가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틈에 큰 아들이 없어졌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아이가 곁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지체 없이 아이를 찾아 뛰어다녔습니다. 영영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고 몹시 걱정하며 이곳저곳을 살살이 살피면서 연신 이름을 외쳐 불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이를 찾도록 도와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잠시 후, 저희는 아이를 찾았습니다.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상점 유리창 너머로 장난감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껴안고 입을 맞추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아이를 구조하려 가기 위해 모임을 계획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겼으며, 잃은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운 또 한 가지 교훈은 정작 아이는 자신이 길을 잃었는지도 몰랐다는 점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이유에서건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길을 잃은 줄도 모르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미루다가는 그들을 영영 잃을지도 모릅니다.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봉사하겠다는 우리의 결심, 즉 미루지 않고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일을 하겠다는 다짐만이 필요합니다.





물몬경 시대에 백성들을 방문하셨을 때 구주께서는 행복과 기쁨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훌륭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주께서는 가르침을 전하신 후에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이에 구주께서는 백성들에게 집으로 가서 배운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튿날 주께서 다시 오셔서 가르치실 때를 대비해 스스로를 준비해 오라고 하셨습니다.<sup>3</sup>

주께서 말씀을 마치시며 백성들을 바라보셨을 때 주께서 계속 곁에 머물러 주시기를 바라며 눈물을 흘리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이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나의 심정은 너희에 대한 측은함으로 가득하도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너희에게 저는 자나, 맹인이나, 다리 불편한 자나, 장애인이나, 나병환자나, 마른 자나, 못 듣는 자나, 어떻게든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고쳐 주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측은히 여김이요, 나의 심정이 자비로 충만함이라.”<sup>4</sup>

병든 이들을 데려오자 주님은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였고, 발에 입을 맞추며 “그들이 그 눈물로 그의 발을 씻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라고 하신 후, 아이들을 하나씩 축복하셨습니다.<sup>5</sup> 구주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구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결코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과 이해와 인내심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를 도우십니다. 저는 선지자들을 따를 때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일하기를 바라십니다. 간증을 나누고 헌신하기를 바라십니다.”<sup>6</sup>

우리는 책임과 커다란 기회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감미로운 행복과 기쁨을 다시금 경험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런 행복은 의식을 받으며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찾아옵니다. 주님에게는 그들에게 도움을 건넬 우리가 필요합니다. 미루지 말고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일을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며,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면전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 구주임을 압니다. 그분들은 계속해서 무한한 친절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저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그분들의 선지자이며, 이 교회가 지상에서 유일하게 참된 교회임을 증거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회복의 선지자임을 압니다. 물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간증드립니다. 물몬경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처럼 되기 위해 따라야 할 지침이자 본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모사이야서 2:17.
2. 토마스 에스 몬슨, “구조대에게”,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58쪽.
3. 제3니파이 17:1~3 참조.
4. 제3니파이 17:6~7; 또한 5절 참조.
5. 제3니파이 17:9~12, 21 참조.
6. 토마스 에스 몬슨,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58쪽.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 청소년들에게 주는 권고

반대나 시험, 유혹에 부딪혀도 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을 청소년 여러분과 비교해 보면서, 보통 때와는 달리 좀 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는 모든 대륙과 수많은 나라에서 청소년들을 보아 왔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청소년이었을 때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성숙하며, 충실합니다.

저는 이제 여든일곱 살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여러분의 삶에 보탬이 될 만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과 같은 시절을 거쳤기에 여러분이 가는 길이 어떤지를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제가 있는 곳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고전 시를 조금 읽어 보겠습니다.

늙은 까마귀는 움직임이 느릿해지나  
젊은 까마귀는 그렇지 않지  
허나 젊은 까마귀가 모르는 일을  
늙은 까마귀는 많이 안다네  
아는 것이 더 많은 늙은 까마귀  
아직은 젊은 까마귀에게 스승이 될 수  
있지  
느릿한 늙은 까마귀가 모르는 것은  
더 빨리 나는 법뿐이지  
젊은 까마귀는 위나 아래로도 날 수 있고

느린 늙은 까마귀 주위로도 날아갈 수  
있으나

날쌔 젊은 까마귀가 모르는 것, 그것은  
바로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sup>1</sup>

위즈워스 작품은 아니지만 고전적인  
시입니다.

훼손되는 도덕 표준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청소년 여러분은 적의 영토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시퍼가 모반을 일으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으며, 그 추종자들과 함께  
루시퍼가 “땅으로 내쫓[겼다]”<sup>2</sup>는  
사실을 우리는 경전에서 배워 압니다.  
루시퍼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망치려고 작정했기에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려고 듭니다.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는 “땅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sup>3</sup>

그러나 반대나, 시험, 유혹에 부딪혀도  
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열일곱 살 시절,  
제 생각에 저는 이런저런 약점이 있는  
무척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아침에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다음 날 우리는 학교 강당에 모여야  
했습니다. 강당 무대에는 작은 라디오가  
놓인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라디오를 켜셨습니다. 그러자

진주만이 공습을 받았다고 발표하는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 대통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강당에 모이는 일은  
되풀이되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번에는 미국이 독일과 전쟁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전  
세계로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살아 남아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지금 세상에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고, “온 땅이 동요”합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삶에 대해 불투명하고  
불안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관해 권고하고, 가르치고, 경고하려  
합니다.

복음의 계획은 “위대한 행복의  
계획”입니다. 가족은 이 계획의 중심에  
있습니다. 가족의 미래는 여러분의 육체에  
내재된, 생명을 잉태하는 힘을 합당하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발표한 영감 어린 문서인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전세에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남녀의 성별은 …… 본질적인  
특성이며 전세에서 확립되었다.”

……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셨음을 선언한다.”<sup>6</sup>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이 받은 커다란  
형벌은 육신을 입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처하는 유혹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그 중 가장 심각한 유혹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세대의 몸을 창조할 능력뿐만 아니라 선택의지도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는 육신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을 다스릴 권능이 있습니다.”<sup>7</sup>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있는 모든 살아 있는 영혼은 궁극적으로 악마를 물리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체적 본성 때문에 유혹을 받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악마와 그의 사자들을 이길 힘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동창생 대다수는 전쟁터로 갔고, 그중 일부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아 있던 우리도 곧 입대를 해야 했습니다.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까?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알던 세상이 그대로 있기는 할까?

저는 제가 징집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공군에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저는 캘리포니아 주 산타아나에서 비행 관련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복음이 참되다는 확고한 간증을 갖고 있지 못했지만, 저의 세미나리 교사이셨던 아벨 에스

리치와 존 피 릴리화이트 두 분께는 그런 간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전해 주시는 간증을 듣고서 저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저는 ‘나의 간증을 얻을 때까지는 저 분들의 간증에 의지해야겠어.’ 하고 생각했으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에 대해 들어 본 적은 있었지만 아직 받지는 못했던 터였습니다. 각 스테이크에는 예언의 영과 계시의 영을 지닌, 성임받은 축복사가 있습니다. 축복사는 감독에게 추천을 받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축복을 주는 권한이 있습니다. 저는 감독님께 추천서를 발급해 달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제이 롤랜드 샌드스트롬 형제님이 산타아나 스테이크의 성임된 축복사이셨습니다. 그분은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고 만나 본 적도 없으셨지만, 저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문에는 응답과 지침이 들어 있었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매우 사적인 것이지만 제 축복문에 나오는 한 부분을 짧게 인용하겠습니다. “그대는 성령의 속삭임으로 인도를 받을 것이며 위험을 경고받을 것이니라. 만일 그러한 경고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대가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도록

축복하실 것이니라.”<sup>8</sup>

작은 글씨로 쓰인 그 ‘만일’이라는 단어가 종이 한 장 전체만큼 크게 다가왔습니다. ‘만일’ 계명을 지키고 성신의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침례를 받을 때 성신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때까지 성신이 무엇인지, 또 그 속삭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저는 그 속삭임에 관해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몰문경에서 찾았으며, 이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성신의 권능으로 말하하니,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도다. 이리므로 …… 그리스도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라 ……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 주심이니라.”<sup>9</sup>

제가 몰문경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영의 음성은 소리라기보다는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소리보다는 느낌으로 오는 그 음성을 어떻게 ‘들’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니파이는 다음과 같은 말로 형들을 꾸짖었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를 보았고 그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으니 참으로 당신들은 시시로 그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또 그가 당신들에게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하였으되, 당신들이 감각이 없어 그의 말씀을 감지할 수 없었나이다.”<sup>10</sup>

일부 비평가들은 말이란 듣는 것이지 느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영적 대화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것을 묘사할 적절한 단어는 바로 ‘느낌’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허용만 한다면, 성신의 은사는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며 여러분의 행위를 바로잡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이나 느낌으로 오는 영의 음성이로 말입니다. 선지자 이노스는 “주의 음성이 …… 나의 생각 속에 임[했다]”<sup>11</sup>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보라, 나는 네게 임하여 네 마음에 거할 성신으로 말미암아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말하리라.”<sup>12</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중대한 잘못을 하기 전에는 먼저 성령의 속삭임을 통해 경고를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교회 회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일부는 복음 율법을 범하는 매우 심각한 잘못을 저지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속죄와 회개,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순수해질 수 있는 완전한 용서에 대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sup>13</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릇되게 행동하여 악마에게 포로처럼 사로잡힌다 해도 여러분에게는 안쪽에서 옥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통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크든 작든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하고, 길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만이 상처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어떤 상처든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곳에 들어갔거나 여러분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면, 그때야말로 여러분의 독립과 선택의지를 주장할 때입니다. 영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잘못 인도되지 않습니다.

지금 청소년 여러분은 도덕 표준이 쇠퇴하는 적의 영토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종으로서,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탄이 퍼붓는 공격에서 보호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경건하게 이야기하며, 영을 고양시키는 음악을 들으십시오. 모든 부도덕과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삶을 통제하고 용감해지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에게 아주 많은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 영국 레스터



될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은 절대 여러분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미나리 교사들의 간증에 의지할 필요성을 느낀 이후로 제 간증은 강도 면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재 저는 나이가 많은 데다가 어린 시절에 걸린 소아마비 때문에 걸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야 하지만 영적 문제에 관한 의혹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 진리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중한 진리를 믿고, 이해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특별한 증인 중 한 사람으로서 전세에서 시작된 이 전쟁의 결과는 의심할 여지가 없음을 간증합니다. 루시퍼는 패배합니다.

말씀 초반에 까마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까마귀 여러분은 앞에 놓인 길을 확신하지 못해 이리저리 목적 없이 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sup>14</sup>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열쇠와 평의회 원리를 바탕으로 조직하셨습니다.

교회 맨 앞에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받은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각 구성원에게는 교회를 인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신권 열쇠가 있습니다. 선임 사도가 선지자가 되는데,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그 모든 열쇠를 행사하도록 위임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경전에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평의회로 일하며 그 평의회에서 내리는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일만을 추구합니다. 또한 그분이 저희를 개인으로나 전체로나

크게 신뢰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sup>15</sup> 배워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친구들을 주위에 두어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역시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따금씩 하던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말세인걸. 내가 도달해야 할 곳에 이르기 전엔 종말이 오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일, 다시 말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와 손자 손녀를 보고, 어쩌면 증손자 증손녀까지도 볼 날을 고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따른다면 보살핌과 보호를 받으며 성신의 속삭임을 통해 가야 할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신의 권능으로 [여러분은]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기]”<sup>16</sup>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우리의 소중한 청소년 여러분에게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John Ciardi, "Fast and Slow," *Fast and Slow: Poems for Advanced Children and Beginning Parent*(1975), 1쪽. © 1975 by John L. Ciardi, Houghton Mifflin Harcourt Publishing Company의 허락을 받아 인용. 판권 소유.
2. 요한계시록 12:9; 또한 교리와 성약 76:25~26 참조.
3. 교리와 성약 52:14.
4. 교리와 성약 45:26.
5. 엘머서 42:8.
6.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11쪽.
8. 보이드 케이 패커가 제이 롤랜드 샌드스트롬에게서 받은 축복사의 축복, 1944년 1월 15일, 3쪽.
9. 니파이후서 32:3.
10. 니파이전서 17:45.
11. 이노스서 1:10.
12. 교리와 성약 8:2.
13. 교리와 성약 58: 42.
14. 아모스 3:7.
15. 잠언 3:5.
16. 모로나이서 10:5.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 여러분은 주님께 중요합니다

주님은 영혼의 가치를 가늠하실 때 세상과는 매우 다른 저울을 쓰십니다.

**위** 대한 선지자로 세상에 알려진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서 키워져 40년간 애굽 왕궁에서 지냈습니다. 모세는 이 고대 왕국이 지닌 영광과 장엄함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모세는 강한 애굽의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과는 동떨어진 먼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친구와 이야기하듯 얼굴을 마주하고 그분과 대화했습니다.<sup>1</sup> 이 만남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분의 손으로 지은 것들을 보여 주시면서 그분의 일과 영광을 잠시 볼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시현이 끝나자 모세는 땅에 쓰러져 오랫동안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기력을 되찾았을 때, 그는 과거에 오랜 세월 동안 바로 왕궁에서 지내던 시절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무 것도 아님을 아나니”<sup>2</sup>

## 우리는 생각보다 작은 존재입니다

저는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우주에 관해 알수록 모세가 깨달았던 것을 더욱더 이해하게 됩니다. 우주는 너무나도 광대하고 불가사의하며 영광스러워서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수한 세상을 내가

창조하였[노라]”<sup>3</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비로운 밤하늘은 이 사실을 아름답게 증거합니다.

깜깜한 밤하늘을 대양과 대륙을 가로질러 비행하면서 조종석 창문을 통해 무수한 별들이 펼쳐진 장관을 바라보는 것처럼 숨막히는 경외감으로 제 마음을 채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지 헤아려 보려는 시도를 해 왔습니다. 한 그룹의 과학자들은 망원경으로 관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별의 수가 지구 해안과 사막에 있는 모래알 수보다 10배가 많다고 추산했습니다.<sup>4</sup>

이러한 판단은 고대 선지자 예녹이 남긴 선언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사람이 땅의 티끌 참으로 이 땅과 같은 수백만의 땅을 셀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신의 창조의 수의 시작도 되지 못하리이다.”<sup>5</sup>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만물의 광대함을 감안할 때 베냐민 왕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너희 자신이 아무 것도 아님[을] …… 항상 기억에 간직하[라]”<sup>6</sup>라고 권면한 일은 놀랍지 않습니다.

### 우리는 생각보다 위대한 존재입니다

비록 사람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큼”<sup>7</sup>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은 놀라움과 경외감으로 가득해집니다.

우리는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만물의 영광과 비교할 때 인간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장엄한 우주의 목적이기도 한 하나님의 일과 영광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고 승영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sup>8</sup> 다시 말해서 끝없이 광활하게 뻗은 영원이, 무한한 시공에 펼쳐진 찬란한 아름다움과 신비가 여러분이나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 모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아들딸로서 우리가 받은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란 존재에게 있는 모순입니다. 하나님에 비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께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무한한 창조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일 수 있으나 우리 가슴 속에는 영원한 불꽃이 타오르며 승영, 즉 끝없는 세상들이라는, 정작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하는 약속을 받았습니 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은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 교만이라는 어리석음

속이는 일에서 최고인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여 길을 잃게 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인간이 처한 모순된 상황의 양극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쉽게 교만해지는 성향에 호소하여 자기는 정말 중요하고 아무도 어찌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망상에 빠지도록 부추깁니다. 사탄은 그들이

비범하며, 능력이나 생득권, 또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들을 둘러싼 모든 평범함을 초월한다고 설득합니다. 결국 자신은 다른 누구의 규칙에도 얽매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문제에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는 결론에 이르도록 이끕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애송하던 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 인간의 영혼이여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날아가는 유성처럼 흘러가는 구름처럼 번뜩이는 번개처럼 부서지는 파도처럼 태어나 무덤 속 안식으로 스러지는 짧은 삶이여<sup>9</sup>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영원에 비해 이 필멸의 세상에서 지내는 시간을 ‘잠시’<sup>10</sup>일뿐임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람의 참된 가치가 세상에서 받는 존경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세상의 돈을 모두 끌어 모아 쌓아 둔다 하더라도 천국에서는 그 돈으로 빵 한 조각 살 수 없다는 것 역시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으려면]”<sup>11</sup> “어린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을 충만[한]”<sup>12</sup>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sup>13</sup> 그런 제자들은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너희로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sup>14</sup>라는 말씀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잊혀지지 않았습니 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또 다른 방법은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면모에만 집중하게 하여 결국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무 미미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며 특히 하나님께도 잊혀진 존재라고 속삭입니다.

저는 자신이 보잘것없다거나 잊혀졌다거나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경험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래 전에 저는 미 공군에서 시행하는 조종사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나 동독에서 자랐기에 저는 타향에서 지내는 젊은 서독 군인으로, 영어도 상당히 서툴렀습니 다. 저는 아직도 당시 훈련 기지가 있던 텍사스까지 가던 길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비행기에서 미국 남부 사투리가 심한 승객 옆에 앉았는데, 저는 그분 말을 대부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여태껏 모국에서 배운 영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생겼습니 다. 영어가 모국어인 훈련생들과 수석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자 두렵기도 했습니다.

텍사스 주 작은 마을인 빅스프링에 있는 공군기지에 도착한 후, 저는 후기 성도 지부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훌륭한 회원들 몇몇이 기지 내에서 방을 빌려 모임을 갖는 지부를 찾아냈습니 다. 당시 그곳은 교회 모임 장소로 사용할 작은 집회소를 짓던 중이었습니다. 그때는 새 건물을 지을 때 회원들이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조종사 훈련 교육을 받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했으며, 남는 시간 대부분은 새 집회소를 짓는 일을 도왔습니다. 2X4가 댄스 스텝이 아니라 각목 크기를 의미한다는 것도 그곳에서 배웠습니 다. 저는 또한 못질을 할 때 엄지 손가락을 때리지 않는 중요한 기술도 배웠습니 다.

꽤 많은 시간을 집회소를 짓는 일을 하며 보내자 조종사 교관이기도 했던 지부 회장님은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지 않냐며 염려하셨습니다.

친구들과 동료 조종사 훈련생들은 나름대로 여가 활동을 즐겼는데, 그중에는 확실히 지금 우리에게 있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 표준과 맞지 않아 보이는 활동도 있었습니다. 저는 텍사스 서부에 위치한 그 작은 지부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새로 습득한 목공 기술도 연마하고 장로 정원회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부름을 수행하며 영어 실력도 쌓았습니다.

당시 빅스프링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작고, 특별할 것도 없으며,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자주 제 자신이 그 마을처럼 보잘것없고,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외톨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를 잊으셨다거나 거기 있는 저를 찾아 내실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조종사 훈련반에서 몇 등을 하든, 교회에서의 부름이 무엇이든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분께 중요한 것은 제가 최선을 다하는지, 마음이 그분께

향해 있는지, 또 주위 사람들을 기꺼이 도우려고 하는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한다면 모든 것이 잘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sup>15</sup>

####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주께서는 우리가 대리석이 깔린 방에서 일하든 마구간에서 일하든 개의치 않으십니다. 우리 처지가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십니다. 구주께서는 마음을 그분께 향하는 사람을 그분의 방법대로 주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쓰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살았던 위대한 영혼 중 일부는 세계 역사에 등장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들은 구주의 모범을 충실히 따른 축복받고 겸손한 영혼들로, 선을 행하며 일생을 사신 분들입니다.<sup>16</sup>

제 친구 부모님 역시 이 원리를 보여 주신 좋은 예이십니다. 제 친구 아버님은 유타 주에 있는 제철소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점심때가 되면 경전이나 교회 잡지를 꺼내어 읽으셨는데, 동료들은 이를 보고 놀리거나 그분의 믿음에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은 친절하고 자신 있게 응했습니다. 무례하게 굴더라도 화내거나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년 후, 유독 심하게 조롱을 보내던 한 동료가 몹시 앓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는 이 겸손한 분에게 장례식에서 조사를 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충실한 교회 회원은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오르거나 부를 많이 쌓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후에 그분은 눈 속에 갇힌 다른 인부를 구하다가 산업 재해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미망인이 된 제 친구의 어머니는 그로부터 일 년이 채 안 되어 뇌수술을 받아야만 했고, 그 결과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즐겨 찾아와 그분과 함께 있기를 좋아했는데, 그것은 부인이 이야기를 잘 들려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잘 기억했고,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글을 쓸 수 없었지만 자식들과 손자 손녀의 전화번호를 잊지 않았습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분을 찾아온 사람들은 자신과 인생에 대해 더 좋은 느낌을 얻어 갔습니다. 부인의 사랑과 관심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불평 한 마디 없이 다른 이들의 삶을 축복하며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 친구는 그 부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삶을 참되게 실천해 보인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부는 자신들은 세상에서 그다지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가장 먼저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혼의 가치를 기뻐하실 때 세상과는 매우 다른 저울을 쓰십니다. 주님은 이 충실한 부부를 아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삶은 주님을 믿는 강한 신앙을 보여 주는 산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위대한 우주에 비교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불품없고, 주목 받지 못하며, 외롭고, 잊혀져 버렸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중요합니다. 만일 의심이 간다면 이 네 가지 신성한 원리를 떠올리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천국에서[는] [크기]”<sup>17</sup> 때문입니다.

둘째, 주께서는 “[그분]의 복음의 충만함이 연약한 자들과 단순한 자들에 의하여 세상 끝까지 ... 선포되게”<sup>18</sup> 하십니다. “세상의 연약한 것들[을 택하시어] 힘 있고 강한 것들을 부수[게]”<sup>19</sup>하시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sup>20</sup>하십니다.

셋째,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 상황이 얼마나 초라하든, 직업이 아무리 보잘것없든, 능력이 아무리 부족하든, 외모가 아무리 평범하든, 여러분의 교회 부름이 아무리 작아 보이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겸손한 마음과, 사랑과 친절에 찬 여러분의 행동을 아십니다. 그런 속성들이 변치 않는 충실한 간증과 신앙을 만듭니다.

넷째, 여러분이 지금 보고 경험하는 일들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이나 슬픔, 고통, 실망감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그분께 향하는 사람을 결코 잊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고<sup>21</sup> 이 약속에 대한 희망과 신앙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말과 행동에서 그분의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그야말로 견뎌 내고, 그분을 믿고, 계명을 충실히 지키면 언젠가는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다음 약속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sup>22</sup>

형제 자매 여러분, 우주에서 가장 큰 권능을 소유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작은 행성에서 짧은 시간 동안만 사는 필멸하는 존재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자녀로 여기시며, 여러분이 장차 될 수 있고, 또 되기로 계획된 그 존재로 여러분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가치와 잠재력의 참된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언제나 믿고 신뢰하며 올바르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소중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세서 1:2 참조.
2. 모세서 1:10.
3. 모세서 1:33.
4. See Andrew Craig, “Astronomers count the stars,” BBC News, July 22, 2003, <http://news.bbc.co.uk/2/hi/science/nature/3085885.stm> 참조.
5. 모세서 7:30.
6. 모사이야서 4:11.
7. 교리와 성약 18:10.
8. 모세서 1:38-39 참조.
9. William Knox, “Mortality”, in James Dalton Morrison, ed., *Masterpieces of Religious Verse*(1948), 397.
10. 교리와 성약 121:7.
11. 제3나피야 11:38.
12. 모사이야서 3:19.
13. 누가복음 18:14; 또한 9~13절 참조.
14. 모사이야서 2:17.
15.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는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했다.
16. 사도행전 10:38 참조.
17. 마태복음 18:4; 또한 1~3절 참조.
18. 교리와 성약 1:23.
19. 교리와 성약 1:19.
20. 고린도전서 1:27.
21. 히브리서 13:5 참조.
22. 고린도전서 2:9.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스펜서 문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일회장단 제1보좌로, 디터 프레드릭 우호트도르프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회장단의 보좌들과 십이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가 있으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클라우드오 알 엠 코스타 장로는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드 알 콜리스터 장로를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표시해 주십시오.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서 게리 제이 콜먼, 리차드 지 헹클리, 요시히코 기꾸찌, 칼 비 프렛, 세실 오 사무엘슨 장로를 해임하고 명예 총관리 역원으로 지명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고원용, 로웰 엠 스노우, 폴 케이 스브로스키

장로를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훌륭하게 봉사해 주신 이 형제님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앨트 더블유 하디 이세, 존 엠 헌츠맨 일세, 알렉산드르 엔 만조스, 제이 윌러드 매리어트 이세 장로는 지역 칠십인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분들의 훌륭한 봉사에 대해 함께 감사를 표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그 외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든 총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문슨 회장님, 제가 지켜본 바로는 컨퍼런스 센터에서 제의한 모든 제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와 신앙 그리고 헌신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자녀들의 마음은 돌이[켜질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엘리야의 영에 대해 배우고 직접 경험해 보도록 권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구하고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할 때 종종 순서가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기에 구주의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난 순서를 통해 영적 우선순위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스러운 숲에서 조셉 스미스는 영원하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뵈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조셉은 이 경험에서 신화의 본질과 계속되는 계시에 대해 배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손꼽히는 이 장엄한 시현은 “때가 찬 경륜”(에베소서 1:9)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약 3년이 지난 1823년 9월 21일 저녁, 조셉이 드린 진지한 기도가 응답되어 그의 침실은 빛이 가득 차 “한낮보다도 더 밝아[졌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30) 그때 침대 곁에 누군가 나타났는데, 그는 조셉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하나님에 계신 곳으로부터 …… 보내진 천사 모로나이”(33절) 라고 밝혔습니다. 천사 모로나이는 조셉에게 몰몬경 출현에 대해 가르쳤고, 그런 뒤 구약전서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을 흥정역에서 사용된 구절과 약간 다르게 인용했습니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선지자 엘리야의 손으로 너희에게 신권을 드러내리라. ……

그리고 그는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들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1:38, 39)

모로나이가 어린 선지자에게 전한 가르침에는 궁극적으로 두 가지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1) 몰몬경과 (2)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 만물”(사도행전 3:21)을 회복하는 일에서 엘리야가 맡은 역할에 관한 말라기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회복 초기에 일어난 사건들은 신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달하고, 몰몬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구원과 승영의 사업을 미리 알려 주었습니다. 이 영감 어린 순서를 살펴보면 영적인 일에서 절대자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어떠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를 처음 가르칠 때 예고한 엘리야의 영과 그 성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성신께서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 엘리야의 성역

엘리야는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 구약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고대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늘을 봉했습니다. 과부의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어린 소년을 죽음에서 일으켰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습니다.(열왕기상 17~18장 참조) 지상에서 성역을 마친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열왕기하 2:11)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후기의 계시를 통해 엘리야에게 멜기세덱 신권의 인봉 권능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이르기 전에 그 권능을 소유했던 마지막 선지자였음을 배[웁니다.]”(Bible Dictionary, “Elijah”)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엘리야의 영, 권능, 부름은 여러분이 멜기세덱 신권의 충만함과 ……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모든 의식을 …… 얻을 …… 권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311쪽) 이 신성한 인봉 권능은 신권 의식을 유효하게 하고 땅과 하늘에서 함께 매이게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모세와 함께 변형의 산에 나타나(마태복음 17:3 참조) 이 권세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부여했습니다. 1836년 4월 3일, 엘리야는 다시 모세와 함께 케틀랜드 성전에 나타났고 똑같은 열쇠를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었습니다.

경전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조셉과 올리버 앞에 서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말라기의 입으로 말한 바 된 그때가 완전히 이르렀나니-그가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475쪽)

조셉은 또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나타난]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 그것은 어떻게 성취되어야 합니까? 열쇠가 전달되어야 하고 엘리야가 와야 하며, 복음이 확립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집합하며, 시온이 건설되고 성도들이 시온 산의 구원자로 와야 합니다.(오바다 1:21 참조)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시온 산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성전을 짓고 …… 돌아가신 선조들을 위해 모든 의식[을 받아야 합니다.] ……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묶어 주고 자녀를 아버지에게 묶어 주는 사슬이 있는 것이며, 이것이 엘리야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473쪽)

리셀 엠 벨슨 장로님은 엘리야의 영이 “가족의 거룩한 본질을 증거”하는 “성신의 임재하심”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새로운 추수의 시기”, 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34쪽) 이런 성신의 특수한 영향력 덕분에 사람들은 과거 조상뿐 아니라 현재 함께하는 가족에 대해서도 찾고, 기록하며, 그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엘리야의 영은 교회 회원과 비회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 회원인 우리는 조상을 찾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 의식을 제공하겠다고 성약을 맺었으며,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합니다.]”(히브리서 11:40; 또한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475쪽 참조) 또한 “우리의 죽은 자가 아니면, 우리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교리와 성약 128:15)

이러한 연유로 우리는 가족 역사를 조사하고, 성전을 짓고, 대리 의식을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과 하늘에서

증거하기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긴대 온 땅이 저주로 치심을 당할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경륜의 시대의 열쇠들이 너희 손에 맡겨지나니, 이로써 너희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 수 있으리라.”(교리와 성약 110:14~16)

엘리야를 통해 1836년에 인봉 권세가 회복된 일은 구주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데 필요했으며, 그리하여 전

세계에서 큰 관심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가족 역사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 엘리야의 영과 그 사업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최대의 책임은 죽은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 이는 인봉 권능이 우리의 손에 있어, 때가 찬 경륜의 시대, 즉 인간의 구원을 위해 창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는 경륜의 시대에 우리의 자녀와 죽은 자를 인봉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교회



매일 수 있는 인봉 권세를 회복하고자 엘리야가 왔던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위한 사업에서 주님의 대리인인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온 땅이 저주로 치심을 당[하는]”(교리와 성약 110:15)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맡은 의무인 동시에 위대한 축복입니다.

### 자라나는 세대에게 주는 권고

자라나는 세대인 청남과 청녀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엘리야의 영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왜 중요한지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회원 모두를 향해 이야기하겠지만 특별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은 가족 역사 사업이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경전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발표한 지침을 보면 이 중요한 봉사를 나이 든 성인만 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딸이고, 성약의 자녀이며,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입니다. 인류 가족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책임에 이유 없이 연령을 제한해 놓고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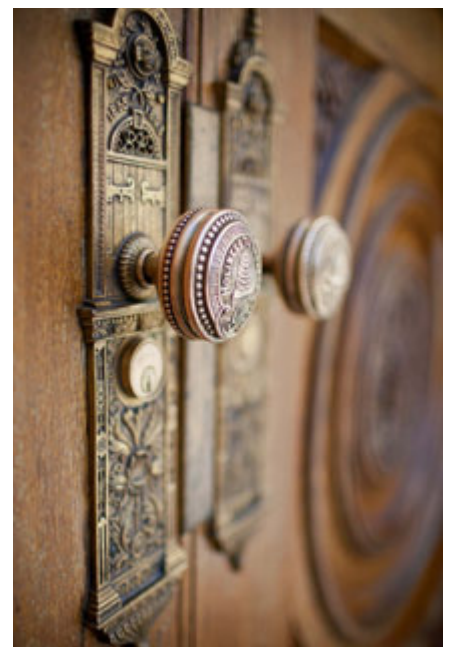
주님은 엘리야의 영으로 촉발된 이 사업에 여러분이 참여할 때 그 일을 잘 배우고 사랑할 수 있도록 훌륭한 자원을 마련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기록과 출처, 봉사의 집합체인 FamilySearch는 컴퓨터와 다양한 휴대 기기로 쉽게 이용 가능하며, 가족 역사를 찾고 기록하는 일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런 자원들은 또한 전 세계 교회 건물 여러 곳에 있는 가족 역사 센터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양한 정보 통신 기술에 매우 친숙한 이 시대에 FamilySearch와 기타 도구들이 출현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은 단순히 친구들과 재빨리 문자를 주고받고 트위터를 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업을 진척시키고 가속화하도록 훈련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징인 빠른 이해력과 기술은 이 구원 사업에 크게 공헌하기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엘리야의 영에 대해 배우고 직접 경험해 보도록 권고합니다. 조상에 대해 연구하고 찾아서 죽은 친족들을 위해 주님의 집에서 대리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교리와 성약 124:28~36 참조) 또한 가족 역사를 조사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권고에 신앙으로 응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조상에게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통을 선언하는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 여러분은 그 조상들에게 연결되고, 그 혈통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의미를 띠게 될 것입니다. 선조를 더 사랑하고 더 깊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구주에 대한 간증과 개종이 더욱 깊어지고 확고해질 것입니다. 또한 대적이 미치는 강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이 성스러운 사업에 참여하고 사랑한다면 청소년 시기뿐 아니라 평생토록 보호될 것입니다.

부모와 지도자 여러분, 자녀들이 엘리야의 영을 배우고 경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너무 과중하게 밀어붙이거나 많은 것을 제공하거나 훈련시키지는 마십시오. 청소년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시도하고, 배우도록 권고하십시오. (조셉 스미스-역사 1:20 참조) 청소년 누구라도 [lds.org/familyhistoryyouth](http://lds.org/familyhistoryyouth)에 나오는 학습 활동을 해 본다면 제 제안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론 신권 정원회 회장단과 청년 반 회장단들은 모든 청소년이 이런 기본 자원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들은 단순히 행함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학생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행동하여 성신의 권능을 통해 빛과 지식을 받는 학습자가 되어야 합니다. (니파이후서 2:26 참조)

부모와 지도자 여러분은 자녀와 교회 청소년들이 이런 도구에 얼마나 빨리 숙달되는지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이런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오히려 청소년들에게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현대 기술이 편치 않거나 그것을 두려워하는 연세 드신 분들, 또는 FamilySearch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청소년들이 가족 역사 사업과 성전 봉사에 열중하느라 비디오 게임과 인터넷, 페이스북을 덜 하게 되는 모습을 보며 “주가 주신 복을 세어라”라는 말을 절로 하게 될 것입니다.

트로이 잭슨, 재런 호프, 앤드루 앨런. 이들은 영감 받은 감독님으로부터 워드 가족 역사반을 함께 가르치도록 부름 받은 아론 신권 소유자들입니다. 이 청년들은 열심히 배우고 봉사하고자 소망하는 여러분을 대표합니다.



트로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교회에 가서 앉아 있기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집에 가서 할 일이 생겼어요. 우리는 모두 가족 역사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재런은 가족 역사에 관해 더 많이 배우게 되면서 “이름들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실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을 성전에 제출하는 일이 점점 더 재미있어졌어요.”

앤드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역사를 사랑하는 마음과 열의가 생겼어요.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지요. 매주 가르칠 준비를 하면서 성령을 통해 공과에 나온 어떤 방법들을 시도해 보라는 느낌을 종종 받아요. 전에는 가족 역사 하면 그냥 두렵기만 했어요. 하지만 영의 도움으로 이 부름을 해낼 수 있었고 워드의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죠.”

사랑하는 청소년 형제 자매 여러분, 가족 역사는 단순히 교회가 주도하는 재미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과 승영을 위한 사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도록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광스러운 사업에 일조하기 위해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엘리야가 지상으로 다시 돌아와 성스러운 인봉 권세를 회복했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땅에서 매이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이 위대한 사업에서 자라나는 세대인 청소년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자녀

이생과 영원한 세상에서 자녀들은 우리에게 큰 축복과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 간증드립니다.

**아** 이의 눈 속을 들여다볼 때면 전세에서 우리 곁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딸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낳아 이런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에게 필멸의 육신을 제공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받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자녀에 관한 신념이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부는 지상에 자녀를 데려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중 일부를 성취하는 셈이 됩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멸하려면 그 전에 필멸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가족은 이 지상과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계획의 중심입니다. 경전에는 아담과 이브가 결혼하여 하나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sup>2</sup>라고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선지자와 사도들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한다.”<sup>3</sup>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이 계명을 잊거나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sup>4</sup> 우리는 커다란 신앙을 행사하여 기꺼이 자녀를 갖는 수많은 부부, 특히 아내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를 언제, 또 얼마나 가져야 할지는 부부가 주님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진지한 기도로 결정하고 큰 신앙으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여러 해 전, 칠십인 정원회의 제임스 오 메이슨 장로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섯째 아이가 태어난 일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갓 태어난 예쁜 여자 아기를 신생아실에서 보면서 ‘사내아이를 하나 더 갖게 될 것이니라.’라는 음성을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저는 곧바로 달려가 침대에 누워 기진맥진해 있는 아내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말했어야 하는데도 말이지요.”<sup>5</sup> 그래서 메이슨 부부는 해마다 일곱 번째 아이가 태어날 것을 고대했습니다. 삼 년, 사 년, 오 년, 육 년, 그리고 칠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팔 년이 지난 후에 일곱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지난 4월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표준과 사회에서 말하는 표준에 별반 차이가 없었으나

지금은 둘 사이에 큰 골이 생기고 그 틈은 계속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

인류의 구주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거하되 속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릇된 개념과 가르침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충실하여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sup>6</sup>

지금 세상에서는 자녀를 가져야 하는 중요성을 폄하하여 출산을 미루거나 제한하자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제 딸아이들은, (우리 회원은 아니지만) 다섯 자녀를 둔 어느 기독교인 어머니가 쓴 블로그를 소개해 주었는데,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어머니로서 성경에 입각하여 아이들을 키우기가 몹시 어렵다. .... 자녀보다는 대학과 세계 여행이 단연코 우선이며, 저녁에 나가서 여가를 즐기는 것이 더 중시된다. 헬스 클럽에서 몸매를 가꾸고, 원하는 직장을 얻는 것이 먼저다.” 그런 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되는 일은 취미가 아니라 소명이다. 자녀는 우표보다 귀여워서 수집하는 존재가 아니다. 시간을 낼 수 있을 경우에만 함께 무언가를 하는 존재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자녀를 낳아 기르라는 뜻에서이다.”<sup>7</sup>

어린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일곱 자녀를 데리고 버스를 타는 젊은 어머니에게 버스 기사가 묻습니다. “다 맥의 애들입니까? 아니면 단체 소풍을 가십니까?”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다 우리 애들이예요. 소풍이라니요!”<sup>8</sup>

세상은 점점 더 많이 “다 맥의 애들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가족을 위한 성스러운 터전을 만들고자 애쓰는 여러분께 감사를 포함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를 존중하고



돕습니다.

외로운 아버지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아내의 헤아릴 수 없는 은사에 감사해 합니다. 아마도 그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메이슨 장로님은 결혼한 지 몇 주 안 되어 가족에 대한 책임을 우선으로 삼게 해 준 다른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제가 의대를 졸업할 때까지는 아내가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한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자녀는 나중에 낳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부모님 댁에서 교회 잡지를 보다가]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이셨던 스펜서 더블유 김볼 장로님이 결혼과 관련된 책임을 강조하여 쓰신 말씀을 읽었는데, 김볼 장로님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일은 성스러운 책임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부모님 댁이 교회 본부 건물 [근처에] 있었기에, 저는 즉시 그 건물로 갔으며, 글을 읽은 지 30분쯤 후에 스펜서 더블유 김볼 장로님 책상 맞은편에 앉게 되었습니다.”(요즘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어야 해서, 자녀를 낳는 일을 늦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볼 장로님은 끝까지 들으시더니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메이슨 형제님, 주님은 형제님이 의사가 되기 위해 중요한 계명

하나를 깨뜨리기를 바라실까요? 주께서 도우시면 자녀도 낳고 의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신앙이 있으십니까?’”

메이슨 장로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일 년도 지나지 않아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열심히 일했고 주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메이슨 부부는 4년 뒤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아이를 두 명 더 낳았습니다.<sup>9</sup>

세상 어디나 지금은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재정적으로도 불확실합니다. 4월 연차 대회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와 가족을 재정적으로 부양하는 일이 염려된다면 저는 그 점에 대해 확신을 심어 주고 싶습니다. 검소하게 생활하고 저축하는 부부에게 부끄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서로 희생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배울 때, 대부분 두 사람은 한결 더 가까워집니다.”<sup>10</sup>

“그럴 만한 신앙이 있으니까?” 김볼 장로님의 예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경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첫 아이를 에덴동산 밖에서 낳았습니다. 동산을 떠난 뒤 “아담[과 이브는] …… 땅을 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를 아니,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과 딸들을 낳아주었고 그들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sup>11</sup>

리하이와 새라이아는 신앙을 행사하여, 금과 은과 귀한 것들이 있던 예루살렘 집이 아니라 광야에서 아들 야곱과 요셉을 낳았습니다. 리하이는 아들 야곱을 “광야에서 나의 환난의 날에 얻은 첫아들”<sup>12</sup>이라고 불렀으며, 요셉에게는 “너는 [우리의] 고난의 광야에서 태어났었나니, 참으로 [우리의] 가장 큰 슬픔의 날에 너의 모친이 너를 낳았느니라”<sup>13</sup>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신앙을 행사하여 사내아이를 낳은 부부가 나옵니다. 그 집 문 앞에는 탄생을 축하하는 어떤 표시도 걸어 두지 못했습니다. 갓 태어난 이스라엘인 사내아기는 모두 “강에 던지[라고]”<sup>14</sup> 바로가 명했기 때문에 부모는 아기를 숨겼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를 갈대 상자에 잘 넣어 강가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의 딸이 아기를 발견했고, 아기는 유모가 된 생모 손에서 자랐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 아이를 아들로 삼았으며 모세라 불렀습니다.

아기 탄생에 관해 가장 사랑받는 또 다른 이야기에는 잘 치장된 아기 방이나 값비싼 아기 침대가 아닌, 세상의 구주를 위한 말구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좋기도 하고…… 가장 힘들기도 했던 시기에도”<sup>15</sup>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은 신앙을 행사하여 “하나님께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필리핀 다바오

계명”<sup>16</sup>을 절대로 잊거나 저버리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얼마나, 또 언제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부부와 주님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이 일로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기회를 얻지 못한 의로운 여성에게는 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몹시 괴로울 수도 있는 민감한 주제일 것입니다. 고귀한 여성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와 소망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힘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사랑으로 팔을 벌려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에 얼마나 큰 감사를 느끼는지 모릅니다.

또한 결혼을 했으나 간절히 기다리던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부부나, 대가족을 계획했지만 그보다 적은 자녀만을 얻은 의로운 남편과 아내에게도 자녀를 낳는 일은 가슴이 미어지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필멸의 세상에서 생기는 어려움

중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매우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는데, 특히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과 똑같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저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생에서 영원한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충실한 회원은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지키면 약속된 모든 축복을 영원의 세계에서 받게 될 것”<sup>17</sup>이라는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페루 리마 서 선교부의 제이 스코트 도리우스 회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베키와 저는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지] 않고 25년을 지내왔습니다. 저희는 여러 번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저희를 소개할 때마다 뭔가 어색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와드 회원들은 왜 [자녀가]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저희도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감독으로 부름 받았을 때, 와드 회원들은 제가 자녀나 십대 청소년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걱정했습니다. 저는 지지를 해 준 와드 회원들께 감사를 표하면서 그들 자녀에게 제 양육법을 시험해 봐도 괜찮겠냐고 묻자 그들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저희는 기다렸고, 새로운 시각을 얻었으며, 또 인내심을 배웠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되던 해, 한 아이가 기적처럼 저희 가정에 왔습니다. 저희는 두 살된 니콜을 입양했고, 그 후 갓난아기인 니콜라이를 입양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손자손녀로 알고 예쁘다며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아이들입니다. 저희는 인생을 거꾸로 살고 있지요.’”<sup>18</sup>

형제 자매 여러분, 성스럽고 지극히 개인적인 책임인 이 문제로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 안으시며 ……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sup>19</sup>

우리 가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딸을 받아들이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음성에 경건하게 귀를 기울이며 겸손하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중심을 차지합니다. 이생과 영원한 세상에서 자녀들은 우리에게 큰 축복과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세서 1:39.
2. 창세기 1:28.
3.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4. 미국 인구 조사국에서 발표한 미국 연례 지역 사회 설문 조사에 따르면 “유타 주는 여전히 국내에서 가족 수가 가장 많고, 출산율이 가장 높으며, 전체 거주자의 중간 연령대가 가장 낮고, 결혼 연령이 가장 낮으며 엄마들 대부분은 가정에서만 지낸다.”고 한다. (“Who Are Utahns? Survey Shows We’re Highest, Lowest, Youngest,” *Salt Lake Tribune*, Sept. 22, 2011, A1, A8)
5. 제임스 오 메이슨 장로가 보낸 이메일, 2011년 6월 25일.
6. 토마스 에스 몬슨, “신권 권능”,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66~67쪽.
7. Rachel Jankovic, “Motherhood Is a Calling(and Where Your Children Rank)”, 2011년 7월 14일, *desiringgod.org*.
8. “Jokes and Funny Stories about Children,” *thejokes.co.uk/jokes-about-children.php* 참조.
9. 제임스 오 메이슨 장로가 보낸 이메일, 2011년 6월 29일.
10. 토마스 에스 몬슨,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67쪽.
11. 모세서 5:1, 2.
12. 니파이후서 2:1.
13. 니파이후서 3:1.
14. 출애굽기 1:22.
15. Charles Dickens, *A Tale of Two Cities*(Signet Classic, 1997), 13.
16.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17.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1.3.3.
18. 제이 스코트 도리우스 회장에게서 받은 이메일, 2011년 8월 28일.
19. 마가복음 9:36~37.



이안 에스 아던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준비할 시간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의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8장은 현명한 시간 사용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이 장에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숙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2004], 146쪽 참조)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숙달한다는 것에는 시간 관리에 능숙해지는 것이 포함됩니다.

저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보여 주시는 모범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몬슨 회장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해야 하는 모든 일을 하시고도 구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픈 사람을 찾아가고(누가복음 17:12~14 참조), 심령이 가난한 자를 북돋아 주며, 모든 사람에게 봉사할 시간을 충분히 내십니다. 또한 이웃에게 봉사할 시간을 내는 다른 많은 분들의 모범에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시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런 분을 위해 구주께서는 “현세에서 충실하고 지혜로운 자는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처를 상속하기에 합당하다 여겨지느니라.”(교리와 성약 72:4)라고 하신 말씀을 충실히 지키실 것입니다.

시간은 사고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시간은 어떤 가격에서도, 어떤 가격으로도 살 수

없는 일용품입니다. 그러나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그 속에 있습니다. 어떤 날이라도 우리 모두는 동일한 시간과 순간들이 무상으로 주어지며, 친숙한 찬송가에 나오듯이 “시간은 번개처럼 날아 사라진다!” (“촌음을 아껴 쓰고”, 찬송가 147장)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브리검 영 회장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간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 사용에 대해 명백하게 보고하도록 요구하실 것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1997], 286쪽)

우리는 필요 사항에 따라 우리 목표에 해당되는 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미루는 버릇이 생겨 시간을 낭비하는 활동을 하는 데 시간을 써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관해 주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산상수훈에서 “그런즉 너희는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의 의를 세우기를 구하라.”(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마태복음 6:3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델린 에이치 옥스, “초점과 우선순위”,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99~102쪽 참조)

엘마는 “이 생은 시험의 상태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시간”(엘마서



12:24)이라고 가르치면서 우선순위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기회로 잘 활용하려면 인도도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은 바로 주님과 가족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디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가족 관계에서 사랑은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표현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21쪽)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구한다면 시간을 가치 있는 일에 먼저 사용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간중드립니다.

시간을 무가치하게 사용하는 것은 게임의 사촌에 가깝습니다. “케르크기를 그치라”(교리와 성약 88:124)라는 계명을 따를 때 우리는 또한 바쁜 것이 동시에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 끝으로 자유롭게 즉석 대화를 할 수 있는 통신기기가 있다는 것은 훌륭하지만, 손가락 끝으로 통신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저는 일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새로운 형태의 중독에 사로잡힌 것을 봅니다. 그런 중독에 빠지면 끊임없이 메시지를 확인하고 보내면서 바쁘고 생산적인 것에 대한 잘못된 느낌을 갖게 됩니다.

통신과 정보를 쉽게 이용하며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저는 연구 자료, 대회 말씀, 조상 기록에 접속하고 이메일,

페이스북 알림 메일, 트위터, 문자 메시지가 어떤 면에서 유용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제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복잡한 컴퓨터와 휴대전화 때문에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지하게 드리는 단순한 기도를 멀리하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속도만큼 무릎을 꿇는 일도 기꺼이 합시다.

전자 게임과 사이버 교제가, 우리를 보듬어 안으며 격려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일을 추구하는 진정한 친구를 지속적으로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정원희, 반, 상호부조회 회원들이 서로를 돕기 위해 함께 모이는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에서 저는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에베소서 2:19)라고 한 말의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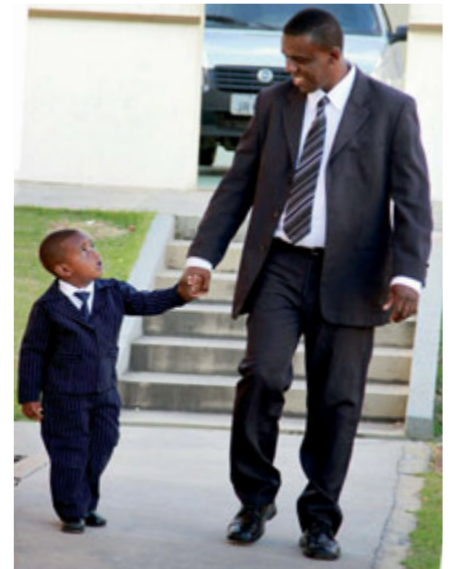
저는 가장 커다란 행복은 아무 생각 없이 수많은 시간을 온라인 소셜 미디어와 비디오 게임에 쏟을 때가 아니라, 주께 주파수를 맞추고(앨마서 37:37 참조) 영구적인 보상을 안겨 주는 일에 집중할 때 온다는 것을 압니다.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것들의 유혹을 극복하고, 그것에 중독되어 지배당하는 대신, 스스로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겠다고 결심하기를

촉구합니다.

구주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을 얻으려면(요한복음 14:27 참조)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진지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매일 경전을 읽고 공부하고, 읽고 느낀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한 후 그 교훈을 적용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책에서 부지런히 구할 때 “자기 성령으로써 ……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교리와 성약 121:26; 또한 교리와 성약 109:14~15 참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위장하여 시간을 잘못 사용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쿠엔틴 엘 쿡 장로님은 유혹이 올지라도 “구주의 메시지를 따르는 성도는 혼란스럽고 파괴적인 활동에 의해 빛나가지 않도록 인도될 것”(“당신은 성도입니까”,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96쪽)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물론경의 여덟 증인 중 한 사람인 하이럼 페이지를 통해 정신이 산만해지는 것에 관한

#### 브라질 살바도르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돌을 통해 교회를 위한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교리와 성약 28편 참조) 하이럼에 대한 징계가 있는 후, 한 기록에 따르면 다시는 주의를 산만케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돌은 가루로 뺏아졌다고 합니다.<sup>1</sup> 비유적으로, 가루로 뺏아 버려야 할 필요가 있는, 우리 삶에서 시간을 낭비하도록 우리의 주의를 빼앗는 것들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사용이 주님, 가족, 일, 건전한 오락 활동을 포함한 일들에서 올바르게 균형이 잡혀 있는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듯이 시간을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은 듣기 좋거나 혹은 칭찬할 만한”(신앙개조 제13조) 것들에 쏟을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간은 매우 빠르게 지나갑니다. 필멸의 삶이라는 시계가 똑딱거리는 동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에는 오늘이 딱 좋을 때입니다. 필멸의 삶 동안 불멸과 영생을 준비할 시간을 내는 사람들은 큰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Provo Utah Central Stake general minutes, Apr. 6, 1856, vol. 10(1855-60),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273 참조: “부친인 [이메] 해리스는 그 사도의 말을 빌어 우리가 높은 곳에 있는 세력과 지배력에 대항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럼 페이시 형제는 땅에서 검정색 돌을 파내어 호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와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마치 종이에 쓰인 것처럼 문장 하나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한 문장을 종이에 옮겨 쓰자마자 다른 문장이 돌에 나타났으며, 그렇게 하여 모두 16쪽이나 되는 분량을 적게 되었습니다. 조셉 형제는 그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조셉에게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조셉은 모른다고 말한 후 기도를 하여 그 돌이 악마에게서 나왔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고 종이에 쓰인 글을 불태웠습니다. 그것은 어둠의 세력이 한 일이었습니다. 아멘.”



칼 비 쿡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위를 바라보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몬슨 회장님처럼 신앙을 행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한다면 삶의 무게로 짓눌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총** 관리 역원으로서 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일 다 되어갈 즈음, 몹시도 피곤한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상념에 잠긴 채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칠십인 정원회 사무실을 나와 교회 행정 건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누군가 탔지만 제 시선은 여전히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닫혔는데,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내려다 보고 계십니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그 현명한 대답이 제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 넣었다고 확신합니다!)

몬슨 회장님은 저의 경직된 표정과 무거운 서류 가방을 보셨습니다. 회장님은 빙그레 웃으며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서는 다정하게 제안하셨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것이 낫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한 층을 더 내려갔고, 몬슨 회장님은 쾌활한 목소리로 성전에 가시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사를 하시며 잠시 저를 바라보셨는데, 그

눈길이 다시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위를 바라보는 것이 낫습니다.”

회장님과 헤어지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가 계신 것[을] …… 믿으라.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와 모든 권능을 가지셨음을 믿으라.”<sup>1</sup>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해 생각하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바닥에서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한 위안을 마음속에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일과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부담감으로 마음이 무거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말을 걸었고, 그분을 바라보자 선지자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에 저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치유되고 강화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선지자가 우리를 위해 하는 일입니다. 선지자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끕니다.<sup>2</sup>

몬슨 회장님이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일 뿐 아니라 위를 바라보라는 원칙에 따라 사는 훌륭한 모범이 되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회장님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맡은 책임으로 중압감을 느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히려 큰

신앙을 발휘하고 낙관과 지혜,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십니다. “할 수 있다.”와 “할 것이다.”라는 태도를 취하십니다. 몬슨 회장은님은 구주를 신뢰하고, 힘을 받고자 의지하며, 주님은 그분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몬슨 회장님처럼 신앙을 행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한다면 삶의 무게로 짓눌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겪으며 배웠습니다. 부름 받은 일, 혹은 해야 할 일이 불가능하게 느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강인해지고, 삶은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sup>3</sup> 걱정하는 일 대부분이 영원토록 중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주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위를 바라볼 신앙과 그분의 지시를 따를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살아가면서 한결같이 위를 바라보는 일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렇게 간단한 행위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지 못해서일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자녀들이 독 있는 불뿔에게 물렸을 때, 모세는 장대 위에 놋뿔을 달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놋뿔은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그때 선지자의 권고에 따라 놋뿔을 바라본 사람들은 나았습니다.<sup>4</sup>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아서 죽고 말았습니다.<sup>5</sup>

엘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놋뿔을 바라보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 하면 나을 것이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마가 한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낫도록 너희 눈길을 던지지만 함으로써 너희가 나을 수 있다면, 너희가 속히 바라보지 않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보다는 믿지 않음 가운데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게임을 피[우겠느냐?] ……

만일 그렇다면 화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희 눈길을 던져 하나님의 이들을 믿되, 곧 그가 자기 백성을 구속하려 오실 것과 또 그가 그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과 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실 것을 믿기 시작할지니”<sup>6</sup>

위를 바라보라는 몬슨 회장님의 격려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권능을 신뢰한다면 구주의 속죄를 통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불안과 부담, 고통에서 벗어나고 용서를 받으며 죄의 고통에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건널 신앙과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sup>7</sup>

최근에 쿡 자매와 저는 남아프리카에서 한 여성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속죄를 삶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영감 어린 말씀을 들은 후,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님이 모두 다 밖으로 나가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헬륨으로 채운 풍선을 받았습니다. 상호부조회 회장님은 풍선이 생활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는 부담이나 시련, 역경 등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셋을 쉰 후 풍선을, 아니 우리 마음 속 ‘짐’을 날려 보냈습니다. 우리의 짐이 두둥실 날아가는 광경을 올려다 보는데, 누군가 “아아.” 하고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풍선을 날려 보낸 그 단순한 행위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할 때 오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헬륨 풍선을 날려 보내는 것과는 달리 영적으로 올려다보는 행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찬 기도를 통해 언제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하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매일 함께하여 우리를 이끌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sup>8</sup>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인도를 구하면 주께서 매일 나아갈 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셨느니라”<sup>9</sup> 그분의 인도는 한결같았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똑같이 해 주실 수 있다는 저의 간증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주님은 오늘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분은 선지자, 사도, 신권 지도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기도할 때 보내 주시는 그 느낌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변화할 때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계명을 지키고 그분처럼 되고자 노력할 때 우리를 이끄십니다. 또한 성신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sup>10</sup>

인생 여로를 걸어가는 동안 인도를 받고 성신과 계속 함께하려면 반드시 하늘을 향한 “듣는 귀”와 “보는 눈”<sup>11</sup>이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지침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위를 바라보고 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활기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함께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십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눈물을 닦아 주시며, 그분께 돌아가는 길을 걸을 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는 나의 빛 늘 함께 하니  
왜 두려워하리 죄와 슬픔에서 .....  
나의 기쁨 내 노래  
낮과 밤에도 나를 인도하시네<sup>12</sup>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죄를 용서받고 짐이 가벼워지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그를 기억하며 ..... 우리의 고개를 높여드리지 [않도록 합시다.]”<sup>13</sup> 문슨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를 바라보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가 우리 구주이며 구속주임을 간증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사이야서 4:9.
2. 니파이후서 25:23, 26 참조.
3. 모사이야서 24:15 참조.
4. 민수기 21:8~9 참조.
5. 니파이전서 17:41 참조.
6. 엘마서 33:21~22; 또한 19~20절 참조.
7. 엘마서 36:3, 17~21; 제3니파이 9:13 참조.
8. 교리와 성약 20:77 참조.
9. 출애굽기 13:21.
10. 니파이후서 9:52, 31:13, 교리와 성약 121:46 참조.
11. 잠언 20:12.
12. “주는 나의 빛”, 찬송가, 48장.
13. 니파이후서 10:20.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장로  
칠십인 정원회

# 구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삶을 변화시키고 구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을 통해 속죄에 관한 주님의 사명을 여러 측면에서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구주’라는 칭호를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한 번쯤 구조된 적이 있기 때문에 구원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합니다. 저는 어린 아이였을 때 강에서 누이와 함께 작은 보트를 타고 놀다가 어리석게도 안전한 장소에서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물살에 밀려 어떤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는 하류로 떠내려 가는데, 다급한 울음 소리에 아버지께서 달려오셔서 저희를 구해주셨습니다.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면, 저는 그 일이 생각납니다.

‘구속주(Redeemer)’란 칭호에서도 비슷한 면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구속하다(redeem)’란 단어는 사는 것, 또는 소유권을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법률에 따라 우리는 재산이나 소유물을 그것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빚을 상환하여 소유권을 되찾습니다. 모세 율법을 따르던 구약 시대에는 돈을 지불하여 종을 자유롭게 해 주거나 재산을 되찾았습니다.(레위기 25:31 참조)

경전에서 구속하다라는 단어가 두드러지게 사용된 곳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출해낸 부분입니다. 모세는 애굽을 벗어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redeemed)”(신명기 7:8)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에서 구속해내신(redeeming) 여호와라는 이 주제는 경전 여러 부분에서 반복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주된 이유는 애굽인에게서 이스라엘 자녀를 구해내신 그분의 선하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한 또 다른, 더 중요한 구속이 있을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리하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메시아는 사람의 자녀들을 타락에서 구속하시고자 때가 잘 때 오시느니라.”(니파이후서 2:26)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도다(redeem)”(시편 49:15)

주님은 이사를야를 통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뺏직한 구름 같이, 네 죄를 안개 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이사야 44:22)

이 세 경전 구절에서 언급된 구속(redemption)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말합니다. 이



속죄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속량(redemption)”(시편 130:7)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른 속량(redemption)이나 현대 법률에서 말하는 상환(redemption)과는 다르게 이 구속(redemption)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베드로전서 1:18)으로 성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redemption)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에베소서 1:7) 존 테일러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구속주의 희생으로] 빛이 청산되었고, 구속이 이루어졌으며, 성약이 성취되고, 공의가 충족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모든 권능이 하나님 아들의 손에 주어졌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2001], 43쪽)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육체적 사망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즉, 현세적 사망을 극복하고 모두가 부활할 것입니다. 또한 구속으로 영적 사망에서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으며, 각 사람의 회개를 그 조건으로 세우셨습니다.

구속주께서 죄값을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로마서 3:23) 의의 길에서 멀리 벗어나버린 이들에게는 구속이 절실히 필요하며, 온전히 회개하기만 한다면 구속을 요청할 권리를 얻습니다. 물론 선한 삶을 살고자 분투하는 사람에게도 구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아버지 면전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구속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삶에 공의의 법과 자비의 법 모두를 성취시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완전하시어서  
공의 사랑 자비 모두  
조화 이루셨네”  
(“하나님 지혜와 사랑”, 찬송가 107장)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구속주이자 중재자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공의의 요구를 가라앉히고 누우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의도와 능력이 모두 있습니다.”(“중재자”,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55쪽)

경전이나 문헌, 사람들의 일화 속에는 그런 구속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삶을 변화시키고 구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구속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사랑합니다.

청소년 시절, 저에게는 교회 가르침을 따르지 않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청년이 되자 친구는 복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회개했고, 삶을 바꾸었으며, 의롭게 생활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그 친구를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친구의 눈은 복음에서 얻은 광채로 밝게 빛났고, 저는 친구가 복음대로 온전히 살고자 노력하는 충실한 교회 회원임을 감지했습니다. 그 친구의 일화는 구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매우 심각한 죄를 범하고 가책을 느껴온 한 여성과 침례 접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죄를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지 물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눈빛과 목소리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절대로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침례를 받고 싶어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제

자신에게서 그 끔찍한 죄의 결과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 역시 구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몇 년간 스테이크 대회와 여러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저는 저활동 회원을 구조하라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요청을 기억했습니다. 한 스테이크 대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활동이 저조한 어느 회원이 집으로 찾아온 감독과 몇몇 지도자들에게서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말을 들었으며, 와드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뒤에 활동적인 회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그 회원은 부름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삶과 습관을 바꾸고 충실한 활동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청중 중에는 제 친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며 친구의 낯빛이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그 친구에게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 반응을 보인 이유가 제 이야기와 자기 장인 어른의 사례가 매우 비슷했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의 장인 어른도 집으로 찾아온 감독님에게서 교회에서 봉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자기 삶과 간증을 되돌아 보게 되었으며,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활동화된 그분에게는 88명이나 되는 후손이 있는데, 모두가 지금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며칠 후, 다른 모임에서 저는 그 두 이야기를 모두 전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이렇게 시작하는 이메일을 또 받았습니다. “제 아버지의 이야기도 그와 비슷합니다.” 한 스테이크 회장님이 보낸 그 메일에는 활동 회원도 아닌 테다가 몇 가지 습관을 바꿔야 했던 아버지가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권유를 받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 과정에서



회개했으며, 후에 스테이크 회장으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고, 후손들이 교회에서 충실한 회원으로 지내게 하는 기초를 놓았습니다

몇 주 후에 저는 또 다른 스테이크 대회에서 그 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모임 후에 저를 찾아온 한 남성은 그것은 자기 아버지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남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교회에서 활동 회원이 되기까지 일어났던 사건들을 들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저활동 회원들을 구조하라는 부름을 기억하자 교회로 돌아와 삶을 바꾸라는 초대에 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비록 구속주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값을 되갚지는 못할지라도 구속의 계획이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였던 올슨 에프 휘트니 장로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영혼 구한 구세주  
나를 온전케 하셨네  
큰힘으로 세우시고  
쓴 잔을 달게 채웠네  
어떻게 감사드리랴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무런 공로 없으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생명의 말씀 없으면  
기쁨과 소망 어디 있나  
주님의 뜻 언행으로  
내 일생 전하렵니다”  
 (“내 영혼 구한 구세주”, 찬송가 64장)

그리스도의 속죄의 힘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회개하고 그분께 온다면 영생이라는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만의 구속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회개는 신성한 은사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따른 은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몰** 문경에 니허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몰몬은 천 년에 걸친 니파이인의 기록을 요약하면서 니허와 그의 교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포함시켰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몰몬은 그러한 철학이 이 시대에도 다시 대두될 것임을 알았기에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니허는 그리스도 탄생 90여 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모든 인류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 ……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또한 모든 사람을 구속하셨으므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임이라”(앨마서 1:4)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로부터 약 15년 후에는 코리호어가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 니허의 교리를 전파하고 확산시켰습니다. 몰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적 그리스도라,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 예언들을 거스려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였음이라.”(앨마서 30:6) 코리호어는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속죄란 있을 수 없으며, 각 사람은 피조물의 경영을 좇아 이 생을 살아가는 것이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재능대로 변영하며, 각 사람은 자기의 힘대로 정복하며,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범죄가 아니라”(앨마서 30:17)라는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그 추종자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해야 할 것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앨마서 15:15)

니허와 코리호어 시대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강림이 그리 멀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회개하라는 가르침이 종종 환영받지 못한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앨마서 18:5 참조) 어떤 이들은 사랑의 하나님은 단순히 고백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거나,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매로 몇 번 치실 것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으리라”(니파이후서 28:8)라고 주장합니다. 코리호어처럼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그렇게 부인하는 행위가 죄라는 것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가치와 표준, 심지어는 진리마저도 모두 상대적이라 여기는 것이 그들의 교리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무엇이든 옳다고 여기는 일들은

다른 사람들도 그것들을 잘못이나 죄라고 판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한 철학은 결과에 관계없이 어떠한 욕구나 욕망에 탐닉해도 된다는 허가증이 되므로 얼핏 보면 매력 있어 보입니다. 니허와 코리호어의 가르침을 이용하면 어떤 것이든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회개를 외친다 해도 ‘잔칫상에 찬물을 끼얹는’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지자들이 외치는 음성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생에 회개가 없다면 진정한 발전이나 개선도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죄에 따른 짐과 고통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더 좋은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이라는 찬란한 고지로 우리를 이끄는 것은 오직 회개뿐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따른 은혜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회개는 신성한 은사입니다. 우리는 웃는 얼굴로 회개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자유와 확신, 평안으로 이끕니다. 회개라는 은사는 축하연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진정한 축하를 받게 하는 원천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치르신 무한한 희생은 “사람들에게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갖도록 방편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앨마서 34:15) 회개는 필수 조건이며, “자비가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킬”(앨마서 34:16) 힘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 옵니다. 우리는 다음 내용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의롭게 됨이 [즉, 죄를 용서받는 것이] 공의로우며 참된 줄 아노라.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성결하게 [즉, 죄의 결과로부터 정결하게] 됨은 자신의 모든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자에게 공의로우며 참된 줄 아노라.”(교리와 성약 20:30~31)

회개는 광범위한 주제이지만 오늘 저는 이 기본적인 복음 원리에 관하여 다섯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회개하라는 권유는 사랑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구주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태복음 4:17)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그분과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이 세상에서는 영생의 말씀을,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 [그 자체를] 누리[자]”(모세서 6:59)는 권유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거나, 다른 이에게 변화하라고 권유하지 않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실천해야 할 기본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방관하는 부모, 죄를 눈감아 주는 친구, 충고하기를 두려워하는 교회 지도자는 그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의 복지와 행복보다 자기 자신을 더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라는 외침은 때때로 너무 엄격하고 모욕감을 주며 심지어는 화를 내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성신의 인도를 받은 경우라면 그것은 진정한 보살핌입니다.(교리와 성약 121:43~44 참조)

둘째, 회개는 변화하고자 분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노력도 안 하면서 구주께서 우리를 천사와 같은 존재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겻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분의 고통을 조롱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진정 부지런히 노력을 쏟은 다음에 그 수고를 보완하고 보상을 주시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니파이후서 25:23



참조) 자비를 구하려 하는 만큼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며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시간과 기회를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합당하게 심판대에 서려는 이들과 연약함을 강점으로 바꾸기 위해 매일 결연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틀림없이 축복하십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변화를 이루려면 끊임없는 시도가 필요하겠지만, 그 과정에는 분명히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러한 영혼에는 하늘에서 오는 용서와 치유가 참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듭니다. 실제로 “덕은 덕을 사랑하며, 빛은 빛과 결합하며, 자비는 자비를 측은히 여기어 자신의 것을 주장[하기]”(교리와 성약 88:40)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해의 왕국의 율법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역량을 꾸준히 키워 나가게 됩니다. “해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해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음[을]”(교리와 성약 88:22) 알기 때문입니다.

셋째, 회개는 죄를 버릴 뿐만 아니라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문 성경사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회개란 천성적으로 범하기 쉬운 죄를

버리는 것[과 더불어]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경에서 우리는 회개에 관한 여러 가르침을 볼 수 있는데, 엘마가 아들에게 전한 다음 말씀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네게 명하노니 너는 네 죄악을 삼가라.

네 생각과 능력과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이키라.”(엘마서 39:12~13; 또한 모사이야서 7:33; 제3니파이 20:26; 물문서 9:6)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성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분께로 완전히 향하는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성약은 물에서 침례를 받는 행위로 표현되기 때문에 종종 침례 성약이라 일컬어집니다.(모사이야서 18:10 참조)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 침례를 받으셨는데, 또한 이것으로써 아버지께 순종하겠다는 그분의 성약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따라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며, 그에게 순종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아버지께 증거함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보이시니라.”(니파이후서 31:7) 이런 성약을 맺지 않는다면 회개는 불완전하여



죄를 용서받지 못하게 됩니다.<sup>2</sup> 노엘 레이놀즈 교수는 다음과 같이 길이 기억될 만한 표현을 남겼습니다. “회개하겠다는 선택은 오직 한 방향, 즉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 한 길만을 영원히 따르겠다고 결심했기에 다른 곳으로 향하는 다리는 모두 불태우겠다는 뜻이다.”<sup>3</sup>

넷째, 회개를 하려면 진정한 의도, 그리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기꺼이 인내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회개 단계를 목록으로 만들어 보면 다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것도 느끼거나 변화시키지도 못한 채 기계적으로 각 단계에 표시만 하고 회개의 과정이 끝나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엇보다 중요한 다음 두 가지 회개 요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교리와 성약 58:43)

회개에는 죄를 고백하고 버려야 한다는 강력한 개념이 포함됩니다. 간편하게 “내 잘못을 인정한다. 미안해.” 하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고 잘못된 일을 깊이, 때로는 고통스럽게 인정해야 합니다. 고백을 할 때에는 종종 슬퍼하거나 후회하며, 쓰러진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특히 자신이 한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았거나, 심하게는, 죄에 빠지게 되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여, 쓰디쓴 담즙에 빠져 있고, 사망의 영원한 사슬에 둘러싸여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앨마서 36:18) 이렇게 앨마가 울부짖은 것처럼

자신이 처한 상태를 똑바로 인식하고 빠져리게 고통스러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구속주와 그분의 권능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절망은 희망으로 바뀝니다. 성품과 소망이 바뀌며, 한때 죄에 끌리던 마음은 이제 점점 그런 죄를 혐오하게 됩니다. 죄를 버리고, 자신 때문에 손해 입은 상태를 가능한 한 원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결심이 그 변화된 마음에 대신 자리잡습니다. 이런 결심은 곧 무르익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성약으로 이어집니다. 성약을 맺고 나면 신성한 은혜의 사자인 성신이 위안과 용서를 선사해 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금 앨마처럼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오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기이한 빛을 내가 보았던고! 참으로 내 영혼은 내 고통만큼이나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찼느니라!”(앨마서 36:20)

회개에 뒤따르는 괴로움은 회개하지 않아서 공의에 따라 겪게 될 고통에 비하면 훨씬 가볍습니다. 구주는 공의를 이루고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얼마만큼 고통을 겪으셨는지 많은 말씀은 안 하셨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은 알려 주셨습니다.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나처럼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니,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여-내가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게] ……

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19:16~18)

다섯째, 회개할 때 치르는 대가는 그것이 무엇이든 용서가 낳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님은 연차 대회에서 “용서의 밝은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며 다음 비유를 드셨습니다.

“1847년 4월, 브리검 영은 윈터쿼터스에서 첫 번째 개척자 일행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바로 같은 시각에 서쪽으로 1,600마일[2,57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도너의 일행인 애처로운 생존자들이 길을 잃고 네바다 시에라 산맥 비탈을 따라 세크라멘토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산 정상에도 이르지 못한 채 눈 더미에 갇혀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몇 날, 몇 주, 몇 달 동안 굶주림과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서 생존하는 것은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열다섯 살인 존 브린이 있었습니다. 4월 24일 밤, 그는 존슨 씨 목장에 들어갔습니다. 몇 해 후, 존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존슨 씨 목장에 당도한 것은 밤이 깊어진 지 오래였으므로, 이른 아침에서야 그곳을 보았다. 날씨는 좋았고, 땅엔 파란 잔디가 덮여 있었으며, 새들이 나무 꼭대기에서 노래하고 있었다. 여행은 끝났다.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날 아침에 본 장면은 마음속에 영원한 그림으로 남아 있는 것 같다. 당시 일들은 거의 잊어버렸지만, 존슨 씨 목장 근처 야영지는 항상 마음속에 남아 있다.”

팩커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당시 일들은 거의 잊어버렸다.’는 그의 말에 매우 당황하셨습니다. 그 여러 달 동안의 끔찍한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던 말인가? 그 혹독하고 암울한 겨울이 어떻게 찬란한 아침으로 바뀔 수 있던 말인가?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좀 더 생각한 이후, 저는 그것이 전혀 당황할 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죄의식과 영적인 굶주림으로 오랜 겨울을 보내고 용서의 아침에 들어선 사람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아침이 왔을 때, 그들은 다음 말씀의 뜻을 알았습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8:42]<sup>4</sup>

주님의 무한한 고통과 사망, 부활이 “회개의 조건을 이루게”(힐라맨서 14:18) 한다는 것을 간증드리며, 또한 그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회개라는 신성한 은사는 현세와 내세에서 행복에 이르는 관문입니다.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을 담아 모든 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권고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태복음 4:17) 이 권고를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은 현세뿐 아니라 영원히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Bible Dictionary, "Repentance."
2. 몰몬경에는 “회개에 이르는 침례”(모사이야서 26:22; 엘머서 5:62; 6:2; 7:14; 8:10; 9:27; 48:19; 49:30; 힐라맨서 3:24; 5:17, 19; 제3니파이 1:23; 7:24~26; 모로나이서 8:11 참조)를 받는다는 말이 반복하여 나온다. 침례 요한도 같은 말을 했으며(마태복음 3:11 참조) 바울은 “회개의 침례”(사도행전 19:4)라는 말을 언급했다. 이런 문구는 교리와 성약 에도 나온다.(교리와 성약 35:5; 107:20 참조) “회개의 침례, 또는 회개에 이르는 침례”는 단지 순종을 성약하는 침례가 회개의 절정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침례와 더불어 완전히 회개할 때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며, 성신을 통해 영의 침례(요한복음 3:5 참조)와 죄에 대한 용서를 받게 된다. “이는 너희가 들어가야 할 문이 회개와 물의 침례요, 그 후에 불과 성신에 의하여 너희의 죄 사함이 임함이라.”(니파이후서 31:17)
3. Noel B. Reynolds, "The True Points of My Doctrine," *Journal of Book of Mormon Studies*, vol. 5, no. 2 (fall 1996): 35; emphasis added.
4. Boyd K. Packer, Conference Report, Oct. 1995, 21; 또한 보이드 케이 팩커, “용서의 밝은 아침”,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18쪽 참조.

#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믿음과 느낌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신다면 사랑과 용기가 늘 함께할 것[입니다.]

몬슨 회장님, 일부 새로운 성전 발표 소식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 와이오밍 주에 있는 저의 여러 친척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새로운 성전이 완공되면 어떤 행사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 꽤 보편화된 전통이 되었습니다. 바로 성전 일반 공개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헌납하기 바로 전 몇 주 동안 문을 열고, 지방 정부와 종교 지도자, 현지 교회 회원들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새로 건축한 성전을 둘러볼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우리 교회를 잘 모르는 이들이 교회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새로운 성전을 방문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성전 안팎의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곳곳에 보이는 건축 솜씨와 섬세함에 감동합니다. 그뿐 아니라 방문자 중 상당수는 아직 헌납되지 않은 성전을 안내받는 동안 무언가 독특하고도 특별한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방문객 대부분이 그런 감명을 받지만 가장 공통되게 돌아오는 반응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탄복하는 부분은 바로 성전 일반 공개에서 마주치는 교회 회원들입니다. 방문객들은 자신들을

맞이하는 후기 성도들을 보면서 영원히 잊지 못할 감동을 받습니다.

교회는 전 세계에 걸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들은 매일 교회의 여러 활동을 보도하고 기사를 냅니다. 저명한 미국 내 뉴스 매체 중 상당수가 교회와 교회 회원들에 관해 정기적으로 토론을 벌입니다. 이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정보 공유 방법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인터넷에서도 교회는 주목을 받습니다. 인터넷이나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교회와 교회 가르침에 대한 토론이 매 시간 전 세계에 걸쳐 계속됩니다.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해 본 적이 없는 일반인들입니다. 동영상들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들은 교회 회원이건 아니건 간에 모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몰몬’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주의를 끌게 된 것은 의사소통 방법에 일어난 변화 덕택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교회가 언제나 성장과 전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웃이나 친구뿐만 아니라 정부나 기업, 연예계, 교육계, 기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사들 중에도 교회 회원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이를 깨닫고서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궁금해합니다.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후기 성도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전보다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와 관련하여 미심쩍은 이야기를 듣고 난 뒤, 그 출처나 타당성은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잘못된 고정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교회가 어떤지 또 교회가 무엇을 옹호하는지에 관한 유언비어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일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 시대 이래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세간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 사실을 …… 알리기 위해”(조셉 스미스-역사 1:1) 자신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 가르침을 고의로 잘못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 있을 것이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단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이같이 편견 없이 다가오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순수한 호기심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널리 알려지고 명성을 얻게

되면서 교회 회원들은 일부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세간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사실과 다르게 묘사되는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려 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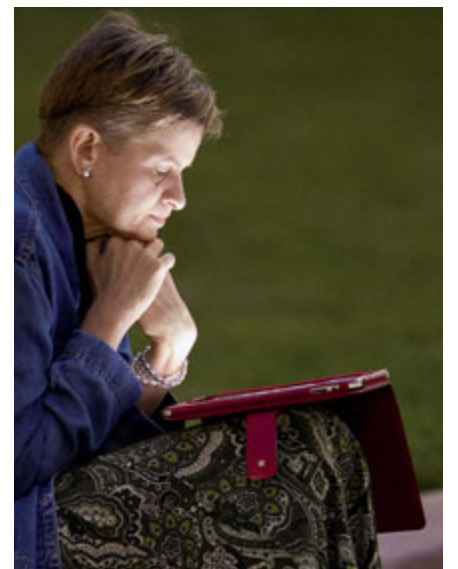
교회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습니다. 성전 일반 공개 때와 같은 마음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친구와 이웃들은 우리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의심은 연기처럼 흩어지고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사라지며 교회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몇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할 때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비롯하여 우리가 거룩한 경전으로 여기는 책들은 주님의 삶과 가르침이 그 핵심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의 지상 성역을 준비하는 기록이며, 신약에는 구주의 성역이 담겨 있습니다. 몰몬경은 주님의 성역에 대한 두 번째 증거입니다. 주님은 온 인류의 삶에 토대가 되는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지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그분과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다음 생명을 내주시고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늘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의 구주이자 주님, 선생님이로 받아들이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생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궁극적인 만족과 소망 그리고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 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는 몰몬경에서 이렇게 힘주어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니파이후서 31:20)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모든 면에서 인도하십니다. 필멸의 삶에서 열심히 일한다면 시련 속에서도 힘을 얻고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은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둘째, 사람들에게 의로운 모범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전한 다음에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나오는 권고와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구주께서는 신앙으로 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16)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자 노력하며 선과 덕성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는 선한 행동은 구주와 교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입니다. 고결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선을 힘써 행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삶에 투영될 것입니다.

그 다음 방법은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많습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가 종교적 신념에 관해 묻는다면, 이는 곧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믿는가를 알려



달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를 더 깊이 알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런 질문에 흔쾌히 답해 주십시오. 그런 친구와 동료들은 설교나 전도, 장황한 설명이나 끈질긴 권고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종교적 신념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들의 종교적 신념도 물어보십시오.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관심도를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을 많이 해 오면 사려 깊게 답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질문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어떤 회원들은 자신이 교회 회원이라는 것을 감추고 싶어 하는 듯 보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교에 관해 대화하기에는 장소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하거나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을 받을까 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이유라면 조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이 한 이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요한1서 4:18)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면 두려움을 이겨 낼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교회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개설한 교회 웹사이트

www.mormon.org를 최근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회원들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나누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온라인으로 신상명세서를 만들어 자신을 소개하고 종교적 신념이 자신에게 왜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 입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런 대화를 존중해야 합니다. 어떤 반응이 돌아오든지 말투나 문장이 공손하고 정중해야 합니다. 정직하며 개방되고 투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논쟁을 하거나 방어적이 되기도 원치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베드로전서 1:15)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연령에 관계 없이 회원들은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종교적 신념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교회에 관해 진행되는 대화를 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일은 다른 일들과는 다릅니다. 이 정보화 시대에서도 가장 귀중한 정보는 복음입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는 의심할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값진 진주이기 때문입니다.(마태복음 13:46 참조)

교회에 관해 이야기할 때에는 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꾸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정직하고 솔직하면 됩니다. 대화 창구가 열리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메시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경험하는 것과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보는 것 사이에는 인식 차이가 매우 클 때도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헌납하기 전에 성전 일반 공개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성전 일반 공개 때 자원 봉사자로 수고하는 회원들은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안에서 보듯이 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이분들은 교회가 기이하고도 가장 기이한 일을 이룩하고 있음을 알기에 다른 이에게도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믿음과 느낌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신다면 사랑과 용기가 늘 함께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요한1서 4:18)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과 나눌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 싸움 끝나는 날까지

저는 나이에 관계 없이 모든 신권 형제 …… 에게 더 강하고 더 헌신적인 목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선을 위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목소리를 내도록 요청합니다.

**형** 제 여러분, 가슴을 울리는 찬송가와 리차드 지 힝클리 장로님의 감동적인 개회 기도에 담긴 영을 되새기면서 저는 오늘 밤 마음을 터놓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심탄회하게 드릴 이 말씀은 아론 신권을 소유한 어린 형제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본 장엄한 첫 번째 시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직전에 일어난 위협적인 대결, 가능하다면 소년을 파멸시키고, 여의치 않다면 곧 일어날 시현을 막아볼 의도로 이루어진 그 대결에 대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꼭 말해야 할 경우가 아니고서는 필요 이상으로 대적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대적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 조셉의 경험에는 이 청중 가운데 있는 각 청남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사탄, 루시퍼, 거짓의 아버지, 또는 그 밖의 어떤 다른 이름으로 불리든 간에 그는 실제로 존재하는 악의 화신입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 해치려는 악의를 갖고 있으며, 구속의 빛이 보이거나 진리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몸서리를 치는 존재입니다. 둘째, 사탄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평화와 구원을 얻는 일에 맞설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대항하여 싸웁니다. 사탄은 결국 패배하여 내쫓길 것을 알지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함께 끌고 가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이 걸린 이 전쟁에서 악마가 사용하는 전술은 무엇입니까? 이것 역시 성스러운 숲에서 일어난 일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조셉은 루시퍼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막고자 “놀라운 영향력을 내게 미쳐 내 혀를 묶어서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이 가르쳐 주셨듯이 사탄은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할 수 없는 많은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충실한 자들의 혀를 묶을 수만 있다면 [주님의] 사업을 막으려는 그의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오늘 밤, 선과 악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에 대해 염려하고, 이 전쟁에 스스로 동참하여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젊은이들과 연로한 분들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으므로 저는 이 몇 분 동안 전투에 참여하는 병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찬송가 “싸움 끝나는 날까지”<sup>2</sup> 몇 소절을 읊어 봐도 될까요? 아시다시피



그 노래에는 “지원자 그 뉘냐 우리 기다리니”라는 소절이 있습니다. 물론 전쟁에 뛰어들라는 이 외침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소총을 쓰고 수류탄을 던질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무기로 싸울 대군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밤 고의로 자신의 혀를 동여매지 않음, 주님의 영광 신권 권능으로 무장하고 입을 열어 기적을 이야기할 선교사를 찾겠습니다. 교회 초기 지도자들이 가르쳤듯이 신앙의 “가장 강력한 일들이 이뤄져 왔고, 앞으로도 이뤄지게 할” 수단은 바로 그렇게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소년 여러분은 꼭바로 앉아 주목해 주십시오. 청소년 여러분을 위해 이번에는 운동 경기를 비유로 들겠습니다. 이는 생과사를 가르치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여러분, 우리의 승리에 모든 것이 달렸으므로 시합이 임박했을 때 감독이 선수에게 하듯이 저도 여러분과 코가 닿을 정도로 얼굴을 바짝 맞대고 여러분의 눈썹을 태워 그슬릴 정도로 제 목소리를 높여 불을 뿜어내고자 합니다. 위태로운 시합을 두고서 이 감독은 여러분에게 시합에서 뛰려면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보다도 도덕적으로 더 깨끗해져야 한다고 말하겠습니다. 선과 악 사이에 벌어진 이 전쟁에서 유혹이 올 때마다 악마 편에서 시합을 하다 성전에 가거나 선교 사업을 갈 시기가 왔을 때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구주 편으로 가서 그 쪽 유니폼으로 갈아입을 수는 없습니다. 어린 친구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저녁 여러분과 저는 궁지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 기록상, 미래에 선교사로 봉사할 가용 인원인 아론 신권 청남은 이미 수천 명에 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만 장로로 성임되고 선교사로 봉사할 만큼 활동적이고 합당한 집사, 교사, 제사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우리 팀에 들어온 청남들이 계속 남아 있게 하고, 시합에 출전해서 힘을 다해 경기를 해야 할 때 드리블만 하다가 경기장 밖으로 벗어나 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운동 경기에는 바닥이나 운동장에 선이 그어져 있으며, 시합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반드시 그 안에서 뛰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 사업에서 그분과 함께 수고하도록 부름 받은 이들을 위해 합당성이라는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어떠한 선교사도 성적 범죄나 불경한 언어 또는 외설물 탐닉을 회개하지 않은 채로 다른 이들에게 그런 것을 회개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영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며 목이 막혀 소리를 낼 수 없을 것입니다. 리하이가 말한 “금단의 길”을 걷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협착하고 좁은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르칠 구도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극복할 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죄를 이겨 낼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 어떤 일을 했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청남 여러분이 힘겨워하는 어떠한 범법이라도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용서의 기적입니다. 바로 속죄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복음에 전념하지 않는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청남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순결하십시오. 필요하다면, 활동적인 회원이 되고 순결하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완곡한 표현이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파멸시키겠다고 작정한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며, 여러분은 점점 더 어린 시기에 그 영향력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웃음을 움켜잡고 힘껏 외칩니다.

전쟁터의 함성 소리 들어 보라  
모두 오라 모두 오라<sup>7</sup>

어린 친구 여러분, 앞으로 몇 달 안에, 아니 몇 년에 걸쳐 우리에게는 선교사 수만 명이 더 필요합니다. 성임받았고, 활동 회원이며, 순결하고, 봉사하기에

합당할 아론 신권 청남들 중에서 더 많은 선교사가 나와야 합니다.

귀환 선교사와 지금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해 주신 훌륭한 봉사와 그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화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교 사업을 소망해 왔지만 어쩔 수 없는 건강상 이유나 다른 장애 요인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한 분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소망에 대해 알며, 그 헌신에 갈채를 보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며 경탄해 마지 않습니다. 전임 선교사 부름에서 명예롭게 면제되었더라도 여러분은 '우리 팀의 일원'이며 앞으로도 늘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분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벨기세택 신권 형제님들 차례입니다. 웃음을 지으며 의자에 편히 기대 앉지 마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선교부에서 봉사할 부부 수천 쌍이 더 필요합니다. 선교부 회장님들 모두가 부부 선교사를 보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부부 선교사는 선교 사업에 성숙함을 불어넣습니다.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19세 선교사는 그런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더 많은 부부들을 봉사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지난 50년을 통틀어 선교 사업 역사상 가장 담대하고 관대한 조치를 하나 취했습니다. 올해 5월에 각 지역 신권 지도자들은 월 주거비가 사전에 결정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부 선교사를 위한 주거비(오직 주거비에만 해당합니다.)를 교회 선교사 기금에서 보충해 주기로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부부들이 선교 지역에서 겪는 가장 큰 비용 부담을



털어 주도록 하늘에서 보낸 지원입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또한 부부 선교사들이 전통적인 봉사 기간인 18개월 또는 24개월뿐만 아니라 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도 봉사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조치로 부부 선교사는 중대한 가족 행사가 있을 때 자비 부담으로 잠시 집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 또는 19세 선교사들과 동일한 일정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아주 많으며 여러분은 상당히 자유롭게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중 일부는 건강이나 가족, 경제적인 이유로 지금 당장, 혹은 앞으로도 선교 사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조금만 계획한다면 많은 분들이 선교 사업을 나갈 수 있습니다.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 여러분, 평의회와 대회에서 이 사항을 논의하십시오. 모임 중에 연단에 앉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중을 바라보며 누가 부름을 받아야 할지 느낌을 구하십시오. 그런 후에 그들과 의논하여 봉사 날짜를 잡도록 도와십시오. 형제 여러분, 지도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물으십시오. 여러분이 몇 개월 동안 안락의자와 리모컨을 포기한다면 여러분의 아내도 손자 손녀를 두고 떠날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사랑스럽고 소중한 손자

손녀들은 건강하게 잘 지낼 것입니다. 또한, 약속하건대 집에 남아 아이들 곁에만 머문다면 영원토록 절대 할 수 없었을 일들을 주님께 봉사함으로써 그들에게 해 주게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후손에게 "우리 집안은 선교 사업을 한다."라고 말과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교 사업이 이 크고, 넓고, 훌륭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다른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오는, 그 일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은 십이사도에게 그 기초가 되는 일, 즉

#### 캐나다 퀘벡 몬트리올







키스 비 맥멀린 감독  
감리 감독단 제2보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sup>8</sup>라는 명을 마지막으로 남기셨습니다. 따라서 그 일이 있어야만 그 외에 복음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 즉 가족 강화, 청소년 프로그램, 신권 약속, 성전 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파이가 증거했듯이 사람이 “문으로 들어가[기]”<sup>9</sup> 전에는 그 어떠한 축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에서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도록 도와줄 더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나이에 관계 없이 모든 신권 형제 여러분에게 더 강하고 더 헌신적인 목소리를 내도록 요청합니다. 단지 악한 것들과 그 악의 화신에 반대하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신을 위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모든 형제 여러분, 혀를 풀고 여러분이 전한 말로 “다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sup>10</sup>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해 보십시오.

급히 달리세 전쟁터로  
진리로 투구 방패 삼고  
깃발을 높이 당당하게  
다 기쁘고 즐겁게 개가 부르세<sup>11</sup>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조셉 스미스—역사 1:15.
2. “싸움 끝나는 날까지”, 찬송가 179장.
3. 교리와 성약 84:44; 또한 신명기 8:3; 마태복음 4:4 참조.
4. *Lectures on Faith* (1985), 73쪽.
5. 니파이전서 8:28.
6. 니파이후서 31:18.
7. 찬송가, 179장.
8. 마태복음 28:19.
9. 니파이후서 33:9.
10. 교리와 성약 123:12.
11. 찬송가, 179장.

# 아론 신권의 권능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실 때,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아들이 재림하실 날을 대비해 이 세상을 준비시키려 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이 받은 아론 신권 직분이 꼭 필요합니다.

**최** 근에 열린 총관리 직원 훈련 모임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아론 신권 소유자의 의무와 기회에 대해 다시 강조하셨습니다.<sup>1</sup> 저는 그 가르침에 입각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는 제대로 수행되기만 하면 국민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의무는 매우 기본적인 원리이므로 신권 소유자들은 “그런즉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 의무를 배우고 자신이 임명된 그 직분을 부지런히 행하기를 배울지어다.”<sup>2</sup>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의무라는 부름은 신권을 지닌 우리가 지명받은 임무에 응할 때 조용히 찾아오게 됩니다.”<sup>3</sup>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무는 주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사람들이 기쁘게 여러분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신권 권능과 힘으로 자신이 받은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sup>4</sup>

주께서는 자신의 의무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sup>5</sup>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sup>6</sup>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셨기에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sup>7</sup> 있게 되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제가 겪어 본 바에 따르면 집사와 교사, 제사로 봉사하는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만큼 자발적으로 믿음직스럽고 유능하게 자신의 의무를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활기찬 여러분 덕분에 주변까지 환해집니다. 놀랄 만큼 훌륭하게 일을 해내고 한데 모인 여러분 덕분에 기운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실 때,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아들이 재림하실 날을 대비해 이 세상을 준비시키려 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이 받은 아론 신권 직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의무에 대해 생각할 때면 나이 그 이상의 것을 그려봅니다. 바울은 여러분에 대해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sup>8</sup>고 말했습니다.

고대 남성들에게  
아론의 이름 딴 신권 주어졌네  
레위인들, 제사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신권 하나님 자녀들 축복하였네



그리고 세상의 구주 오셔서  
 요한이라는 사람 찾으셨네  
 이 똑같은 권능으로 침례 받으려 함이네  
 그렇게 구원의 새벽은 열렸네  
 후기에 이 똑같은 권능이  
 지상에 다시 회복되었네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진리가  
 사람에게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일세  
 숭고한 진리, 아론 신권이어  
 준비되어야 하리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통해  
 구속이 이루어지리라  
 이 권능을 베푸는 이  
 그저 어린 소년 아니어라  
 신권의 외투 걸친 이를 보고  
 우리 말하노라, “보라, 이 사람이로다!”<sup>9</sup>

“아론 신권의 권능과 권세는 성약과  
 계명에 따라 천사의 성역의 열쇠를  
 지니며, 외형적 의식 곧 복음의 조문과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침례를 집행하는  
 것[입니다.]”<sup>10</sup>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권  
 권세를 분배하는 일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신권 권세는 거의 모든  
 곳에 뿌리내렸습니다. …… 그러나 제  
 생각에는 신권 권세를 분배하는 일이  
 신권 권능을 나누는 일보다 빨리 진행된  
 듯합니다.”<sup>11</sup>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이런 상황을 시정해야  
 합니다.

우리 선지자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조지 큐 캐넌 회장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신권  
 권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 이 힘과 권능이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직분을 지닌 사람부터 시작해서 …… 가장  
 작고 겸손한 집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권  
 소유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모든 형제들은 자신의  
 영혼에 빛을 비취 주고, 자신의 의무와  
 신권과 관련된 지식을 전해 주는 하늘의  
 빛, 즉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고 그것에서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sup>12</sup>

집사나 교사, 제사가 계시의 영을 받고  
 부름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끗하고 성결하게 해 주고,  
 마음을 밝혀 주는 성신의 권능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하면 됩니다.

그 중요성은 엘마가 남긴 다음  
 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부르심을  
 입은 반차는 이것이니 …… 자라나는  
 세대[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니라.]”<sup>13</sup>  
 사람이 거듭나면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런 사람은 악하거나 깨끗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욕망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끊임없이  
 느낍니다. 선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계명을 지키려 합니다.<sup>14</sup>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이  
 강력한 변화와 관련된 경험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제게 순수한 평화와  
 사랑과 빛의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더라도 …… 이미 용서받았으며,  
 참으로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느낌을 제 영혼 속에서 느꼈습니다.  
 마음이 감화되었으며, 제 발 아래에  
 있는 가장 작은 벌레조차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에  
 관해 선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이 새로워졌고, 옳은 일을  
 하고 싶은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제  
 영혼에 악한 소망이라고는 티끌만큼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 이런 영향력이 제게 찾아왔으며,  
 저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압니다. 이후로도 그것은 주님이 저를  
 받아주셨다는 살아 있는 간증으로 남아  
 있습니다.”<sup>15</sup>

따라서 우리는 훌륭한 어린 형제  
 여러분에게 “거듭”<sup>16</sup>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 강력한  
 변화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거룩한  
 아들처럼 되고자 소망하십시오. 청소년  
 시절을 즐기되 다음과 같은 “어린 아이의  
 일은 버리십시오.”<sup>17</sup>

상스러운 말과 어리석은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모든 악을 멀리하십시오.

다툼을 피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회개하십시오.<sup>18</sup>

이렇게 하면 성숙하고 품위 있는

어른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용기와 신뢰, 겸손, 신앙, 선량함 등과 같은 자질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존경받고, 부모님에게서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신권 형제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청년들은 여러분을 흠모하고 여러분 때문에 더 발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신권으로 봉사할 때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맡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부모와 조부모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왕국에서 더 용감하게 봉사할 준비를 하도록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로서 본받을 만한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원회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원회 회장단이 열쇠를 행사할 때 지지하겠습니다. 아론 신권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르는 부름을 영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봉사를 통해 교회는 커다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성신의 권능으로 말[합니다.]”<sup>19</sup> 그리고 여러분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신의 권능으로 말하고 성찬에서 성스러운 상징물을 다룰 때, 남성과 여성 그리고 소년과 소녀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며, 항상 성령과 함께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식하고 금식 헌금을 모을 때, 회원들은 마음이 움직여 구주를 따라 행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가난하고 억압받은 사람들을 보살피셨으며, “와서 나를 따르라”<sup>20</sup>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면, 우리도 마음이 이끌려서 주님의 거룩한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sup>21</sup>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할]”<sup>22</sup> 때,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간증하고, 어떤 봉사를 해야 할지는 필요한 순간에 성신께서 알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노력하여 “교회를 항상 돌아보[면]”<sup>23</sup>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겸손한 태도는 불신으로 가득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을 악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교회로 초대하여, 성찬을 함께 취하고, 그들과 함께 봉사한다면, 그것은 복음 빛이 희미하게 남아 있거나 전혀 없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빛과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 형제 여러분, 부디 여러분이 아론 신권을 받고 성임될 때 받은 “[여러분] 속에 있는 은사[를] …… 가볍게 여기지”<sup>24</sup>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을] ……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sup>25</sup>

사랑하는 선지자께서 “여러분을 깃발 아래로 부르셨습니다.”<sup>26</sup> 우리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봉사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며, 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며, 세상의 구속주이십니다. 충실한 아론 신권 소유자인 여러분은 지상에서 일하는 그분의 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총관리 역원 훈련 모임, 2010년 4월.
2. 교리와 성약 107:99.
3. 토마스 에스 몬슨, “봉사, 신성한 부름”,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54쪽.
4. George Albert Smith, Conference Report, 1942년 4월, 14쪽; 또한 토마스 에스 몬슨,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54쪽 참조.
5. 요한복음 5:30.
6. 요한복음 6:38.
7. 신앙개조 제3조.
8. 디모테전서 4:12.
9. 키스 비 맥밀런 저작시; 키스 비 맥밀런, “보라, 이 사람이로다”, *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42쪽 참조.
10. 교리와 성약 107:20.
11. 보이드 케이 패커, “신권 권능”,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7쪽.
12. George Q. Cannon, *Deseret Weekly*, 1889년 11월 2일, 593쪽; 2010년 4월 총관리 역원 훈련 모임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인용.
13. 엘마서 5:49.
14. 메리온 지 롬니, “성약에 따라”, *성도의 빛*, 1976년 2월호, 71~73쪽 참조.
15. Joseph F. Smith, Conference Report, 1898년 4월, 66쪽.
16. 요한복음 3:3~7; 엘마서 5:14~21, 49 참조.
17. 고린도전서 13:11.
18. 디모테후서 2:16, 22~26 참조.
19. 니파이후서 32:3.
20. 누가복음 18:22; 또한 요한복음 14:12~14 참조.
21. 모사야서 4:26 참조.
22. 교리와 성약 20:47.
23. 교리와 성약 20:53.
24. 디모테전서 4:14.
25. 디모테후서 1:7~9.
26. 토마스 에스 몬슨, 총관리 역원 훈련 모임, 2010년 4월.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델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인생에서 단 한 번 오는 기회

헌신하며 봉사하고 기꺼이 희생한다면 선교 사업은 여러분에게  
거룩한 반석이 되어 줄 것입니다.

**선** 교부 회장과 마지막으로 하는  
접견인 '해임' 접견은 선교사  
생활에서 매우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접견에서 중요한 순간은  
18개월 혹은 2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얻은 잊지 못할 경험이나 중요한 교훈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선교사로 봉사하면 당연히 그런 경험과  
교훈을 많이 얻기 마련이지만, 선교사들이  
겪는 시련과 기회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과 개성에 따라 각각 독특한 경험으로  
찾아옵니다.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오래 전에  
이미 우리는 지상에서 사명을 이루고자  
하늘 부모님을 뒤로 하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강점과  
약점, 능력과 잠재력까지 다 아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유능한  
선교사, 남편, 아버지, 신권 지도자가 되기  
위해 어느 선교부 회장, 동반자를 만나고  
또 어느 회원과 어떤 구도자들을 껴야  
하는지를 아십니다.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은  
성신에게서 인도와 영감을 받아  
선교사들을 배속합니다. 선교부 회장은  
영감에 따라 6주마다 선교사 이동을  
지시하는데, 그때 그는 주께서 각  
선교사들이 정확히 어느 곳에서 봉사해야

하는지 아신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에리조나에서 봉사하는  
전임 선교사 중에는 스페인 마드리드  
출신인 자비에르 미시에고 장로가  
있었습니다. 미시에고 장로에게 미국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은 다소 독특하게  
여겨졌는데, 당시에 스페인 젊은이들은  
대부분 자국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시에고 장로는 동반자와 함께  
스테이크 노변의 모임에 초대되어  
참석했는데, 모임이 끝날 즈음에  
교회 활동이 저조한 회원 한 분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친구를 따라  
참석한 그 회원은 그날 실로 수년 만에  
예배당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미시에고 장로에게 마드리드에  
사는 호세 미시에고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미시에고 장로가 아버지  
성함이 호세 미시에고라고 대답하자,  
그 회원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그  
장로의 아버지가 자신이 아는 호세  
미시에고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동일 인물임이 확인되자 그 저활동  
회원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 아버지가 바로 내가 선교사일

때 침례를 준 유일한 사람이요.” 그  
회원은 자신이 선교 사업에서 실패했다  
생각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은  
주님을 실망시켰다고 믿었으며,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과 근심에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시에고 장로는 '실패로 여긴' 그분의  
선교 사업이 자기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 주었습니다. 청년 독신  
시절에 침례를 받은 아버지는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여섯 자녀를 두었는데, 그중  
자신은 넷째이고 형제 셋과 누이 한  
명까지 모두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가족 모두가 활동 회원이고, 결혼한  
가족들은 모두 성전에서 인봉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저활동이 된 그 귀환 선교사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 많은 사람의 삶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주님이 한 장로를 스페인 마드리드로부터  
그 먼 에리조나에서 열린 노변의 모임으로  
보내셔서 자신이 실패하지 않았음을 알려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각 선교사가 어디에서 봉사해야  
하는지를 아십니다.

선교 사업 동안 주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축복하시든 간에 그 축복은  
스테이크 회장님께서 해임을 받는  
순간 끝나도록 계획되지는 않았습니다.  
선교 사업은 그 후의 살아갈 날들을 위해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충실히 봉사할 때  
얻는 경험과 교훈, 간증은 복음을 중심에  
둔 삶을 세울 기반이 됩니다. 그 토대는  
필멸의 삶을 거쳐 영원에 이르기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 사업  
이후에도 계속 축복을 누리려면 지켜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내 손에서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모두 그 축복을  
위하여 정해진 율법과 그 조건을 ……  
마땅히 지켜야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132:5) 이 원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임무를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자녀를 속박에서 인도해 내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거둬 재앙이 일어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지 못하자 주께서는 결국 열 번째이자 마지막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리라]”(출애굽기 12:12)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떨하는 자”(23절)에게서 보호하시려고 “흠 없고”(5절)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모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 후 “그 피를” 가져다가 집집마다 출입구에 있는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7절) 바르라고 하시며,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13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 여호와께서 ……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28절) 그들은 희생 제물을 바치고, 피를 모아 집에 발랐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 다 치[셨으나]”(29절) 모세와 백성들은 주님의 약속대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한 피는 구주께서

장차 이루실 속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바친 희생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 제물과 피만으로는 약속된 축복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피를 문기둥에 바르지 않았다면 그 희생은 헛되었을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선교 사업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사용하게 하고 또 최대한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 선교 사업처럼 긴 시간과 더 많은 헌신과 희생 및 열렬한 기도가 필요한 일은 없습니다.”(“모든 사람이 듣게 함”, 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48쪽)

우리는 “희생”을 통해 받은 자신만의 선물을 안고 귀환합니다. 신앙, 간증, 영의 역할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매일 복음을 공부하면서, 또한 우리 구주께 봉사하면서 우리는 선물을 받습니다. 닳아 해진 경전, 너털너털해진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지도서, 선교사 일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선물을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태로 받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봉사하며 얻은 축복을 끊임없이 누리려면 이스라엘 자녀들이 한 것처럼 희생을 바친 후에도 그것을 적용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와델 자매와 저는 몇 년 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선교부를 감리했는데, 그때 저는 선교사들과 마지막 접견을 할 때 늘

마지막 임무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저는 귀환하는 선교사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즉시 관대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어떤 교훈과 선물을 주셨는지 시간을 두고 깊이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내용들을 열거해 보고, 어떻게 하면 그 교훈을 선교 사업 이후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겠는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 교훈은 그들 삶에서 모든 면, 즉 교육과 직업 선택, 결혼과 자녀, 계속될 교회 봉사,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후 어떤 사람이 되며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자신이 충실히 봉사하며 얻은 교훈을 생각해 보고 더욱 부지런히 적용해 보려 할 때,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삶에서 영의 영향력을 더욱 풍성하게 느끼고, 가족이 강화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구주께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연차 대회에서 엘 톰 페리 장로님은 이렇게 권유하셨습니다. “귀환 선교사 여러분께 다시 새롭게 헌신하고, 선교사 봉사의 소망과 영으로 재충전하기를 요청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종으로서의 본분을 생각하고, 그 본분을 지키며, 그 본분을 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 한때 전임 선교사로서 지냈던 강한 열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힘차게 나아간다면

위대한 축복들이 여러분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귀환 선교사”,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88~89쪽)

이제 아직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지 않은 청년과 청년들에게 몬슨 회장이 지난 10월에 하신, 다음 권고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가르치신 내용을 되새겨 드리겠습니다. 모든 합당하고 건강한 젊은 남성은 선교 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선교 사업은 신권 의무이며, 많이 받은 자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의무입니다.”(“다시 함께 만나서”,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5쪽)

과거에 선교사였던 사람들에게, 또 현재 선교사인 이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며, 여러분이 경험할 선교 사업을 미리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친자녀처럼 사랑하며 여러분을 위해 영감과 인도를 구할 선교부 회장과 그의 훌륭한 아내가 누구인지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선교사 동반자가 될 사람들과 그들에게서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게 될지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일하게 될 각 지역과 만날 회원들, 가르칠 사람들, 여러분이 영원토록 영향을 줄 사람들도 아십니다.

헌신하며 봉사하고 기꺼이 희생한다면 선교 사업은 여러분에게 거룩한 반석이 되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칠 때, 영이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을 감동시킴으로써 개종이 일어나는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봉사할 준비를 하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주님의 유능한 종이 되려면 성별되어 명찰을 달고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는 것이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장로”라 불리기 오래 전부터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연구하고 기도하여 몰몬경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지니고 선교부로

떠나십시오. “몰몬경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또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이룩된 회복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 선교사로서 여러분은 먼저 몰몬경이 참되다는 개인적인 간증을 지녀야 [합니다.] …… 이러한 성신의 증거가 여러분의 가르침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103쪽)

성신을 동반하기에 합당한 상태로 선교부에 가입시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은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영과 더불어, 여러분은 선교 임지에서 주님을 위해 기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영이 없이는 여러분의 재능이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176쪽)

일할 준비가 된 상태로 선교부로 가입시오. “선교사로서 여러분의 성공은 주로 사람들을 찾고 가르치고 침례를 베풀고 확인하[도록] …… 돕겠다는 결심에 의해 측정[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데려오기 위해 최선을”(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10쪽) 다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습니다.

여러 해 전에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이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는 청년 및 청년들에게 주신 권고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론 신권을 지닌 어린 형제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힐라맨의 젊은 이전 용사들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영의 아들들이며, 여러분도 그분의 왕국을 세우고 방어하는 힘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힐라맨의 이전 용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성스러운 성약을 맺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사소한 부분에서도 순종하고

충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가장 위대한 선교사”,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47쪽)

이 권유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미시이고 장로를 비롯하여, 충실하게 봉사하고 귀환하여 선교 사업에서 얻은 가르침을 적용한 모든 이들처럼 큰 교훈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의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하신 다음 말씀이 참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단 한 번 오는 선교 사업의 기회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신권 봉사에 대해 관람자로서가 아니라 참여자로서의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리아호나, 1995년 7월호, 48쪽) 저는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 주님의 방법으로 베푸십시오

교회의 복지 원리는 그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진리이며 궁핍한 사람을 돕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65년 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직후, 저는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축복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어린 시절이었지만 마음 씩씩이가 넉넉한 미국 교회 회원들이 전후 독일 성도들에게 보내 준 복숭아 통조림, 달콤한 밀죽과 옷가지들에서 나뉜 특별한 냄새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극심하게 궁핍했던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과 친절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영감에 따라 마련된 복지 계획이 올해로 창립 75주년을 맞으면서, 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살피고, 자립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기본 원리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 신앙의 근본

우리는 때로 복지를 복음에 관련된 한 가지 주제로만 생각합니다. 복음이라는 나무에 달린 수많은 가지 중 하나로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에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헌신의 깊은 뿌리는 복지 원리를 실천하겠다는 결심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 이후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복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테면, “만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 너는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 네 소유 중에서 헌납하여”라고 부드럽게 당부하셨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난 당하는 자를 기억하라. 이는 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님이라.”라고 직접적으로 명하셨으며, “어느 사람이 내가 만든 풍성한 것을 취하고 나의 복음의 법에 따라 자기 몫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주지 아니하면, 그는 악한 자와 더불어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자기 눈을 들어 보리라.”<sup>3</sup>라며 강한 어조로 경고하기도 하셨습니다.

## 현세적 복지와 영적 복지는 하나로 결합된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큰 계명은 현세적 복지와 영적 복지를 하나로 결합하여 말한 것입니다. 두 계명은 모든 계명의 기본이 되므로 이를 “큰”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개인, 가족, 교회에서 우선 순위는 이 두 계명을 기초로 정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목표와 행위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계명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현세적 복지와 영적 복지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내게 있어서 만물은 영적이니라. 어느 때에라도 내가 너희에게 현세적인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나니”<sup>5</sup>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제게는 이 말이 “영적인 삶도 결국 삶이다.”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영적인 삶이라고 해서 이해하고 연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도 살아 나가야 하는 삶”<sup>6</sup>이라는 뜻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현세적인 것은 영적인 것보다 덜 중요하다고 여기고 소홀히 합니다. 영적인 것은 소중히 하면서 현세적인 것은 축소하려 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길 이웃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종교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온성을 세울 때 예복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했을 뿐 아니라 현세적으로도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sup>7</sup> 없게 했습니다.

늘 그렇듯 우리는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제이 르우벤 클라크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상에 오신 구주께서는 두 가지 큰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타락한 이들을 대속하고 율법을 이루어 메시아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육체로 있는 형제 자매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sup>8</sup>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발전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현세적인 봉사를 떼어 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가 나머지 하나를 채워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에서 어느 한쪽이 결핍된 것은 위선입니다.

**주님의 방식**

세상 도처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돕는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주님의 방법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주님은 “이는 반드시 내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는 우리가 당장 필요로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진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에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 외에도 자립의 원리와 이웃에 대한 봉사가 항상 포함됩니다.

1941년에 힐라 강이 넘치면서 애리조나 주 덩컨 밸리에 홍수가 났습니다. 당시 젊은 스테이크 회장이었던 스펜서 더블유 킴볼 회장은 보좌들과 만나 피해 정도를 파악한 뒤 솔트레이크시티에 많은 기금 지원을 요청하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은 기금을 보내는 대신 헨리 이 모일과 매리온 지 롬니, 해롤드 비 리까지 세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세 사람은 킴볼 회장을 찾아가서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달러’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립’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킴볼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들이 돈을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사무실에 앉아서 돈을 배분해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에 달하는 우리 회원들이 덩컨에 달려가서 담장을 세우고 건초를 나르고 땅을 고르며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훌륭한 축복들을 많이 받았습니. 그것이 바로 자립입니다.”<sup>10</sup>

주님의 방법을 따름으로써 킴볼 회장의 스테이크 회원들은 당장 필요한 것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자립심을 키우고, 고통을 덜게 되었으며, 서로에게 봉사하며 사랑과 단결심을 키우게



**엘사바도르 산살바도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많은 회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으며 온갖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고통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힘을 다해 도움과 구제를 받고자 간구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부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제 책임이자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두”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모두를, 즉 빈부와 국적에 상관 없이 모든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를 뜻합니다. 주님의 계획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sup>11</sup>

세대와 세대를 거쳐 우리는 이웃을 돕는 성스러운 책임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복지와 자립 원리를 훌륭하게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도 자주 우리는 주위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았을 때 누군가 멀리서 백기사처럼 나타나 도움을 주기만을 바랍니다. 때로는 특정 문제를 해결할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전문가를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이웃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을 강탈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봉사할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전문가를 기다리는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현실을 직시합시다. 모든 문제를 전문가들이 해결해 주기에는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세워진 어느 나라에서나 신권과 신권 조직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곁에 상호부조회도 함께 두셨습니다. 신권 소유자 여러분이 아시듯 자매님들의 뛰어난 은사와 재능이 없다면 복지 사업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방법은 강을 건너기 위해 강가에 앉아서 물이 마르기만을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방법은 함께 달려들어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하여 다리를 세우거나 배를 만들어 앞에 놓인 도전이라는 강물을 건너는 것입니다. 시온의 남성인 신권 소유자 여러분, 여러분은 영감 받은 복지 프로그램 원리를 통해 앞장서서 성도들을 구조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눈을 크게 뜨고 신권을 이용하여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조직

대공황 시절에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신 해롤드 비 리 회장은 당시 전 세계에 널리 퍼진 가혹한 빈곤과 슬픔, 굶주림에 대한 해법을 찾으라는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해답을 찾고자 애쓰면서 그분은 그 문제를 주님께 말씀드리며 여쭙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할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아무 조직도 필요하지 않노라. 나는 이미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조직을 네게 주었으니, 신권 조직보다 더 위대한 조직은 없노라. 내가 할 일은 오직 신권 조직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니라.’”<sup>12</sup>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신권이 시작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의 조직이 있습니다. 신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입니다.

우선 우리는 주께서 이미 계시로 전해 주신 것을 숙지해야 합니다.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대를 막론하고 궁핍한 사람을 돌보는 주님 방법의 교리적 토대를 다시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많은 선지자들이 가르친 바와 같이 교회의 복지 원리는 그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진리이며 궁핍한 사람을 돕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형제 여러분, 계시된 원리와 교리를 먼저 연구하십시오. 지침서에서 교회



영국 레스터

복지 부분을 읽고<sup>13</sup> 인터넷 웹사이트 “providentliving.org”를 활용하며, 교회 복지 계획에 대한 기사를 실은 2011년 6월호 리아호나를 다시 읽으십시오. 주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궁핍한 사람을 보살피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자립하는 원리가 어떻게 서로를 채워 주는지 배우십시오. 주님의 방법에 따라 자립하려면 교육과 건강, 직업, 가정 재정, 영적인 힘 등 생활에 필요한 여러 요소를 균형 있게 갖추어야 합니다. 현대의 교회 복지 프로그램을 숙지하십시오.<sup>14</sup>

일단 교회 복지 계획에 대한 교리와 원리를 연구한 다음, 여러분이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배운 내용을 적용하십시오. 결국 여러분 스스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어딜 가나 가족과 회중, 지역은 제각기 다릅니다. 교회 복지 문제에도 일률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자신의 자립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립형 프로그램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원에는 개인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 직계 가족과

방계 가족에게서 받는 지원, 지역 사회의 도움이 있으며, 여기에는 물론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에서 주는 따뜻한 보살핌도 포함됩니다. 자립이라는 영감 받은 방식을 통해 이런 자원이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교리와 일치하면서도 지역 사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신성한 복지 원리를 시행할 때 언제나 솔트레이크시티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지침서를 찾아보고 자신의 마음과 하늘의 뜻을 살피야 합니다. 주님의 영감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법을 따르십시오.

결국 각 경륜의 시대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한 것처럼 여러분의 지역에서 해야 합니다. 함께 협의하고, 모든 자원을 활용하며, 성신의 영감을 구하고, 주님께 확증을 구한 뒤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하려 나서야 합니다.

약속을 드리건대, 그렇게만 한다면 주님의 방법으로 베푸는 일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 주님의 방법으로 베풀 때 돌아오는 축복

교회 복지, 즉 주님의 방법으로 베푸는 것에 대해 예언된 약속과 축복은 주께서 자녀들에게 선포하신, 정말 경이롭고 훌륭한 약속과 축복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할 것이요]”<sup>15</sup>

부유하든 가난하든 이 지구촌 어디에 살든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자원을 희생하고 바치는 과정에서 우리의 영이 성숙해지고 정련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베푸는 일은 단순히 교회 프로그램 목록 중 하나가 아닙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이것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리의 중심이자 우리 종교의 본질입니다. 형제 여러분, 신권 소유자로서 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신권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위대하고도 특별한 특권입니다. 자립하고, 궁핍한 사람을 도우며 온정 어린 봉사를 베푸는 일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떨어지게 하지 맙시다.

현세적인 복지와 영적인 복지는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필멸의 경험과 그에 따른 현세적 어려움을 주시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따르고 베풀어야 하는 이 위대한 의무와 축복을 이해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주

1. 교리와 성약 42:29, 30.
2. 교리와 성약 52:40.
3. 교리와 성약 104:18.
4. 마태복음 22:36~40 참조.
5. 교리와 성약 29:34.
6. Thomas Merton, *Thoughts in Solitude*(1956), 46쪽.
7. 모세서 7:18.
8. J. Reuben Clark Jr., *Conference Report*, 1937년 4월, 22쪽.
9. 교리와 성약 104:16; 또한 15절 참조.
10. Spencer W. Kimball, *Conference Report*, 1974년 4월, 183, 184쪽.
11. 모사야아서 4:26; 18:27 참조.
12. 해롤드 비 리, 복지 농업 모임에서 한 연설, 1970년 10월 3일, 20쪽.
13. *지침서 제1권: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2010), 제5장, “교회 복지 관리”,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제6장, “복지 원리와 지도력”; 주님의 방법으로 베푸는 복지에 대한 지도자 지도서 개요(소책자, 2009) 참조.
14. 글렌 엘 루드 장로의 저서인 *Pure Religion: The Story of Church Welfare since 1930*(교회 배부 센터에서 구할 수 있음)은 주님의 복지 프로그램의 교리와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훌륭한 자료이다.
15. 이사야 58:10~11; 또한 이사야 58:7~9 참조.

# 신권 준비: “형제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얼마나 미숙한가에 대해 걱정하거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도움으로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사** 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세계적인 하나님의 신권 모임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밤 저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돕는 사람들을 신권 소유자로서 준비시키는 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종종 ‘내가 이 신권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 여러분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준비되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용기를 얻도록 돕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론 신권은 예비 신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 대다수가 12세에서 19세 사이인 어린 집사, 교사, 제사들입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준비하는 일은 그저 아론 신권 연령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그분의 왕국에서, 그분의 무릎에 앉아 가르침을 받을 때부터 우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밤에도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락하는 한 계속 우리를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전세와 현세에서 하는 모든 신권 준비의 목적은 우리 자신과 더불어 주님을 위해 우리가 봉사를 베푸는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전세에서 첫 번째 가르침을 받을 때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인 주님의 속죄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배웠을 뿐 아니라 평의회에 참석하여 그 일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망각의 휘장이 드리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한때 알았고 수호했던 것을 현세에서 다시 배우기 위해 길을 찾아야 합니다. 현세에서 하는 준비에는 그 소중한 진리를 찾아서 성약을 통해 다시 그것에 전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려면 진리를 찾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의 도움뿐 아니라 우리 쪽의 신앙과 겸손과 용기도 필요합니다.

우리를 돕는 사람들은 부모님, 선교사, 또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도움은 우리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단지 일부일 뿐입니다. 신권 준비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약을 지켜 성약이 마음속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할, 이미 준비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현세에서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해 봉사하고, 함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도록 다른 사람들도 준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세에서 하게 될 신권 준비에는 사람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기회도 포함됩니다. 교회 교사, 현명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 정원회 회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사가 되는 것도 일부분입니다. 주님은 여러 기회를 주시겠지만 준비되었는지의 여부는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신권 소유자로서 훌륭히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중대한 선택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신권을 소유한 종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이해한다면 훈련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가 훌륭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주님은 나이가 어리든 많은 세상 사람들 눈에, 그리고 심지어 당사자들에게도 연약하고 단순해 보일 수도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그 눈에 띄는 결점들을 강점으로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현명한 지도자들이 누구를 선택하여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권 소유자는 자신이 받은 발전 기회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봅시다. 저는 큰

와드에서 경험이 부족한 제사였습니다. 그때 감독님이 어느 일요일 오후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감독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방문할 시간이 있을까요? 형제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감독님은 제가 모르는 여성 한 분을 방문하는데 동반자로서 같이 가 주었으면 한다고 하시며, 그 자매님은 먹을 음식이 없는 형편이고,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하는 분이라는 점만 알려 주셨습니다.

감독단 보좌 두 분은 유능한 분들이었습니다. 두 분 다 경험이 많고 분별력이 뛰어난 분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큰 기업체 사장이었는데, 후에 선교부 회장과 총관리 역원이 되셨습니다. 다른 보좌는 그 도시에서 저명한 판사이셨습니다.

당시는 제가 감독님께 제사 정원회 제1 보좌로 갖 부름을 받았을 때입니다. 감독님은 제가 복지 원리에 관해 별로 아는 게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재정 관리는 더 몰랐습니다. 수표를 써 본 적도 없었고, 은행 계좌도 없었으며, 개인 예산이라는 것은 구경도 해 보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경험이 부족한 저에게 “형제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하고 말씀하신 그분이 무척 진지하셨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저는 그 영감 받은 감독님이 뜻한 바가 무엇이었던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서 신권 소유자를 준비시킬 황금 같은 기회를 보셨습니다. 물론 훈련되지 않은 소년에게서 미래 감리 감독단 일원을 예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감독님은 그날, 그리고 여러 해에 걸쳐 줄곧 저를 위대한 잠재력이 있는 훈련 대상으로 대하셨습니다.

즐거워 보이기는 했지만, 사실 그것은 감독님에게 일어났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미망인을 방문한 후 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감독님은 차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뺨뺨이 표시된 닳고 닳은 경전을 펼치셨습니다. 감독님은 제가 어떻게 더 훌륭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친절히 알려 주셨습니다. 감독님은 저에게 경전을 더 공부하고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독님은 제가 연약하고 단순하여 가르침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을 아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날 오후에 들었던 감독님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더 또렷이 기억하는 것은 제가 배워서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감독님의 깊은 신뢰였습니다.

감독님은 저의 모습 너머로 연약하고 단순하여 주님의 도움을 바라며, 또 주님이 도와 주실 거라 믿는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감독, 선교부 회장, 아버지는 그러한 가능성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집사 정원회

회장이 금식 간증 모임에서 간증을 전할 때 그런 일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갖 교사가 되어 집사 정원희 회원들 곁을 떠나게 되는 청년이 진한 간증이었습니다.

그 형제는 매우 감격한 목소리로 정원희 회원들이 선량함과 능력 면에서 발전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저는 그 소년처럼 한 조직을 그렇게 훌륭하게 칭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소년은 형제들이 한 봉사에 대해서도 칭찬했습니다. 그런 후 부담을 느끼는 신입 집사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자신도 신권 정원희에 들어왔을 때 그런 중압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자신이 연약하다고 느꼈기에 더 인내하고 동정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사람들을 강화하고 더 훌륭히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아론 신권 소유자로서 2년 동안 지내면서 더 능숙해지고 현명해졌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보다 두 살이 어렸을 적에 정원희 회장으로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분명하고 생생하게 기억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 소년과 우리는 시간이 흐르고 성공을 거두면서 기억이 쇠퇴해지고 희미해질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보다 젊은 신권 동반자인 디모데에게 권고하면서 분명히 그런 위험을 보았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신권 준비를 하고 주께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돕도록 가르치고 격려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 이 일을 계속하라<sup>1</sup>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sup>2</sup>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훌륭한 권고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미숙한가에 대해 걱정하거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의 도움으로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만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신권 준비를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여 성신을 동반할 자격을 갖추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봉사를 맡기실지 알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 일을 해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권으로 봉사하고자 준비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려움이 많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이미 그러하듯 우리의 근육과 뇌는 늙어갑니다. 배우는 능력과 읽는 내용을 기억하는 능력이 쇠퇴할 것입니다. 주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신권으로 봉사하려면 매일 생활 속에서 점점 더 스스로를 수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봉사를 하며 신앙을 쌓음으로써 그 고난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신권의 맹세와 성약”<sup>3</sup>이라 칭하신 것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께서 이곳에 계셨다면 행하셨을 봉사를 우리가 하겠다고 그분과 맺은 성약을 뜻합니다. 그 표준에 따라 최선을 다해 생활하면 끝까지 견딜 힘이 쌓입니다.

저는 위대한 신권 훈련자들에게서 어떻게 그런 힘을 쌓을 수 있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피로와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것을 극복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한 조언자들은 영적으로 지탱하는 힘이 다른 사람들이라면 쉬면서 휴식을 취하는

지점을 넘어 계속 일할 때 생긴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부터 영적인 힘을 쌓아 온 위대한 신권 지도자들이기에 육체적으로 약해질 때에도 여전히 활력이 있을 것입니다.

제 남동생이 사업차 유타 주에 있는 작은 도시에 머물 때였습니다. 동생은 호텔에 있을 때 스폰서 더블유 김볼 회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힘든 하루 일을 마치고 들어온 늦은 밤 시간이었는데, 물론 김볼 회장님도 그러셨겠지만, 통화를 걸어오셨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형제님이 이 도시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밤이 늦었고 형제님은 아마 이불 속에 있겠지만 저를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집회소 상태를 살펴보러 가는데, 동반자로서 형제님이 필요하군요.” 제 동생은 집회소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만, 왜 김볼 회장님이 긴 하루를 보낸 후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또 왜 그분에게 도움이 필요한지도 모른 채 그 밤에 그분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후, 일본에서 한 호텔에 머물 때 저도 늦은 밤에 비슷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 교육 총감으로 새로 부임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이 다른 임무로 저와 같은 호텔 어딘가에 머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운을 모조리 다 써 버리고 녹초가 되어 이불 속에 막 누웠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힝클리 회장님은 쾌활한 목소리로 “검토 요청을 받은 원고를 제가 여기서 읽고 있는데, 형제님은 왜 잠을 자고 있죠?”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고 검토라면 힝클리 회장님이 저보다 더 탁월하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어나서 일하러 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힝클리 회장님은 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필리핀 다바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거의 언제나 모임이 끝날 때면 제일회장단 비서에게 “제가 해야 할 일을 모두 처리했나요?” 하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예, 회장님. 그렇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오면 언제나 활짝 웃으십니다. 몬슨 회장님의 만족스러운 웃음은 저에게 어떤 메시지와 같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 저는 ‘내가 맡은 임무에 대해 더 해야 할 것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무실로 돌아가 일을 합니다.

이 위대한 교사들은 시간과 나이가 난관을 만들 때에도 맹세와 성약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아직 건강하고 활력이 있는 시절에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방법을 보여 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 시간 완벽한 종이 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들일 수는 있습니다. 일찌감치 형성된 습관이 있기에 저는 이후에 올 어려움에도 준비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 끝 무렵을 향해 갈 때 틀림없이 겪게 될 시험 속에서 우리의 맹세와 성약을 지킬 힘으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교육 위원회 모임에서 그 증거를 보았습니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님은 흡이나 이해할 만한 연이은 건강 문제를 견디시며 당시까지 여러 해 동안 봉사하셨습니다. 그날 아침에 김볼 회장님은 그 모임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은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의자에서 축 늘어진 채 눈도 감겨 있었습니다. 머리는 가슴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분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홀런드 장로님도 옆에 계셨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회장님을 도우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 긴급 상황을 처음 겪어 본 저희는 김볼 회장님을 의자에 앉힌 채로 근처에 있는 그분 사무실로 옮겨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김볼 회장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의자 옆을 한쪽씩 말아 들어올려서 교회 행정 건물 회의실을 나와 복도로 나갔습니다. 김볼 회장님은 눈을 절반만 뜨고서 여전히 멍한 상태에서 “아, 조심하세요. 안 그러면 허리 다쳐요.” 하셨습니다. 사무실 문을 향해 가는데 회장님은 “아, 제가 그 모임에 방해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오셔서 몇 분이 지나고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분은 저희를 올려다보며 “형제님들은 그 모임에 다시 가야 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모임에 꼭 참석하는 것이 주님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재빨리 돌아갔습니다. 김볼 회장님은 어린 시절 이래로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서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몸에 깊이 배어 습관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맹세와 성약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 주셨습니다. 결과가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것에도 온 힘을 쏟으며 수년간 꾸준히 준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와 우리가 부름을 받아 훈련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이들이 영생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우리의 신권 성약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키워 주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단련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위대한 훈련자에 대해 오늘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훈련하고 모범으로 가르칠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칭송할 것이라는 약속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분과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미숙한 소년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들은 조셉에게 복음의 충만함과 참된 교회를 회복하도록 맡기셨습니다. 필요할 때에는 조셉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를 들어올리기 위해 아래로 끌어내려야 할 때에는 사랑이 깃든 징계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조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또한 그분들은 모든 신권 봉사의 목적이자 이유인 해의 영광을 향해 계속 일할 힘을 주시려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분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봉사를 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시고 준비시키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영화로운 기회들을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지도자이자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니파이후서 32:3~6 참조.
2. 디모테전서 4:12~14, 16.
3. 교리와 성약 84:39.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용감하게 홀로 서라

우리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 언제나 준비되고 용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우리는 큰 유대와 형제애로 묶여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21편 36절에는 “신권의 권리는 하늘의 권능과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하늘의 권능과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는 신권을 받은 것은 얼마나 훌륭한 선물입니까? 그러나 이 귀한 선물에는 특별한 축복뿐 아니라 엄숙한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권을 소유한 사람답게 늘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주변에 온통 우리를 파멸로 끌어내리려는 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길에 빠지지 않으려면 결단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대다수 사람들의 표준이 우리의 표준과 매우 유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뉴욕 타임스에서 2008년 여름에 실시한 어떤 조사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유명한 노트르담 사회학자가 지도하는 조사단이 미국 전역에 있는 젊은이 230명과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결과는 세계 대부분의 지역과 유사할 것이라 추정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는 이 기사를

일부분만 나누겠습니다.

“인터뷰 진행자는 옳고 그름이나, 도덕적 판단이 곤란한 상황과 인생의 의미에 관해 질문을 던졌다. 장황하고 무질서한 답변들 속에서 …… 젊은이들은 민감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는 말을 더듬었다. 그것은 표현할 어휘나 개념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도덕적 판단이 곤란한 상황을 겪은 경험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하자 삼분의 이가 답을 못하거나 도덕적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들, 이를테면 특정한 아파트를 임대할 형편이 되는지, 또는 주차하기 위해 주차장 미터기에 집어넣을 동전이 충분이 있는지에 관해 설명했다.”

그 기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 대부분이 계속 되풀이한 기본 입장은 도덕적 선택은 단지 개인의 취향 문제라는 것이었다. 응답자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말은 이랬다. ‘그건 개인적인 문제죠. 개인에게 달려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젊은이들 다수가 권위에 맹종하기를 거부하며 다른 극단으로 치달았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를 행복하게 해 주거나 그렇다고 느끼는 일을 할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 내면에서 어떻게 느끼느냐 외에는 달리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인터뷰를 진행한 사람들은 젊은이들 대다수가 “학교, 기관, 또는 가족으로부터

도덕적 판단력을 기울 자원을 제공받지 못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는 무엇이 도덕적이고 무엇이 아닌가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에게 기대되는 바가 무엇인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으며 또 계속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무엇을 보거나 듣는 간에 이 율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동안 우리의 신앙은 도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자신이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는가에 관해 소수 의견에 속하거나 심지어 홀로 서 있는 상황에도 처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믿음을 굳건히 수호할, 홀로 서야 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할 도덕적 용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로서 어떠한 도전에 부딪치더라도 용기로 맞서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테니스이 한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힘은 열 사람의 힘과 같으니, 내 마음이 순수한 까닭이지.”<sup>2</sup>

일부 유명인사와 이런저런 이유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 그리고 때때로 우리 교회에 대해 점점 더 조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증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비판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거나 결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니파이전서 8장에 나오는 리하이의 생명나무 시현에서 리하이는 쇠막대를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열매를 따 먹은 후에 일부는 인간의 자녀들의 교만을 상징하는 “크고 넓은 건물” 속 사람들이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모습을 보고 수치스러워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금단의 길로 떨어져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까.<sup>3</sup> 비웃고 놀리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악마의 무기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것처럼 어려운 반대에 처해서도 강하고 확고하게 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 해군에서 복무할 당시 처음으로 저의 신념을 위해 용기를 발휘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해군 신병 훈련소에서 한 경험은 저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 3주 동안 저는 제 목숨이 위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군에서는 저를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첫 주가 지난 후 찾아온 일요일을 저는 언제까지나 기억할 것입니다. 선임하사관은 기쁜 소식을 들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의 시원한 산들바람을 맞으며 훈련장에 정렬하여 하사관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모두 교회에 간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다. 나는 휴식을 취할 것이다.” 그런 후 그가 소리쳤습니다. “천주교인들은 모두 데카터 막사에서 모인다. 세 시까지는 돌아오지 않는다. 앞으로 행진!” 꽤 많은 인원이 이동해 갔습니다. 그런 후 선임하사관은 그 다음 명령을 외쳤습니다. “유대교인들은 헨리 막사에서 모인다. 세

시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앞으로 행진!” 다소 적은 인원이 행진해 나갔습니다. 그런 후 하사관은 다시 말했습니다. “나머지 개신교도들은 파라거트 막사에 있는 극장에서 모인다. 세 시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앞으로 행진!”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몬슨, 너는 천주교인이 아니야. 유대교인도 아니고, 개신교도도 아니지. 너는 몰몬이야. 그러니까 여기 그냥 서 있어!’ 저는 정말 완전한 외톨이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용감한 결정이었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선임하사관으로부터 들어 본 말 중에 가장 기분 좋은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제 쪽을 바라보며 “자네들은 자신을 뭐라고 부르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저는 제 뒤에 누군가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거의 동시에 “몰몬이라고 부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몸을 돌려 몇 안 되는 다른 해병들을 보았을 때, 마음속에 차오르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선임하사관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굽적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일 곳을 찾는다. 세 시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앞으로 행진!”

우리가 행진해 나갈 때 제 마음에는 오래 전에 초등학교에서 배운 시가 떠올랐습니다.

용감하게 몰몬이 되라  
용감하게 홀로 서라  
용감하게 확고한 결심을 해라  
용감하게 결심을 알려라

그 일은 제 예상과 달리 다른 결과로 끝이 났지만, 저는 필요한 경우 기꺼이 홀로 서려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뒤에 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로 섰습니다. 제가 오래 전에 강하고 충실하게 남기로 결정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의 믿음을 옹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 앞에 놓인 일을 수행하기에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1987년에 당시 교회 회장이셨던 에스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이 수많은 캘리포니아 회원들에게 전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벤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시대 선지자들은 오랜 세월 이후에 도래할 우리 시대를 보았습니다. 고인이 된 무수한 사람들과 앞으로 태어날 이들도 우리를 주시합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선택된 세대입니다. …… 하나님은 주님의 재림에 앞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을 보내시려고 거의 6천 년 동안 여러분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겠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그대로 남아서 그 왕국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세대는 사악함 면에서 볼 때 주님이 홍수로 지구를 깨끗하게 하신 노아 시대에 필적할 만하지만, 그 시대와는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왕국이 승리를 거두는 것을 돕도록 야겨 두신 그분의 강한 …… 자녀 중 일부라는 점입니다.”<sup>4</sup>

그렇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강한 자녀들 중 일부를 대표합니다. 우리가 맡은 책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마련해 두신 모든 영화로운 축복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우리의 신권도 함께 갑니다. 우리는 거룩한 곳에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권에 합당하지 않은 장소에 가거나 그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과 신권이 위태로워지는 일이 생기기 않도록 부디 그 전에 멈추어 서서 결과를 잘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각자는 아론 신권을 받았습시다. 그 과정에서 각자 천사의 성역을 행하는 열쇠를 지니는 권능을 받았습시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여러분을 위한 천사의 성역을 베푸는 일 사이에 장애물을 만드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도 부도덕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직해서도 안 됩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거나 불결한 말을 사용하면서 천사의 성역을 베풀 권리를 지닐 수는 없습니다.”<sup>5</sup>

인생 여정에서 실수로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의심할 여지 없이 돌아오는 길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과정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우리 구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축복된 선물을 주시려고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회개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지만,

그 약속은 참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sup>6</sup> “내가 ……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sup>7</sup>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며, 큰 축복이자 큰 약속입니까!

자신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글쎄, 나는 모든 계명대로 생활하고 있지 않고 해야 할 모든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내 인생은 잘 돌아가고 있어. 인생을 즐기고 계명은 안 지켜도 되는 걸.’ 형제 여러분, 약속드리건대 긴 시간을 두고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몇 개월 전, 한때 양쪽을 다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에게서 편지를 한 장 받았습시다. 그는 이제 회개하여 복음 원리와 계명에 일치하는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 편지는 잘못된 생각의 실태를 대표하므로 한 단락을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구주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스스로 (힘들게) 배워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sup>8</sup> 저는 양쪽을 다 섬기기 위해 누구 못지 않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얻은 것은 사탄이 그의 속임수와 환상과 거짓말을 믿는 이들에게 주는 공허와 암흑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모든 세력이나 그릇된 길을 부추기는 모든 목소리에 강하게 맞서려면 자신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열두 살이든 백열두 살이든, 또는 그 사이 어떤 나이이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직접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경을 읽으십시오.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책이 참된지 하나님께 여쭙어 보십시오. 우리는 “너희가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직원

2011년 10월

## 제일회장단



헨리 비 아이어링  
제1보좌



토마스 애스 몬슨  
회장



디터 에프 우헨도르프  
제2보좌

##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파커



톰 펄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유스



엠 러셀 메라드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암 홀런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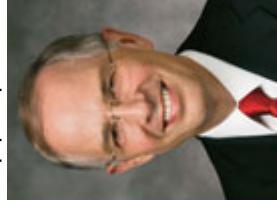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널 험 앤더슨

## 침실인 회장단



로버트 에이 로스



스티븐 이 스노우



윌터 에프 존스



엠 워튼 니 헤일즈



제이 이 팻슨



도널드 험 크리스토퍼슨



테드 램 폴리스터

철심인 제일 정위원회



마크로스 에이  
아이카리넨



호세 앵 알폰소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이안 애스 아던



매빈 비 아블랜드



데이비드 에스  
헵스터



세인 팜 브렌



체찰드 코세



최운환



크래그 시  
크리스티안슨



돈 앵 클라크



광 비 북



로버트 이 코블린지



앨런 오 콜린스



릭 앤드루 콜린스



펜자민 데 호소스



존 비 딕슨



케빈 알 딕킨



데이비드 에프  
에번스



엔리케 알  
플라벨라



에두아르도 가바벳



카를로스 에이  
고토이



크리스토폴 Lopes  
이세



게يث 더블유 공



시스코트 그로우



제임스 케이  
해글터



키스 케이 힐버그



다니엘 헨 존슨



폴 브이 존슨



폴 비 파파퍼



패트릭 키어넌



폴 이 켈리커



에릭 더블유  
코푸로프스키



리처드 제이  
메이너즈



마크스 비 내쉬



로버트 에이치  
넬슨



앨런 에프 파커



케빈 더블유  
피어슨



앤소니 디 퍼킨스



폴 비 파파퍼



라파엘 이 피노



브루스 디 포터



데이비드 제이  
퀸



마이클 티 램우드



린 지 로빈슨



조셉 더블유  
시타터



윌리엄스 소아레스



게리 이 스테인슨



마이클 존 유 테



호세 에이  
테터턴



로버트 에이  
테도리노



휴안 에이 우세다



프랭킨스쿠 제이  
비나스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일



윌리엄 엠 윌커



에프 마이클 윌릿



가즈히로 아비시타



조지 에프  
제플로즈



윌리엄 디오 디  
지버



더블유 크래그  
즈뎀크

철심인 제이 정위원회



윌콕트 더블유  
앤더슨



고이치 아오야기



켄벤 케이 베네트



크래그 E 에이  
카겐



브루스 에이 James



제이 테브 코너쉬



키스 알 에드워드



스탠리 지 웰리스



브래들리 디  
프라이어



래리 더블유  
기븐슨



오 빈센트 할레트



래리 알 로젠스



페터 지 램



제임스 비  
마르티노



제이모 마저키르디



켄트 에프 리처즈



크래그리 에이  
슈바이처



켄트 디 왓슨



래리 와이 웰슨

감리 감독단



리처드 시 에츨러  
제1부좌



에이치 테이버드 벤튼  
감리 감독



키스 비 매켄린  
제2부좌



후기 성도들이 “자신의 언어로”(교리와 성약 90:11) 연차 대회 말씀을 듣기 위해 전 세계에 모였다. 사진에 나오는 이들은 왼쪽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브라질 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캐나다 퀘벡 몬트리올, 필리핀 몬탈반, 멕시코 고메즈 팔라시오, 일본 도쿄에 있는 교회 회원들이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sup>9</sup>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몰몬경이 참됨을 알게 되면, 조셉 스미스가 진실로 선지자였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또한 복음이 이 후기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으며,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이 회복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일단 간증이 생기면 간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다수가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앞으로 선교사로 봉사할 것입니다. 그 기회를 위해 지금 준비하십시오. 봉사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을 나눌 준비가 되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sup>10</sup>라고 촉구한 사도 바울의 권고에 응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내내 우리의 믿음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언제 그렇게 하도록 부탁받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1957년에 있었습니다. 당시 출판업에서 종사하던 저는 텍사스 주 댈러스로 와서 사업자 회의에서 연설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댈러스는 종종 “교회들의 도시”로 불렸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저는 도시 주변 지역을 도는 관광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운전사는 여러 교회들을 지나치면서 “왼쪽에 보이는 교회는 감리교입니다.” 또는 “오른쪽에 천주교 대성당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언덕 위에 자리한 아름다운 붉은 벽돌 건물을 지나칠 때 운전사는 “저 건물이 몰몬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버스 뒤쪽에 있던 한 여성이



“기사님, 몰몬에 관해 좀 더 이야기해 주세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운전사는 버스를 길가에 세우고 의자를 돌려 앉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손님, 제가 몰몬에 관해 아는 것이라고는 저 빨간 벽돌 건물에서 모임을 한다는 것뿐입니다. 승객 중에 몰몬에 관해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누군가가 대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승객들의 얼굴 표정을 바라보며 혹시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한 것처럼 그것이 제가 할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결정할 때가 이르면 준비할 시간은 지나간다”라는 격언이 진리임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15분 가량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에 관한 간증을 승객들에게 나누는 특권을 획득했습니다. 저에게 간증이 있어서 감사했고 그것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서 기쁩니다.

신권을 소유한 모든 형제들이 신권을 존귀하게 여기고 신권과 함께 받은 신뢰에 충실하기를,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우리 각자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 언제나 준비되고 용감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홀로 서야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곁에 설 때는 결코 혼자가 아닐 것임을 아는 지식으로 힘을 얻어 용감하게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위대한 선물, 즉 “하늘의 권능과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는 “신권의 권리”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결심을 항상 지키고 그 위대한 약속에 합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형제 여러분, 제3니파이에 나오는 구주의 다음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너희의 빛을 들어 그것으로 세상에 비취게 하라. 보라 나는 너희가 지켜 들 빛이니-곧 너희가 본 바 나의 행하는 그것이라.”<sup>11</sup>

우리가 항상 그 빛을 따르고 그것을 들어 온 세상이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며, 제 목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David Brooks, “If It Feels Right . . .”, *New York Times*, 2011년 9월 12일, nytimes.com.
2. Alfred, Lord Tennyson, “Sir Galahad”, in *Poems of the English Race*, sel. Raymond Macdonald Alden (1921), 296.
3. 니파이전서 8:26~28 참조.
4. Ezra Taft Benson, “In His Steps” (Church Educational System fireside, 1987년 2월 8일); 또한 “In His Steps,” in 1979 Devotional Speeches of the Year: BYU Devotional and Fireside Addresses (1980), 59쪽 참조.
5. 고든 비 헝클리, “신권을 행사하기 위한 개인적인 합당성”,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59쪽.
6. 이사야 1:18.
7. 예레미야 31:34.
8. 마태복음 6:24.
9. 모로나이서 10:4.
10. 베드로전서 3:15.
11. 제3니파이 18:24.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 증인

몰몬경은 우리가 그 일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더 잘 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안내서입니다.

**이**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연차 대회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회 회원에게는 똑같이 신성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그 책임을 받아들였으며, 그 책임을 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몰몬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엘마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로 하나님과 약속했는지를 배웁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참으로 죽을 때까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너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너희가 하나님께 구속을 받고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아 영생을 얻고자 한즉”<sup>1</sup> 이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고결한 의무이자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몰몬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의무를 부과했듯이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도 알려 줍니다.

우리는 첫째,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둘째,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로 약속했고, 셋째, 오래 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몰몬경은 우리가 그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더 잘 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안내서입니다.

사랑하는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봉사의 날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조직된 봉사의 날 활동은 수천 가지에 이릅니다. 성도들로 구성된 평의회들은 어떤 봉사를 계획해야 하는지 알고자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봉사를 해야 하며, 또 누구를 참여시켜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쭙었습니다. 어쩌면 삽이나 음료수를 잘 챙기게 도와 달라고까지 기도했음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봉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최소한 한 와드만큼은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120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여했는데, 지역 사회에서 어느 한 교회 주변을 세 시간 동안 말끔히 청소했습니다. 그 일은 힘들었지만 행복한 작업이었으며, 그 교회 목사는 고마워했습니다. 그날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단합과 커다란 사랑을 느꼈으며, 잡초를 뽑고 숲을 손질하면서도 즐거웠다고 말했습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말씀은 그들이 기쁨을 느낀 이유를 알게 해 줍니다. 베냐민 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sup>2</sup> 몰몬경에서 몰몬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영원히 견디요,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이를 지닌 것으로 드러나는 자는 잘 될 것임이니라.”<sup>3</sup>

여러분이 주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면 주님 또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주님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면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사랑은 여러분의 성품이 될 것입니다. 또 생을 다할 때까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말한 몰몬의 말이 참되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사랑을 품기로 약속했듯이, 또 여러분은 살아가는 동안 어디서나 그분의 증인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에 몰몬경은 그 약속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안내서가 됩니다.

저는 어느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연설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 총장은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을 초청하고 싶었지만 회장님이 시간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대신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후임 사도였습니다.

연설하도록 저를 초청한 사람은 제가 사도로서 맡은 책임에 관해 더 자세히 알게 된 후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전화를 걸어 제 소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임을 그제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주제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대학교는 무신론자를 포함하여 모든 종교에 대한 믿음을 존중한다는 설명과 함께 “이곳에서 당신의 의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중대한 질문들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연설을 할 수 없다고 대학 측에 말해야 할까? 행사는 불과 몇 주 안 남았고, 이미 참석하겠다고 발표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명성은 어떻게 될까?

저는 하나님이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기도했으며,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니파이, 아비아다이, 엘마, 앰올레크, 모사이아의 아들들이 이 상황에서 따라야 할 모범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에 직면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학교에 관해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연설할 날이 다가오자 걱정은 커졌고, 제 기도 또한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저는 기적과도 같이 어떤 뉴스 기사를 찾았습니다. 그 대학교는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서 인도주의적 노력을 기울이며 하는 일들에 동참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설에서 우리와 그 대학교가 곤궁한 사람들을 고양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해 왔는지를 설명하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준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신기하게도 청중들은 기립 박수를 쳤습니다. 놀라웠지만 다소 걱정도 되었습니다. 아비아다이의 상황, 즉 오직 엘마만이 그의 간증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열린 공식만찬에서 대학교 총장은 제 연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제 인생에서 그런 기적적인 일이 지금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데 몰몬경이 여러분의 품성과 능력, 용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분명합니다. 그



책에 담긴 가르침과 용감한 본보기들은 여러분을 고양시키고, 인도하며, 담대하게 해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선교사는 몰몬경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취하면서 축복을 받습니다. 구주에 대한 증거를 자녀의 마음속에 심어 주려고 애쓰는 부모들이 몰몬경에 담긴 말씀과 영을 가정과 식구들의 삶에 가져오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할 때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런 일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참석하는 모든 성찬식 모임과 공과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연사와 교사들은 경전, 특히 몰몬경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보여 줍니다. 분명한 간증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들은 더욱 커진 확신으로 가르치며 힘 있게 간증을 전합니다.

저는 또한 회원 모두가 침례를 받을 때 맺은 세 번째 약속을 더욱 잘 지키고 있다는 증거를 봅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오래 참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성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말기 암 진단을 받은 오랜 친구의

병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어린 두 딸도 데리고 갔는데 그 친구가 제 딸들을 알아보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가족들이 침대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더니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저와 아내가 데려온 딸들을 보는 그 친구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아이들을 보듬어 준 다음 자신의 가족에게 소개하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착한 아이들인지를 칭찬했습니다. 마치 공주들을 궁정에 소개시키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지친 친구를 위해 우리는 곧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치 친구의 예전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밝은 모습이었고, 분명히 우리에게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추기라도 한 듯 제 친구는 그 순간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인생 대부분을 주님의 자녀를 돌보며 보냈습니다. 그 친구는 부활하신

구주께서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안으시고 축복하시며 기쁨에 겨워 우셨다는 물몬경 이야기를 알았습니다.<sup>4</sup> 그런 기쁨을 오랫동안 느껴 왔기 때문에 제 친구는 마지막까지 사랑에 찬 봉사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기적을 어떤 형제님의 침상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안식을 누릴 만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충실히 봉사를 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의사가 말기라고 진단한 어떤 병을 치료받기 위해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더 치료할 것도 희망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형제님의 부인은 저를 집안 침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분은 정성스레 만들어진 침대에 등을 기대고 누워 계셨습니다. 새로 다림질한 흰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맺으며, 새 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눈에서 놀란 기색을 보고는 조용히 웃다가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네에게서 축복을 받는 대로, 침대에서 일어나 일하러 갈 준비를 한 것뿐이라네.” 그분은 그토록 충실하게 섬겼던 주님과 이제 곧 접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자주 접하는,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온전히 개종한 후기 성도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 전진해 나갑니다.

매리온 지 롬니 회장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진실로 온전하게 개종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욕망도 실제로 소멸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확고하고도 지배적인 각오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sup>5</sup>

그런 확고한 각오를 연륜이 쌓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경험에서 점점 더 자주 보게 됩니다. 저의 딸들을 환영해 준 그 자매님과 새 신을 신은 형제님 같은

분들은 일어나 주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주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킵니다. 여러분도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물몬경을 보면 또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로했으나 확고한 하나님의 종이 남긴 이런 말씀을 읽으면 저는 아직도 마음속에 존경심이 생깁니다. “이는 이 시간에도 너희에게 말하려 하는 동안 나의 온 몸이 참으로 심히 떨고 있음이라.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 나를 받들어 주고 계시며, 나를 용납하시나로 하여금 너희에게 말하게 하시고”<sup>6</sup>

여러분도 모로나이가 보인 모범에서 저처럼 용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성역을 마친 그는 홀로 남게 되었으며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백성과 레이맨인 후손에게 유익을 주고자 기록한 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라. 너희가 만일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니, 그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지라, 또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할 수 없으리다.”<sup>7</sup>

모로나이는 그 간증을 자신의 삶과 성역에 대한 고별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는 물몬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라고 촉구했으며, 죽음이 다가오자 구주에 대한 간증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개종한 하나님의 자녀였으며,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듯 사랑에 차 있었고, 구주와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서 한결같고 두려움이 없었으며 끝까지 견디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로나이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온전한 개종을 향한 첫째 단계는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몬경을 공부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신앙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 고대나 현대 선지자에 대한 신앙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보다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 줍니다. 삶을 더 낮게 변화시킵니다. 저는 제 선교사 동반자가 했던 일을 여러분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십대 시절에 그 친구가 가출할 때 가지고 나온 상자 안에 누군가 그의 더 큰 행복을 위해 물문경을 넣어 두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그는 세상 여러 곳을 다녔으나 외롭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상자를 보니 그 안에는 갖고 다니던 잠동사니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상자 바닥에서 물문경을 찾아냈습니다. 책 속에 담긴 약속을 읽었으며, 그 약속을 시험해 보고 물문경이 참됨을 알았습니다. 그 증거를 얻자 그 친구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가장 바랐던 꿈을 초월하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물문경도 바쁜 일상과 신경 쓸 다른 일에 치여 여러분 시야에서 가려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책을 자주, 깊이 공부하십시오. 물문경에는 본향인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간증합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물문경은 그분이 살아 계시며 부활하여 살아 계신 구주임을 증거하는 참된, 확실한 증거입니다.

물문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중하고 참된 증거입니다. 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사이야서 18:9.
2. 모사이야서 2:17.
3. 모로나이서 7:47.
4. 제3니파이 17:21~22 참조.
5. Marion G. Romney, in Conference Report, Oct. 1963, 23.
6. 모사이야서 2:30.
7. 모로나이서 10:32.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주님을 소망하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지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며 강화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식일 아침, 우리는 구주께 감사드리며 그분께서 실제로 살아 계심을 간증합니다. 그분의 복음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으며, 물문경은 참됩니다. 우리는 현재 선지자이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로부터 임하는 영원한 축복에 대해 엄숙히 증거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구주의 속죄 희생과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시려고 스스로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더 연구하고 배우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주께서는 전세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계속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받들어 수행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 예수께서 어린 시절 “[그분의] 아버지 집에”<sup>1</sup> 가셨으며,

“주께서 장차 임할 그의 성역의 때를 알려주시기를 기다리[셨다]”<sup>2</sup>는 것을 배웁니다. 서른 살에 예수님은 힘겨운 유혹에 시달리셨으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sup>3</sup>(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이 번역이 누락됨-옮긴이)라고 말씀하시며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겐세마네에서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sup>4</sup>라고 선언하시며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분의 선택의지로 우리 죄를 짊어지겠다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공개재판에서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겪는 중에도 구주께서는 아버지를 소망하셨으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찢리고] ……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셨습니다.”<sup>5</sup> 구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sup>6</sup>라고 울부짖는 순간마저도 아버지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적들을 용서하시고<sup>7</sup> 필멸의 어머니를 돌아보시고<sup>8</sup> 숨이 다해 필멸의 세상에서 말으신 사명을 완수하는 그 순간까지 견디셨습니다.<sup>10</sup>



저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거룩한 선지자들, 또 모든 충실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조차도 왜 시험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왜 그분들은 특히 더 힘든 고통을 받으실까요?

소년 시절에 병을 앓았고, 평생 박해를 받은 조셉 스미스를 생각해 봅니다. 조셉 스미스도 구주처럼 “오 하나님이지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sup>11</sup> 하고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혼자라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선택의지로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했습니다.

저는 나부에서 쫓겨나 병과 궁핍에 시달리고 일부는 죽음에 이르면서도 자신의 선택의지로 선지자를 따르고 평원을 가로질렀던 우리 개척자 선조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어디로, 또 무엇 때문에 갔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 보면서 저는 우리가 지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며 강화되기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경전에는 간단한 문구로 된 답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를 소망”<sup>12</sup>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험과 역경을 겪습니다. 지상에서 부딪히는 이런 어려움은 선택의지를 올바르게 행사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께 증명하는 기회가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sup>13</sup> 것임을 하나님이 아시듯이 우리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늘 이해하게 된다는 뜻일까요? 때로는 누구나 “오 하나님이지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sup>14</sup> 하고 묻게 되지는 않을까요?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동반자는 충분히 그런 의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재정 위기가 닥치면 가장은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헤맬 때, 부모는 슬픔으로 그렇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sup>15</sup> 그렇게 하여 우리의 신앙과 이해력이 커지면, 우리는 일어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sup>16</sup>라고 말하며 주님을 소망하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소망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전에서 소망한다는 말은 바라고, 기대하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바라고 신뢰하려면 신앙, 인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계명 준수,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주님을 소망할 때 우리는 신앙의 씨앗을 심어서 “큰 부지런함을 가지고, 또 인내를 가지고”<sup>17</sup> 가꿉니다.

구주께서 하셨듯이 하나님께, 즉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 이루어지이다”<sup>18</sup> 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영혼을 다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구주를 소망할 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알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여 “성신을 받게 됩니다.”<sup>19</sup>

영이 속삭이는 대로 따를 때 우리는 “환난은 인내를”<sup>20</sup> 가르쳐 준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하게 되기까지 계속하여 인내”<sup>21</sup>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을 소망할 때 우리는 “굳게 서[서]”<sup>22</sup>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을 지니고 신앙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sup>23</sup>

또한 “그리스도의 공덕만을 의지하[며]”<sup>24</sup> “[우리를] 돕는 [주님의] 은혜로써 …… 오 주여, 우리의 뜻대로 마시옵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sup>25</sup>라고 말하게 됩니다.

주님을 소망할 때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 계명을 지[키며]”<sup>26</sup> “언젠가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놓여 쉬게”<sup>27</sup> 될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담대함을 버리지 [않게] 됩니다.”<sup>28</sup> 왜냐하면 “고난 받은 모든 일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함께 역사”<sup>29</sup>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난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닥칩니다. 욕의 경험을 떠올릴 때, 우리는 견디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욕은 땅과 집과 가족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과 가족, 명성, 육체적 건강, 심지어는 마음의 평정마저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기다리며 힘 있는 간증을 남겼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sup>30</sup>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내가 [그를

민노라]”<sup>31</sup>(영어 성경에는 한글 성경과는 달리 ‘Though he slay me, yet will I trust in him’ 이라고 되어 있음-옮긴이)

육과 선지자들과 구주께서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소망하는 일을 어렵게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특히나 그럴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은 대부분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sup>32</sup> 주어집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이따금씩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주께서 제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종종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sup>33</sup> 주어지는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나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를 지금 바로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은 청소년 시절에 복음이 참되다는 증거를 얻게 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응답은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스코틀랜드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때에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후에 그분은 “그 일은 내게 진지한 기도는 ‘언제 어느 곳에선가’ 응답된다는 확신을 주었다.”<sup>34</sup>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언제, 어떻게 올지는 알지 못하나 그분이 정한 시간에 그분의 방법대로 올 것입니다. 어떤 응답은 다음 세상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축복사의 축복문에 있는 몇몇 약속이나 가족들이 받게 될 일부 축복이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님에 대한 기대를 단념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축복은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품고 기다려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정말 소중한 기회를 맞게 됩니다. 자녀는 우리가 인내와 사랑과 이해를 보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감사와 동정심을 보여 주기를 고대하십니다. 형제자매들은 우리가 관대하고, 자비로우며, 용서하기를 소망합니다. 배우자는 구주께서 우리 각자를 사랑하셨듯이 그들을 사랑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인내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점점 더 알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모든 이들에게, 또 병든 이를 보살피고 약한 사람을 도우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는 모든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저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매일같이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를 하면서 주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합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sup>35</sup> 그분은 여러분이 겪는 희생과 슬픔을 아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계속 신앙을 행사하여 주님을 소망한다면 여러분은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안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친절해집시다.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그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함같이 하[게]”<sup>36</sup> 된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구주께서는 셋새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그와 같이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sup>37</sup>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 차례에 걸쳐 그 자리에 와 보셨을 때마다 제자들은 항상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곁을 지키지 않았으며, 또 마침내는 아버지마저도 함께하시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구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sup>38</sup> 당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가 힘을 더하는 가운데<sup>39</sup> 구주께서는 그 쓴 잔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sup>40</sup> 구주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sup>41</sup>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를 소망하고 겸손하게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습니다.<sup>42</sup> 이 후기를 사는 그분의 십이사도 중 한 사람으로서 저는 우리가 강화되어 평생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안식일 아침에 저는 우리가 여러분과 저의 셋새마네에 홀로 남겨지지 않았다는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sup>43</sup> 이곳과 휘장 저편에 있는 그분 천사들은 “[우리를] 둘러 있어 [우리를] 받쳐”<sup>44</sup> 줍니다. 저는 특별히 구주께서 하신 다음 약속이 참됨을 증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sup>45</sup>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감으로써 그분을

소망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다”<sup>46</sup>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명예롭게 그분께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구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세서 4:2.
2. 누가복음 2:49.
3. 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마태복음 3:24.
4. 누가복음 4:8.
5. 누가복음 22:42.
6. 이사야 53:5; 모사이야서 14:5.
7. 마태복음 27:46; 마가복음 15:34.
8. 누가복음 23:34 참조.
9. 요한복음 19:27 참조.
10. 요한복음 19:30 참조.
11. 교리와 성약 121:1.
12. 시편 37:9; 123:2; 이사야 8:17; 40:31; 니파이후서 18:17.
13. 교리와 성약 122:7.
14. 교리와 성약 121:1.
15. 시편 30:5.
16. 마태복음 6:10; 제3니파이 13:10; 또한 마태복음 26:39 참조.
17. 엘마서 32:41.
18. 마태복음 6:10; 누가복음 11:2.
19. 니파이후서 32:5.
20. 로마서 5:3.
21. 교리와 성약 67:13.
22. 엘마서 45:17.
23. 니파이후서 31:20.
24. 모로나이서 6:4.
25. 교리와 성약 109:44.
26. 엘마서 1:25.
27. 엘마서 34:41.
28. 히브리서 10:35.
29. 교리와 성약 98:3.
30. 욥기 19:25~26.
31. 욥기 13:15.
32. 니파이후서 28:30.
33. 니파이후서 28:30.
3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데이비드 오 백케이(2003), xviii.
35. 마태복음 25:40.
36. 모사이야서 3:19.
37. 마태복음 26:38; 또한 39~45절 참조.
38. 엘마서 7:11.
39. 누가복음 22:43 참조.
40. “십자가에 달리신 주”, 찬송가 108장; 또한 제3니파이 11:11; 교리와 성약 19:18~19 참조.
41. 마태복음 26:42.
42. 교리와 성약 76:107; 88:106; 133:50 참조.
43. 시편 121:4.
44. 교리와 성약 84:88.
45. 이사야 40:31.
46. 마태복음 26:42.



테드 알 콜리스터 장로  
칠십인 회장단

# 몰몬경,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

성경과 함께 몰몬경은 그리스도의 교리와 신성을 밝히는, 없어서는 안 될 증인입니다.

오래 전에 제 고조부께서 처음으로 몰몬경을 접했을 때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몰몬경 한가운데를 펴서 몇 장을 읽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면 악마가 쓴 것이다. 과연 누가 쓴 것인지 알아보아야겠다.” 할아버지는 10일 동안 몰몬경을 두 번이나 독파하시고서 “악마가 이 책을 썼을리 만무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틀림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몰몬경의 특성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완전한 사기,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을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서나 신학적 주석 내지는 통찰력 있는 저술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문장, 모든 구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를 금판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으며, 거기에 고대 미 대륙 선지자들의 기록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셉은 그 판을 신성한 권능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몰몬경은 그 책이 선언하듯 거룩한 경전입니다. 만일

아니라면 몰몬경은 정교하지만 사악한 속임수입니다.

시 에스 루이스는 그와 같이 구주의 신성을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선택할 때 처하게 되는 비슷한 기로에 대해, 즉 어중간한 입장은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흔하게 하는 어리석은 이 말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예수를 훌륭한 도덕적 스승으로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그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어.’ 우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낱 인간일 뿐인 누군가가 어느 정도 예수님과 같은 주장을 펼친다 하더라도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지금도 어느 한 쪽일 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일 것입니다. …… 그분이 단지 위대한 스승 반열에 오른 한 인간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에 절대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그렇게 해석할 어떠한 근거를 남겨 두지 않았으며 그럴 의향도 없으십니다.”<sup>2</sup>

마찬가지로 우리는 몰몬경에 대해서도



이 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악마에게서 왔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잠시 이 책의 참된 속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시험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몰몬경에 있는 다음 성구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악마 중 어느 쪽으로 이끌어 주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라 하였노니,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 주심이니라”(니파이후서 32:3)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남긴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러니 이제 나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고 기억하라.”(힐라맨서 5:12)

또한 한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모로나이서 10:32)

몰몬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과연 악마가 쓸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구주께서 악령을 쫓아내시자 그분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 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구주는 그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답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정곡을 찌르셨습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마태복음 12:24~26)

제가 몰몬경에서 인용한 성구들은 구주를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악마가 이 책을 썼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자기를 분열시키고 자기 왕국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그럴 수 없다고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몰몬경을 편견 없이 진지하게 읽는 사람은 “악마가 이 책을 썼을리 만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틀림없다.”라고 말씀하신 제고조부와 같은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는 성경이 이미 있는데도 왜 몰몬경이 꼭 필요할까요? 똑같은 성경 교리에 기반을 두는데도 지금 이 세상에는 왜 그렇게 많은 기독교 종파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는 성경을 각기 달리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동일하게 해석한다면 한 교회만 있을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에베소서 4:5)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증인에 관한 신성한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고린도후서 13:1)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증인이며, 몰몬경은 또 다른 증인입니다. 이 두 번째 증인은 왜 그리 중요할까요? 이런 설명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이에 찍은 점 하나를 지나는 직선을 몇 개나 그릴 수 있을까요? 무한정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한 점이 성경을 나타내며, 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은 성경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상징하고, 그러한 각 해석은 각기 다른 교회를 나타낸다고 말입니다.

그럼 그 종이에 몰몬경을 상징하는 두 번째 점을 찍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과 몰몬경을 상징하는 이 두 점 사이를 지나는 직선은 몇 개나 그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 두 증인이 전하는 간증을 통해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한 해석은 오직 하나만 남게 됩니다.

몰몬경은 증인으로서 성경에 있는 교리를 거듭 확증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통합시키며,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가 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구주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구원을 받는 데 왜 침례가 필요한지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다음 성구는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합니다. “또 그는 모든 사람에게 명하사, 그들이 …… 회개하여 그의 이름으로 침례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하시느니라.”(니파이후서 9:23)

오늘날 세상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침례 양식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마태복음 3:16)라고 실려



브라질 준디아

있듯이 우리에게 위대한 모범이 되시는 구주께서 친히 보여 주신 방법이 있는데도 말합니다. 물속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물에서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다툼도 없도록 물몬경에는 합당한 침례 양식에 관한 교리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그들을 물에 잠기게 하였다가, 물 밖으로 다시 나오게 할지니라”(제3니파이 11:26)

하나님이 지난 4,000년간 인간에게 계시를 주신 방식을 성경이 이미 입증하고 있는데도 많은 이들은 성경과 함께 계시가 끊겼다고만 믿습니다. 한 패가 넘어지면 연달아 쓰러져버리는 도미노처럼, 잘못된 한 교리는 다른 정확한 교리들까지 무너뜨리고 맙니다. 다시 말해 계시가 끊어졌다는 믿음은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이라는 교리를 무너뜨립니다. 아모스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아모스 3:7)라고 가르친 교리도 무너뜨립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사도행전 10:34)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교리도 무너뜨립니다. 다행히 물몬경은 계시가 지속된다는 성경의 진리를 확증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희, 곧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하며, 그것이 폐하여졌고, 계시도 …… 없다 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라. ……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물몬서 9:7, 9) 즉,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므로, 고대에 말씀하셨다면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교리를 확인하고 분명하게 밝히는 예는 얼마든지 더 찾아볼 수 있지만, 물몬경에 실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내용만큼 힘차고 심금을 울리는 것은 없습니다. 구주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려 지상에 내려오셨고, 따라서 그분의 자비로운 속죄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란 없기에, 그분께서 여러분 각자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낮게 하실 치유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의 영혼에 확인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물몬경을 읽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속죄에는 인간에게 알려진 모든 유한한 약점을 덮어 주고 포용하고 초월하는 무한한 효력이 있다는 점을 가르치고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모로나이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 통하여 …… 소망을 가져야 할지니”(모로나이서 7:41)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을 터이면 이 말을 믿으리니, 이는 이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요”(니파이후서 33:10) 물몬경에 이러한 담대한 선언이 나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성경과 함께 물몬경은 그리스도의 교리와 신성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인입니다. 성경과 함께 물몬경은

“만민에게 그들이 선을 행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니파이후서 33:10) 성경과 함께 물몬경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고 알려 줍니다. 이것이 바로 물몬경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 해 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성찬식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연사 중에는 열네 살 된 소녀도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학교에서 친구 한 명과 종교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넌 어떤 교회에 다니니?”라고 물었습니다.

그 소녀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인데, 몰몬이라고도 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대꾸했습니다. “내가 그 교회를 아는 데 거긴 참된 교회가 아니야.”

소녀가 “네가 어떻게 알아?” 하고 반문했습니다.

“조사를 좀 해 봤거든.” 하고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물몬경을 읽어 본 적이 있어?”

이에 대해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읽어 본 적은 없는데.”

그러자 그 귀여운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알아봤다고 할 수 없지. 나는 물몬경을 한 장 한 장 다 읽어보고 우리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았거든.”

저도 물몬경 한 장 한 장을 여러 번 읽어 보았으며, 제 고조부와 같이 이 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윌라드 리차즈, 리그랜드 리차즈, 기이한 업적, 개정판 (1972), 67쪽.
2. C. S. Lewis, *Mere Christianity*(1952), 40~41.



일레인 에스 돌튼  
본부 청녀 회장

# 딸의 어머니를 사랑하십시오

지금처럼 악이 만연한 시기에 아버지는 어떻게 딸을 행복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초** 보 아빠가 딸아이를 처음으로 팔에 안아 보는 그 성스러운 순간은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힘듭니다. 올해 저의 세 아들은 모두 딸을 얻었습니다. 강하고 다부진 럭비 선수인 아들 존은 처음으로 얻은 딸을 품에 안고서 경건하고도 애정이 듬뿍 담긴 눈길로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서 존은 이렇게 묻는 듯한 표정을 하고서 저를 보았습니다. ‘딸은 어떻게 키워야 하나요?’

오늘 아침, 저는 우리의 모든 아들들과 아버지들을 향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악이 만연한 시기에 아버지는 어떻게 딸을 행복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선지자들은 간단하지만 참된 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딸]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딸]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sup>1</sup> 딸의 어머니를 사랑하면 여러분은 딸에게 애정과 충실함, 존경과 연민, 헌신을 가르치게 됩니다. 딸은 여러분이 보이는 모범을 보며 청남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미래에 만날 배우자에게서 어떤 자질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딸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모범에서 딸아이는 여성성에 대한 가치를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딸에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며 그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여 결혼 생활이 해의 왕국의 생활이 되게 하십시오. 영원토록 이어지는 성전 결혼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최우선 순위에 둘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니파이의 광야에 성전을 건축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더라.”<sup>2</sup>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성전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성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맺은 성약과 아내와 가족에게 한 약속을 어기게 하는 어떠한 영향력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허용하지 마십시오.

청녀회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성전과 성전 결혼으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정결하고 합당해야 하는 중요성을 여러분의 딸들에게 이해시키고자 노력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딸에게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항상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겠다는 다짐을 지금부터 하도록 인도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주의를 흐뜨리게 하는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보이는 모범은 저희가 외치는 몇 마디 말보다 훨씬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청녀들은 아버지께 대해 걱정합니다. 많은 청녀들이 가족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청녀들은 성전에 가거나 성전 결혼을 할 때 아버지가 함께 그곳에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딸이 성전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합당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 주십시오. 딸이 열두 살이 되면 성전에 자주 데리고 가서서 여러분의 조상과 다른 분들을 위한 대리 침례를 받게 해 주십시오. 딸들은 이런 추억을 영원토록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지금 대중문화는 축복사와 아버지로서의 여러분의 영원한 역할을 조금씩 파괴하고 손상시키며, 여러분이 맡은 가장 중요한 책임들을 축소시켜 버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책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sup>3</sup>

아버지는 가정과 아내,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과 영에 파괴드는 악에 대항하여 가족을 보호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 이러한 영향력은 가정에 매우 쉽게 스며들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활합니다]. 사탄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sup>4</sup>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은 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권 소유자는



정결합니다. 정결한 행동은 [여러분] 순수한 생각과 깨끗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덕이란 …… 신의 속성입니다. …… [그것은] 신성함과 유사합니다.” 정결 등을 포함한 청년 가치관에는 그리스도의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세상을 정결로 돌이키는 일에 동참해 주시도록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악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덕과 거룩함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 성신은 변하지 않는 네 동반자가 될 것이요.” 여러분이 보는 매체나 출판물에 유의하십시오. 정결한 여러분의 모습은 딸과 아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힘이며 도덕적인 용기인지 보여 주는 모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자녀의 삶에서 정결을 수호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여러분은 아내와 딸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순결함이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아버지는 딸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법적인 의미 이상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딸의 삶에서 늘 살아 있는 존재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표준을 지키며 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여러분이 딸의 성공과 행복을 바라고 꿈꾼다는 점을 알게 해주십시오. 딸을 접견하고 딸의 친구들에 대해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는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알아보십시오.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숙이라는 원리가 보호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려 주십시오. 영을 불리며 신성한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음악과 매체를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딸의 삶에서 적극적인 아버지가 되십시오. 십대인 딸이 데이트를 나가서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으면 찾아 나서십시오. 아마도 딸은 반항하면서 아버지가 자신의 사회 생활을 망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려 애쓴다는 점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남성이 아닙니다. 전세에서 보여 준 용맹함으로 여러분은 지도자가 되고 신권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지극한 신앙과 선행”을 보였으며 지금 이곳에서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신권으로 성임되었습니다. 몇 주 내로 저의 세 아들들은 자신의 딸들에게 이름을 주고 축복을 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녀 축복이 딸들이 생애에서 아버지에게서 받는 여러 신권 축복 중 첫 번째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딸의 인생에서 그런 축복들이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딸은 신권을 소중히 여기며, 미래에 이를 자신의 가정과 가족이 신권과 꼭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마음먹을 것입니다. 항상 “신권의 권리는 하늘의 권능과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통제”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여러분, 딸에게 여러분은 영웅입니다. 제 아버지도 저의

영웅이셨습니다. 저는 매일 퇴근하시는 아버지를 집 앞 계단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들어 올려 공중에서 한 바퀴 돌리신 후 아버지의 큰 신발 위에 제 발을 올려 놓게 하시고는 집 안으로 춤을 추며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일을 좋아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딸에게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제 아버지께 간증이 있으며 그분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셨기에 저도 구주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미망인들을 돕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휴가를 내어 홀로 되신 이웃 자매님의 집에 페인트 칠을 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에게서 페인트 칠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때가 우리 가족이 보낸 휴가 중 최고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딸과 시간을 함께 보낼 방법을 찾고 간증을 들려주는 것은 딸의 미래를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경에 나오는 에이비시는 아버지가 본 놀라운 시현으로 개종했습니다. 그 후 수년 동안 그녀는 간증을 드러내지 않고 간직하며 매우 사악한 사회에서도 의롭게 생활했습니다. 더는 간증을 마음에만 담아둘 수 없게 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에이비시는 집집마다 뛰어다니며 자신의 간증과 왕궁에서 목격된 기적에 대해 알렸습니다. 에이비시의 개종과 간증의 힘은 온 사회를 바꾸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녀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주께로 돌이[켰고] ……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였[으며]”<sup>10</sup> 그들의 아들들은 젊은 용사가 되었습니다!

찬송가에서 “하나님의 형제들이여 일어서라!”<sup>11</sup>라는 외침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을 소유한 남성, 즉 여러분에게 보내는 외침입니다. 모로나이 대장을 설명하는 이



말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강하고 용맹한 사람이라.  
…… 완전한 이해를 갖춘 사람이었으니  
……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견고한  
사람이었나니 ……

모든 사람이 과거에나, 현재에나, 장차  
언제까지나 모로나이와 같을진대, 보라,  
지옥의 권세들이 영원토록 흔들렸을  
것이요 …… 악마가 결단코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리라.”<sup>12</sup>

형제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청남  
여러분, “여러분이 지닌 고귀함에  
충실하십시오.”<sup>13</sup>

자, 여러분은 딸을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딸의 어머니를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성전으로 인도하고  
덕의 수호자가 되며 신권을 영화롭게  
행사하십시오. 아버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귀한 딸을 잠시 맡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결하며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딸들을 돌보고  
강화하며 정결한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구주께서 살아 계시기에 그분의 모든  
발자취를 따르라고 가르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 “Quotable Quotes” 중 Theodore Hesbrough에서 자주 인용되는 표현, *Reader's Digest*, Jan. 1963, 25; 또한 *Richard Evans' Quote Book*(1971), 11쪽 참조.
2. 니파이후서 5:27.
3.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4. A. Theodore Tuttle, “The Role of Fathers”, *Ensign*, 1974년 1월호, 67쪽.
5. 에즈라 테프트 벤슨, “주님의 기록하신 성품”,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59쪽.
6. 교리와 성약 46:33.
7. 교리와 성약 121:45~46.
8. 엘마서 13:3; 또한 13:2 참조.
9. 교리와 성약 121:36.
10. 엘마서 23:6; 또한 엘마서 19:16~17; 53:10~22 참조.
11. “Rise Up, O Men of God”, 영문 찬송가 323장.
12. 엘마서 48:11, 13, 17.
13. Harold B. Lee, “Be Loyal to the Royal within You”, *Speeches of the Year: BYU Devotional and Ten-Stake Fireside Addresses 1973*(1974), 101쪽.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이름의 중요성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이것이 바로 알려져야 할 교회  
이름으로 주님이 직접 정하신 교회 이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헤 일즈 장로님, 모두를 대신하여  
장로님께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함께하실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난 4월 연차 대회 이래로 저는  
이름의 중요성이란 주제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 사이에  
저희 집에는 증손자와 증손녀 여럿이  
태어났습니다. 미처 얼굴을 익힐 새도  
없이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하나  
하나가 모두 반가운 저의 가족입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부모가 선택한 이름을  
받았습니다. 생애 내내 그 이름으로  
알려지고 다른 사람과 구별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과 전 세계 여러  
종교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후기에 그분의  
교회에 이름을 분명하게 지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115편에서 그분은 친히  
교회에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마지막  
날에 나의 교회는 이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 일컬어질  
것임이니라.”(4절)

또한 몰몬경 시대에 베냐민 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나는 너희, 곧 생애가 끝날 때까지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은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를  
바라노라. ……

그리고 나는 이것이 범범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코 지워지지 아니할 이름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한 그 이름임을  
너희가 또한 기억하기 바라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범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그  
이름이 너희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라.”(모사이야서 5:8,11)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게 됩니다. 기꺼이 그분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분을 기억하겠다는  
마음을 나타내 보이는 상징으로 성찬을  
취하여 매주 침례의 효력을 새로이  
합니다.(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일한 독생자의  
이름을 받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 일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인식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하늘 아래에서 오직 구주의 이름밖에  
없습니다.(니파이후서 31:21 참조)

기억하시겠지만,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지난 4월 연차 대회에서  
교회 이름이 왜 중요한가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시에 따라 스스로를 몰몬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  
부릅니다.”(“성령의 인도를 받아”,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30쪽)

교회를 지칭하는 완전한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전에 나오는 계시와 제의회장단에서 1982년과 2001년에 보낸 서신 내용, 여타 사도들의 말씀을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 회원들은 이 교회 명칭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알려지도록 옹호하고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은 바로 이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바로 이 이름으로 다른 교회와 구별됩니다.

저는 회복된 주님의 교회에 왜 이렇게 긴 이름을 주셨는지를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길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는 문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놀랍도록 간결하고, 솔직하며, 숨김이 없다는 것을 곧바로 느끼실 것입니다. 어떻게 불과 몇 자 안 되는 말로 이보다 더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하나가 명확함을 더할 뿐만 아니라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단어들만 조합되어 있습니다. 첫 단어인 The는 세상 종교들 가운데 우뚝 솟은 회복된 교회의 독특한 지위를 시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말은 이곳이 그분의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물론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지 아니할진대 어찌 나의 교회이겠느냐? 만일 어떠한 교회가 모세의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모세의 교회일 것이요, 만일 교회가

어떠한 자의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어떠한 자의 교회일 것이라. 그러나 만일 교회가 내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내 교회니, 만일 그들이 내 복음 위에 세워졌으면 그러하리로다.”(제3니파이 27:8)

후기라는 말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풀 때 세우신 교회와 같은 교회이지만 후기에 회복되었다는 점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배교, 또는 배도가 있었으며, 그 때문에 그분의 참되고 완전한 교회가 우리 시대에 회복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성도라는 말은 그곳에 속한 회원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쓰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언젠가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시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란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성약을 맺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쓰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구주께서 그분의 교회에 붙여 주신 이름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알려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구주이자 구속주임을 믿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분은 속죄하셨고,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베냐민 왕이 백성에게 했던 말을 오늘 다시 한 번 모두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그 이름을 항상 너희 마음에 기록하여 간직할 것을 기억하라”(모사이야서 5:12)

우리는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 어느 곳에서나”(모사이야서 18:9)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를 따르며 누구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사람들에게 기꺼이 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이 일을 사랑과 간증의 정신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그분 교회 회원임을 간단하고 분명하게,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밝히며 구주를 따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후기 성도, 이 후기에 그분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사람이나 단체에는 흔히 별칭이 붙습니다. 별칭은 본명을 줄인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 또는 외모나 성격, 특성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비록 별칭이 실제 이름과 같은 자격이나 중요성을 띠지는 않더라도 적절하게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고대에도 그리고 현대에도 주님의 교회를 부르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천명했기 때문에 기독교인(Christian)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 이름은 처음에는 비방하는 자들이 모욕을 주려고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영예로운 이름이 되었으며, 우리는 기독교회로 불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인 몰몬경을 믿기 때문에 몰몬이라고 불려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 분파들을 형성한 이들까지 아울러서 그 별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행위는 혼란을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일부다처주의자들이나 기타 근본주의자 단체들과 혼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몰몬이란 단어 사용을 자제하려 하는 언론 매체에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자칭 몰몬 근본주의자라 주장하는 집단이나 우리 이름을 본 딴 조직들을 포함한 일부다처주의자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몰몬이라는 말은 교회의 정식 이름도 정확한 명칭도 아닙니다. 원래 그것은 교회 초기, 박해를 받던 시절에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아닌 회원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경우에 수용될 수 있는 별칭이 되었습니다.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라면 몰몬이라는 용어 사용을 금할 필요는 없겠으나 될 수 있는 한 교회의 정식 명칭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계속 강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몰몬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그 말이 그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임무를 수행해 온 오랜 세월 동안 저는 몰몬 교회 사람이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입니다. 우리가 고대 미 대륙의 선지자이자 지도자인 몰몬의 이름을 딴 책,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인 몰몬경을 믿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몰몬이라고도 불립니다.” 언제나 이 대답은 무리 없이 받아들여졌으며, 사실 그것은 이 후기에 회복된 충만한 복음을 설명할 기회가 되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대로 단순히 정식 교회 명칭을 사용하여 대답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명칭 전부를 곧바로 사용할 수 없다면 최소한 “저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다닙니다.”라고 말한 다음, 나중에 ‘후기 성도’에 관해 설명하십시오.

몇몇 분들은 인터넷 사이트인 Mormon.org(몰몬 이름을 사용한 교회 공식 웹사이트 중 하나-옮긴이)나 교회가 주도하는 여러 미디어 캠페인은 어떻게 된 것이냐며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 회원을 통칭하여 몰몬이라 부르는 것이 적절할 때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와 믿음이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해 알아보려 할 때 몰몬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검색합니다. 하지만 막상 Mormon.org에 들어가면 올바른 교회 명칭이 설명되어 있으며, 사이트 화면마다 그 이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보려 하거나 우리 웹사이트에 접속하려 할 때 정식 교회 명칭을 입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비록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회원들은 될 수 있는 한 교회의 정식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 내에서도 교회 활동, 또 일상에서 대화를 할 때에도 우리가 알려져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이며, 그것은 주께서 직접 정하신 것임을 분명히 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몰몬이 우리 교회 회원을 지칭한다는 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몰몬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대다수 사람들이 아직도 잘 모릅니다. 허리케인이나 지진, 홍수나 기근과 관련하여 우리가 전 세계에서 펼치는 도움의 손길 활동에 관한 기사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보더라도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인도주의 노력을 기독교 조직에서 하는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라 말한다면 틀림없이 사람들은 우리가 구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물론이라는 이름을 들 때 우리가 계시 받은 그 이름을 떠올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 우리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제일회장단은 2001년 2월 23일자 서신에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계시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사용하는 문제는 …… 온 세상에 구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의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일회장단은 회원들이 교회 이름을 사용할 때, 가능하면 이름 전체를 사용하시도록 당부합니다.”

1948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대회를 떠나면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여러 종파들과 어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교회는 이 세상에 단지 하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Conference Report, Oct. 1948, 167쪽)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대회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간증이 전해지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그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거룩한 곳에 서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그런 방식을 포함하여, 하나님과 교통해야만 삶에서 부딪히는 폭풍우와 시험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여러 훌륭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건강이 회복되신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과 다시 함께하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우리는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생각해 오면서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생각과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는 동안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 지상에 산 지도 이제 84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시대를 살아 왔는지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찰스 린드버그가 단발 엔진에 좌석이 하나인 단엽비행기(날개가 양쪽에 하나씩 있는 비행기-오킨이)를 타고 세계 최초로 뉴욕에서 파리까지 대서양을 무착륙 단독 비행에 성공한 그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 이후 84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인간이 달에 갔다 온 지도 꽤 오래 되었습니다. 어제의 공상 과학 소설이 실제로 오늘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시대의 기술 덕에 너무도 빠르게 변모하고 있어 좀처럼 따라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때로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다이얼식 전화기와 수동 타자기를 기억하는 분들에게 현대 기술은

감탄을 자아내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사회의 도덕 기준 역시 빠르게 변해 왔습니다. 한때 적절치 못하고 부도덕하다고 여겨지던 행동이 이제는 용인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를 받아들일 만한 행동으로 간주합니다.

최근에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영국 랍비들의 수장인 조너던 삭스가 쓴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중 한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1960년대에 거의 모든 서구 사회에서 도덕적 변혁이 일어나 자제력이라는 전통적 윤리가 송두리째 버려졌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뿐이라고 비틀즈는 노래했다. 그러나 유대-기독교적 도덕률은 버려졌다. 대신 좋으면 무엇이든 하라는 말이 그 빈 자리를 차지했다. 십계명은 창의적인 열 가지 제안으로 고쳐지기 시작했다.”

랍비 삭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금융자본을 남용해 온 것처럼 무모한 방종으로 도덕자원을 남용해 왔다. …… 종교가 [세계의] 많은 곳에서 구시대의 유물이 되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으니 사라, 씨라, 입오라, 과시하라는 문화에 저항하는 목소리는 찾을 수가 없다. 도덕은 진부하고, 양심은 겁쟁이나 쓰는 말이라는 인식이 횡행하며 가장 중요한 계명은 ‘너는 들리지 말지어다’가 되어 버렸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애석하게도 랍비가

한 이 말은 우리 주변 세상을 대체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여 머리를 쥐어짜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고 걱정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해야 하며, 도덕이란 진부한 것이 아니고, 양심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있으며, 자기 행동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압니다.

비록 세상은 변했으나 하나님의 율법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십계명은 말 그대로 계명이지만 어떤 제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셨을 때처럼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귀를 기울이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메아리 쳐 들립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이름을  
명령되게 부르지 말라 .....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  
네 부모를 공경하라 .....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sup>2</sup>

우리의 행동규범은 분명합니다. 타협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십계명뿐 아니라 구주께서 지상 성역을 베푸실 때 주신 산상수훈에도 나옵니다. 또한 주님의 모든 가르침과 현대에 계시된 말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한결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원에서 모든 영원까지 변하지 아니하[신대]”<sup>3</sup>라고 선지자 몰몬은 말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듯한 이 세상에서 불변하시는 그분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안전한 닻이십니다. 떠나려가자 않도록 그 닻에 우리를 단단하게 동여맨다면 알지도 못하는 바다로 휩쓸려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살아가는 듯 보일 때도 있고, 우리가 고수하는 행동 규범 때문에 생활에 제한을 받는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구주를 따르고 계명을 지킬 때 느끼는 영보다 인생에 더 큰 기쁨을 주고 영혼에 더 큰 평화를 주는 것은 없음을 선언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활동에는 영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sup>4</sup> 만약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 중 누구라도 그 “육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에서 너무나도 멀리 벗어나 버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표준에 맞지 않는 어떤 것도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영생하겠다는 가장 큰 소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여전히 폭풍우는 이따금씩 우리 집 문을 때릴 것입니다. 그런 폭풍우는 이 필멸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삶의 중심에 두고 우리 마음에 구주를 향한 사랑이 머문다면 폭풍우에 대처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안에서 배우며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sup>5</sup>”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면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제3니파이 18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구주는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유혹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여야 하느니라. 이는 사탄이 …… 너희를 갖기 원함이나라.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여야 하느니라.

또 너희가 받을 줄로 믿으며, 옳은 것으로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보라, 너희에게 주어지리라.”<sup>6</sup>

저는 열두 살 무렵에 기도의 힘에 대한 간증을 얻었습니다. 저는 얼마간 돈을 모으려고 열심히 일하여 5달러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대공황 시절이라 5달러는 특히 열두 살 소년에게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모두 합쳐 5달러에 달하는 동전을 아버지께 모두 드리고, 대신 5달러짜리 지폐를 받았습니다. 그 5달러로 무언가를 사려고 계획했다는

것은 분명한데,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은 그게 무엇이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돈이 제게 무척 중요했다는 것만 기억날 뿐입니다.

당시 저희 집에는 세탁기가 없었기에 어머니는 매주 빨래를 세탁소로 보내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삼 일이 지나면 우리가 ‘젖은 빨래’라고 불렀던 빨래 더미가 집으로 배달되었고, 어머니는 그것을 뒤뜰 빨랫줄에 널었습니다.

저는 5달러 지폐를 청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두었는데,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지 않은 채 청바지를 세탁소로 보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뒤늦게 깨닫고는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세탁소에서 빨래를 빨기 전에 통상 주머니를 확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이 발견되지 않고 넘어간다면, 세탁 중에 거의 틀림없이 돈이 빠져 나올 테고, 돈을 주운 세탁소 직원은 설사 돌려줄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 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5달러를 찾을 가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청바지 주머니에 돈을 넣어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돈을 찾지는 못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그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돈을 원했고 또한 그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저는 매우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려 젖은 빨래가 올 때까지 호주머니에 있는 제 돈이 무사할 수 있도록 지켜 달라고 간곡히 기도드렸습니다.

기나긴 이틀이 지나 젖은 빨래를 갖다 줄 배달 트럭이 올 즈음, 저는 창가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트럭이 멈춰 서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젖은 빨래를 집에 내려놓자마자 저는 제 청바지를 움켜쥐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 결국 돈을 잃어버렸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젖은 5달러 지폐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돈을 꺼내면서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마음에서 솟아나는 깊은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래 전 그날 이후로 제 기도는 수없이 응답되었습니다.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교통하지 않고 보낸 날이 없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이 없다면 저는 말 그대로 길 잃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신 분은 그 목표를 향해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과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상에 사는 동안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한 영감과 인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꺼이 선물로 주십니다. 이 얼마나 값진 보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감을 통해 저와 교통하실 때마다 저는 언제나 겸손해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그 영감을 인식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법을 배웠으며, 그런 영감을 자주 받았습니다. 1987년 8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성전 헌납에서는 상당히 극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에스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이 첫날 모임, 즉 헌납식 두 모임을 함께 하신 후 집으로 돌아가셨기에 남은 모임은 제가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에는 프랑크푸르트 성전 지역에 사는 네덜란드 회원들을 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뛰어난 네덜란드 지도자들 중 한 분인 피터 모릭 형제님과 각별한 친분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저는 모릭 형제님을

불러 네덜란드 회원들에게 말씀하게  
해야 한다는 분명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 연사로서 말입니다. 그날  
아침에 성전에서 모리크 형제님을 보지  
못했기에 저는 지역 회장인 카를로스  
이 아사이 장로님에게 그분이 모임에  
참석했는지 묻는 쪽지를 보냈습니다.  
모임을 시작하려고 막 일어나려는 순간,  
아사이 장로님으로부터 회신이 왔는데  
모리크 형제님은 다른 곳에 일이 있어  
참석하지 않았으며, 헌납 모임에는 다음날  
미군 스테이크 회원들과 함께 참석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을 환영하고 순서를  
안내하려고 연단에 섰을 때, 저는  
피터 모리크 형제님을 첫 번째 연사로  
발표해야 한다는 틀림없는 영감을 다시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사이 장로님께서서  
모리크 형제님은 분명히 성전 안에 없다는  
전갈을 받았기에 그것은 제 모든 직관과는  
상반되는 영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영감을 신뢰하며 합창단이 부를 곡목과  
기도할 사람을 발표한 다음, 첫 연사는  
피터 모리크 형제라고 알렸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며 아사이 장로님을  
힐끗 보니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제가 모리크  
형제를 첫 번째 연사로 발표했을 때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쪽지를 분명히  
읽었을 텐데 성전에 있지도 않다는  
걸 알면서도 왜 모리크 형제를 연사로  
발표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던 그 시각에  
피터 모리크 형제님은 포스트트라세에  
있는 지역 사무실에서 다른 모임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모임이 진행되던 중에  
그는 갑자기 당시 지역 대표였던 호크스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저를 성전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죠?”

조그만 스포츠카를 다소 빨리  
모는 분으로 알려진 호크스 장로님이



대답했습니다. “10분 내로 모셔다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왜 성전에 가야 하죠?”

모리크 형제님은 성전에 왜 가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꼭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합창단이 장엄하게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저는 어느 순간 피터 모리크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며 둘러보았으나  
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잘되리라는  
감미롭고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모리크 형제님은 여전히 왜 성전에 와야  
하는지를 알지도 못한 채, 개회 기도가  
끝날 무렵에 성전 현관문에 들어섰습니다.

허겁지겁 들어선 그는 모니터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으며 “이제 피터 모리크  
형제님의 말씀을 들겠습니다.”라는 제  
발표를 들었습니다.

아사이 장로님께 놀라움을 안기며 피터  
모리크는 곧장 방 안으로 들어와 연단에  
섰습니다.

모임이 끝나고서 저는 모리크 형제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뿐 아니라  
모리크 형제님도 느꼈던 그 영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잊지 못할 경험은  
그런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합당해야  
하며, 영감이 왔을 때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에게 알려 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프랑크푸르트 성전 헌납식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분의 종 피터 모릭 형제의 강력하고 감동적인 간증을 들려 주고자 하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그런 방식을 포함하여, 하나님과 교통해야만 삶에서 부닥치는 폭풍우와 시험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sup>7</sup>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분의 영을 느끼며, 소망과 용기로 의롭게, 강하고 굳건하게 서며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않게]”<sup>8</sup> 될 것입니다.

변화의 바람이 주위에서 소용돌이치고 사회의 도덕성이 눈 앞에서 와해되어 가는 이 시기에 주님이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 주신 소중한 약속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sup>9</sup>

우리가 그 축복을 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주

- Jonathan Sacks, “Reversing the Decay of London Undone,” *Wall Street Journal*, Aug. 20, 2011, online, wsj.com.
- 출애굽기 20:3~4, 7~8, 12~17.
- 모로나아서 8:18.
- 고린도전서 2:14.
- 이사야 32:17.
- 제3니파이 18:18~20.
- 교리와 성약 88:63.
- 교리와 성약 87:8.
- 이사야 41:10.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성약

자신이 성약의 자녀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최** 근 러시아 모스크바에 첫 번째 스테이크<sup>1</sup>를 조직하라는 임무 지명을 받은 지 일주일도 지난 후에 샹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한 지방부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러시아 교회를 위해 애쓴 초기 선교사들과 지역 지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저는 바체슬라프 에피머프라는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분은 러시아인 개종자 중 처음으로 선교부 회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아내는 맡은 임무를 훌륭히 완수하셨습니다. 하지만 선교 사업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애석하게도 에피머프 회장님은 갑작스레 세상을 떠셨습니다.<sup>2</sup> 그때가 향년 52세였습니다.

이 개척자 부부에 대해 말씀하다가 저는 에피머프 자매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지를 물어보아야 한다는 성신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저 멀리 뒤쪽 자리에서 한 자매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마이크가 있는 단상으로 나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바로 그분이 갈리나 에피머프 자매님이셨습니다. 자매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주님과 복음, 회복된 교회에 대한 간증을 전하셨습니다. 에피머프 회장님 내외는 성전에서 인봉되었습니다. 자매님은 남편과 자신이 영원히 함께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매님은

회장 이편에서, 남편은 회장 저편에서 여전히 서로에게 선교사 동반자였습니다.<sup>3</sup> 자매님은 기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거룩한 성전 성약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충실한 부부가 성약을 맺고 지키고 영화롭게 함으로써 영원한 결합이라는 의로운 결실을 얻게 되었다는 점을 온 마음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거룩한 성약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계약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는 대개 두 사람, 혹은 둘 이상인 당사자 사이에 맺는 합의를 말합니다. 하지만 종교 용어로서의 성약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는 성스러운 약속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사람은 그 조건을 받아들일지 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약에 따른 조건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성약에 연계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sup>4</sup>임을 압니다.

전 인류사에 걸쳐 하나님은 자녀들과 성약을 맺으셨습니다.<sup>5</sup> 구원의 계획 전반에 걸쳐 성약을 맺어오셨기에





성약은 그분의 충만한 복음 중 일부분을 차지합니다.<sup>6</sup> 예를 들어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 구주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으며<sup>7</sup> 그 대신 자녀들에게는 그분의 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sup>8</sup>

성경에는 성약의 자녀인 구대륙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sup>9</sup>

물론경에도 성약의 자녀인 신대륙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sup>10</sup>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 주셨습니다. “보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요, 또 아버지께서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성약에 속한 자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네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sup>11</sup>

구주께서는 성약의 자녀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너희를 위하여 나를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 주시려고 나를 보내사 너희 모든 자로 하여금 각각 그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성약의 자손임으로 말미암음이라”<sup>12</sup>

하나님과 아브라함<sup>13</sup> 사이에 맺어진 후 이삭<sup>14</sup>과 야곱<sup>15</sup>에게 재차 확인되었던 그 성약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성약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약속이 포함됩니다.

-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다.
- 아브라함의 자손은 셀 수 없이 많아지고 영원히 증식하며 신권을 소유할 자격을 받을 것이다.
-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 아브라함의 자손은 특정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축복받을 것이다.<sup>16</sup>
- 그 성약은 “천 대”<sup>17</sup>에까지 영원할 것이다.

약속 중 일부는 이미 성취되었으며, 일부는 아직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경 초반에 나오는 예언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런 연유로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후일에 이루어질 성약을 가리키면서, 우리의 자손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집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이니, 그 성약은 곧 주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라. 이르시되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나이다.”<sup>18</sup>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약 600년 전부터 선지자들은 아브라함의 성약이 이 후기에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주님은 후기에 모습을 드러내셨고, 아브라함의 성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씨와 자기 허리의 열매에 대한 약속을 받았나니 - 너 곧 나의 종 조셉은 그의 허리에서 났느니라 ……

이 약속은 또한 너희 것이기도 하니, 이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sup>19</sup>

새롭게 된 이 약속과 더불어 우리는 고대 백성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신권과 영원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충만함을 받고, 신권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축복인 영생<sup>20</sup>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실제 아브라함의 자손도 있고 입양되어 가족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sup>21</sup> 우리가 주님을 찾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모두 함께 약속된 축복을 받습니다.<sup>22</sup>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성약에서 얻는 축복을 잃게 됩니다.<sup>23</sup> 주님의 교회는 우리를 돕기 위해 축복사의 축복을 주는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뿐 아니라 자신의 현재가 과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게 되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혈통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sup>24</sup>

성약을 맺은 형제들은 신권에 속한 맹세와 성약<sup>25</sup>을 받도록 자격을 갖춘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이 두 신권을 얻고 [너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영으로 성결하게 되어 몸이 새로워짐이라.”<sup>26</sup>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합당하게 신권을 받는 형제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sup>27</sup>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분이 소유하신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sup>28</sup> 세상에 있는 의로운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이 이 맹세와 성약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성약이 성취되도록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축복하도록 예임되고 준비되었습니다.<sup>29</sup> 바로 그 때문에 신권 의무에 선교 사업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약 4,000년 동안 고대하고 준비해 온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세상 만방에 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약속된 이스라엘의 집합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이 집합할 이 위대한 시기에 선교사로서 합당하게 봉사하는 우리와 우리의 아들들에게 의지하시며 특히 선교사로서 봉사하는 우리의 딸들에게 매우 감사해 하십니다.

주님이 성약의 이스라엘 자녀를 모으기 시작하셨음을 보여 주는 실질적인

표적은 물론경입니다.<sup>30</sup> 우리 시대를 위해 기록된 물론경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세우신 바, 그들을 그들 기업의 땅으로 회복하실 것에 관한 성약이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줄 알지니라. …… 보라, 주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속한 그의 백성에게 세우신 그의 성약을 기억하실 것임이라.”<sup>31</sup>

참으로 주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경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물론경의 목적 중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 확신시키려는 것”<sup>32</sup>입니다. 물론경은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 알도록 권유합니다. 물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입니다.

성약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계획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성스럽고도 중요한 성약을 맺음으로써 얻게 됩니다. 브리검 영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후기 성도들은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맺습니다. ……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지지하겠다는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맺습니다.”<sup>33</sup> 그들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성약을 지킵니다.

침례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sup>34</sup> 또한 우리는 성찬을 취하면서 성약을 새롭게 하며 기꺼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려는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로서 입양되며 서로에게 형제자매가 됩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의 삶에서 그분은 아버지가 되십니다.<sup>35</sup> 궁극적으로 우리는 상속자로서 성전에서 함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 자손에게 약속된 것처럼 영원한 가족을 얻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sup>36</sup> 따라서 해의 왕국의 결혼은 승영의



성약입니다.

자신이 성약의 자녀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알게 됩니다.<sup>37</sup> 그분의 율법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sup>38</sup>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sup>39</sup> 성약을 굳게 지키려는 자녀들은 시련이 닥쳐와도 충실하게 남습니다. 그러한 교리가 우리 마음 깊이 각인될 때, 사망의 쏘는 고통은 수그러들며 우리의 영적인 힘은 강건해집니다.

이생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찬사는 성약을 지키는 자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받을 보상은 이생과 다음 생에 걸쳐 돌아올 것입니다. 경전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복되고 행복한 상태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보고자 하노니, 이는 보라, 그들은 …… 모든 일에 복됨이요, 만일 그들이 끝까지 충실히 견디면 하늘에 영접되나니 …… 하나님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하게 되리라.”<sup>40</sup>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그분의 교회가 회복되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 시대를 위한 주님의 선지자이십니다. 성약의 충실한 자녀로서 우리는 영원토록 축복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러시아 모스크바 스테이크는 2011년 6월 5일 일요일에 조직되었다.
2. 바체슬라프 에피머프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으며 2000년 2월 25일에 사망했다.
3. 교리와 성약 138:57 참조.
4. 교리와 성약 130:21.
5. 예를 들어 대홍수가 끝난 후, 주님은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라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창세기 9:14~15, 영어 성경 각주 15b; 조셉 스미스 역 창세기 9:20)라고 말씀하셨다.
6. 교리와 성약 66:2; 133:57 참조.
7. 요한복음 3:16 참조.
8. 아브라함서 3:25 참조.
9. 사도행전 3:25.
10. 제3니파이 20:26 참조.
11. 제3니파이 20:25.
12. 제3니파이 20:26.
13. 창세기 17:1~10, 19; 레위기 26:42; 사도행전 3:25; Bible Dictionary, “Abraham, Covenant of” 참조.
14. 창세기 26:1~5, 24 참조.
15. 창세기 28:1~4, 10~14; 35:9~13; 48:3~4 참조.
16. 주 13~15의 성구 참조.
17. 신명기 7:9; 역대상 16:15; 시편 105:8.
18. 니파이전서 15:18.
19. 교리와 성약 132:30~31. 주님은 또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땅의 족속에 관하여 아브라함에게 이른 것같이, 잠으로 그와 같이 내가 나의 종 조셉에게 이르노니,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교리와 성약 124:58)
20. 교리와 성약 14:7 참조.
21. 사도행전 10:34~35 참조.
22. 출애굽기 19:5 참조.
23.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하시니라.”(교리와 성약 82:10)

24. 1823년 9월 21일, 이 성약의 개념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처음 계시되었다. 당시 천사 모로니이는 이스라엘 지파의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들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기 위해 하늘의 사자로서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선포했다.(교리와 성약 2:1~3 참조)
25. 교리와 성약 84:33~34, 39~40 참조.
26. 교리와 성약 84:33.
27. 교리와 성약 84:35, 37 참조.
28. 교리와 성약 84:38 참조.
29. 엘머서 13:1~9 참조.
30. 제3니파이 29장 참조.
31. 제3니파이 29:1, 3.
32.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 표제지.
3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1997), 62쪽.
34. 교리와 성약 20:37 참조.
35.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니파이후서 25:26)
36. 갈라디아서 3:29; 교리와 성약 86:8~11 참조.
37. 이 개념은 우리의 직접 관련이 있다. “메시아가 육신으로 사람의 자녀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나서 많은 세대가 지난 후, 그때 메시아의 충만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나아올 것이요, 또 이방인들로부터 우리 자손의 남은 자들에게 나아오리라 함이라 - 또 그 날에 우리 자손의 남은 자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집에 속한다는 것과 그들이 주의 성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이다. 또 그때 그들이 그들의 선조들에 대해 알게 되어, 그들의 선조들에 대한 지식과 또한 그들의 구속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바 그의 복음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구속주와 그의 교리의 요점들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되어, 그들이 어떻게 그에게 나아와 구원받아야 할지 알 수 있게 되리이다.”(니파이전서 15:13~14)
38. 이사야 55:3; 예레미야 31:33; 로마서 2:15; 고린도후서 3:2~3; 히브리서 10:16 참조.
39. 시편 95:7; 100:3; 예레미야 24:7; 31:33; 32:38; 에스겔 11:20; 37:23, 27; 스가랴 8:8; 고린도후서 6:16; 히브리서 8:10 참조.
40. 모사이사서 2:41.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이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하시는 구주이십니다. 이는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마태복음  
22:42) 지상 성역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저는 우리 후기 성도들과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독교인 대부분에게는 성경이  
친숙한 경전이기에 때문에 성경을 주로  
인용하겠습니다. 뜻이 모호하여  
기독교인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성구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는 현대 경전, 특히 몰몬경을  
참조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과 더불어 그렇지 않은 분들을  
향해서도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오전에  
태드 알 콜리스터 장로님이 가르치셨듯이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로 칭송하면서도  
그분의 신성을 인정하는 일은 주저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려고  
지상에 오셨는지에 대해 직접 가르치신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독생자

예수님은 자신이 독생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17)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확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변형의 산에서  
일어난 성스러운 사건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마태복음 17:5)

또한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한복음 14:7~9)

후에 사도 바울 역시 아들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히브리서 1:3;  
또한 고린도후서 4:4 참조)을 지니셨다고  
묘사했습니다.

## 창조주

사도 요한은 “말씀”이라고 칭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한복음 1:2~3)라고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만물의 창조주가  
되었습니다.

##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백성에게 성역을  
베푸실 때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인  
여호와라고 가르치셨습니다.(요한복음  
8:58 참조) 후에 부활하셨을 때에도  
주님은 미대륙 백성에게 성역을 베푸시며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라.

……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온  
땅의 하나님이며”(제3니파이 11:10, 14)

## 그분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 해 전, 어느 스테이크 대회에서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다는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교회로 돌아오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그래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격려하기  
위해 “구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을 생각해 보면, 교회로 돌아와서  
그분을 경배하고 섬겨야 할 이유가 많지  
않은가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그분께서 제게 해 주신  
게 뭐죠?”라고 되물었습니다.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저는 제 간증과 더불어 그분이 친히 하신 말씀을 대담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 세상의 생명

성경에 실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한복음 10:10) 그분은 나중 예미 대륙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제3니파이 11:11)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부활을 통해 우리 모두를 다시 살게 해 주셨기에 세상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은 비단 이생에만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0:28; 또한 요한복음 17:2 참조)

### 세상의 빛

예수님은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요한복음 8:12)라고 가르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한복음 14:6)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이생의 길을 밝혀 주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을 보여 줍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길이며, 빛이십니다.

### 아버지의 뜻을 행하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지상의 부모님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누가복음

2:4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에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요한복음 6:38; 또한 요한복음 5:19 참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또한 마태복음 11:27)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한다면 그분께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태복음 7:21)라고 가르치시며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태복음 7:22~23)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늘 왕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단지 주님의 이름을 내걸고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21절) 하늘 왕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 위대한 모범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몇 번이고 자신을 따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요한복음 10:27)

### 신권 권능

주님은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신권 권능을 주셨습니다.(마태복음 10:1 참조)



그분은 선임 사도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태복음 16:19; 또한 마태복음 18:18 참조)

누가는 “주께서 따로 칠십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누가복음 10:1)고 기록했습니다. 후에 이 칠십인들은 기뻐하며 돌아와 예수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누가복음 10:17)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신권 권능에 대한 증인입니다.

### 성신의 인도

예수님은 지상 성역을 마치실 무렵 사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한복음 14:26)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요한복음 16:13)

### 계명으로 인도하시다

예수님은 계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니파이인들에게 교리에 관해 더는 다투지 말라고 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분쟁의 아비인 악마에게 속한 자임이라,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노여움으로 다투게 하는도다.

보라, 노여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대적하게 하는 이것은

나의 교리가 아니요, 그러한 일을 없이 하는 이것이 나의 교리이니라.”(제3니파이 11:29~30)

### 영생에 집중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이 아닌 그분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에 관해 위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세상의 양식과 영원한 양식의 차이를 설명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요한복음 6:27) 구주는 자신이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려고 여호와께서 내려 주신 만나 등 썩는 양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떡에만 의지한 사람들은 죽었다고 가르치셨습니다.(요한복음 6:49 참조) 이와는 대조되게 그분이 주시는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요한복음 6:51)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이 말씀이 “어렵[다]”고 했으며,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습니다].”(요한복음 6:60, 66절) 그들은 일찍이 주께서 “먼저 그의 나라[를] …… 구하라”(마태복음 6:33)라고 하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자칭 기독교인이라 공연하는 일부 사람들은 세상의 것, 다시 말해서 세상에 사는 동안 생명을 지명해 주시는 하나 영생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들에 더 이끌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도 말씀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 속죄

구주의 지상 성역은 부활과 세상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절정에 이릅니다.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한복음 1:29)라고 예언했습니다. 후에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태복음 20:28)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축복하신 포도주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마태복음 26:28)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니파이인을 방문하신 주님은 백성들에게 나아와서 옆구리에 있는 상처와 손과 발의 못 자국을 만져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온 땅의 하나님이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였음을 알게 하기 위함”(제3니파이 11:14)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어서 기록에는 군중이 “예수의 발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였느니라.”(17절)라고 나옵니다. 이 같이 중국에는 온 세상이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더 나아가 그분의 속죄에 관한 귀중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구주의 가르침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있고 그분의 사명이 훌륭하게 설명된 물문경에는 그분의 가르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십자가 위에 들리게 하심ियो ……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

……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하리라.

또 …… 누구든지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충만하게 될 것이요, 만일 그가 끝까지 견디면, 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설 그 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죄 없다 할 것이라

또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 그러므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함과 끝까지 충실함으로 인하여 나의 피로 그 옷을 뻥 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제3니파이 27:14~16, 19)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우리는 죄에서 비롯된 영적 죽음을 극복하고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영생이라는 축복을 누릴 기회를 얻습니다.

### 과제와 간증

예수님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마태복음 22:42)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인들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린도후서 13:5)라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에 대해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충성심은 어디를 향합니까? 날 에이 맥스웰 장로님이 인상 깊게 표현하신 기독교인들처럼 시온으로 거주지를 옮기고서도 바벨론에 별장을 계속 두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교회와 복음에 속하는 백성이므로 바벨론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그곳 시민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의 의를 세우기를 구[해야]”(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마태복음 6:38)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이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며,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하시는 구주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며, 제가 직접 이를 알게 되었듯이 여러분도 직접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성신이 이 진리를 제게 알려 주었으며,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단지 소망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께서는 소망에 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태복음 7:7) 또한 순종에 관해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한복음 7:17) 저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Neal A. Maxwell, *A Wonderful Flood of Light*(1990), 47쪽 참조.



매튜 오 리차드슨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2보좌

# 영의 방법으로 가르칩시오

우리 모두는 교사입니다만, 모든 진리를 가르치고 증거하는 진짜 교사는 성신이라는 점을 우리는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오래 전에 선교사 훈련원에서 동반자와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할머니, 저 사람들 진짜 선교사예요?”라고 묻는 아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할머니 손을 잡고서 저와 제 동반자를 가리키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가 보였습니다. 저도 웃으면서 손을 내밀고 아이 눈을 응시하며 “안녕, 나는 리차드슨 장로이고 우리는 진짜 선교사야.”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진짜 선교사들을 만나서 신이 났는지 저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구주와 가족, 그 아이가 기대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저는 진짜 선교사처럼 보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가르치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귀환 후, 선교 사업은 마쳤지만 그 영향력은 여전하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지만 선교사로 보낸 그 2년이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시절이었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도 마음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은 뜻밖에도 그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 마음속에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 진짜

신권 소유자예요?” “할머니, 저 사람 진짜 남편이에요? 진짜 아버지예요?” 또는 “할머니, 저 사람 진짜 교회 회원이에요?”

저는 삶의 어떤 측면에서든 진짜가 되는 것의 관건은 배움을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배웠습니다. 실제 삶에서는 실질적인 학습이 필요한데, 이것은 실질적인 가르침에 달려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책임은 교사로서 정식으로 부름 받은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가족 구성원, 교회 지도자, (청소년 및 어린이를 포함하여) 교회 회원이면 누구나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사입니다만, 모든 진리를 가르치고 증거하는 진짜 교사는 성신이라는 점을 우리는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신의 역할을 빼앗아서 혼자 모든 것을 하려 하고, 또는 영을 공손히 초대하면서도 그저 보조하는 역할만 맡기거나, 아니면 가르치는 일은 모두 영이 해야 한다고 믿으며 사실상 ‘즉흥적으로 가르칩니다.’ 부모와 지도자, 교사는 모두 “영[으로]”<sup>2</sup>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영이 임하기 전’이나 ‘영이 물러간 후’가 아니라 ‘영으로’ 가르쳐야

영이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모로나이의 말씀을 음미하면 ‘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짜 교사인 성신을 대신하거나 그 영향력을 약하게 하거나 떠나게 하지 않고서 말입니다. 모로나이는 성도들의 모임이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sup>3</sup> 인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영이 함께하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성신에 “따라” 행한다는 말은 성신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우리가 가르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신이 가르치는 방법에 따라 가르치면 성신은 제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가르치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가르칠 때 성신의 방법을 따르는 중요성을 실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자녀들과 함께 오리건 주에 있는 3,157미터 높이인 사우스시스터 산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출발 후 몇 시간이 지나서 저희는 45도로 길게 경사진 조그마한 화산암 자갈길에 들어섰습니다. 정상에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걸어나갔지만 계속 발이 자갈에 푹푹 빠지면서 뒤로 조금씩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덟 살 난 딸과 함께 잠시 멈추어 쉬는 동안 열두 살 된 아들은 서서히 선두로 나아갔습니다. 딸 아이는 지친 데다가, 오빠를 따라 정상에 오를 수 없다는 생각에 실망하고 속상해했습니다. 딸을 업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체력이 따라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바위에 앉아서 상황을 판단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딸에게 제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꼭 붙잡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걸음을 땔 때마다 제가 디딤된 곳에 재빨리 발을 내딛으라고 딸아이에게 일렀습니다. 아이는 제 동작을 그대로 따라 하면서 제 뒷주머니를 단단히 붙잡고 매달린 채 움직였습니다. 결국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그 길을 걸어 올라 드디어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딸은 만족스러워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제 생각에 딸과 아들이야말로 진정한 등산가였습니다.

제 딸아이는 부지런히 노력하고 제가 산에 오르는 방법에 따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발을 옮길 때마다 동시에 발을 옮기며 호흡을 맞추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온 힘을 다 낼 수 있었습니다. 이 교훈은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 가르칠 때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성신의 방법에 따라 가르친다면 영은 우리에게 힘을 보태 주고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 짐을 엄두에 두고 “영의 역사하심”과 영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이 두 가지 기본 요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성신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우리 각자를 가르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직접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필요와 상황, 발전 정도가 다른데, 성신은 우리 각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꼭 알고 행해야 할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신이 “모든 것의 참됨”<sup>4</sup>을 가르칠 때 모든 진리를 한꺼번에 다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영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sup>5</sup> 진리를 가르칩니다.

영의 방법을 따라 가르치는 사람은 공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압니다. 그렇기에 교재 내용을 모두 가르치거나 해당 주제에 대해 자신이 배운 것을 모두 가르치고픈 충동을 자제하고 가족이나 반원들이 알고 행해야 할 것들에 집중합니다. 영이 가르치는 방법에 따라 가르치는 부모와 지도자, 교사는 진정한 가르침에는 단순히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 외에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빨리 간파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일부터 잠깐 멈추어 경청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판단합니다.<sup>6</sup> 그렇게 하면 학습자와 교사 모두는 성신으로부터 무엇을 말하고 어떤 일을 행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sup>7</sup>

둘째, 성신은 우리에게 행하도록 권하고 속삭이고 격려하고 영감을 주는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교리대로 생활하고 행할 때 그 진리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sup>8</sup> 영은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며 행해야 할 바를 가르쳐 줍니다.<sup>9</sup> 그러나 영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성신이 우리 대신 배우거나 느끼거나 행할 수 없는 까닭은 선택의지라는 교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영은 우리가 배우고 느끼며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돕고, 또 그렇게 하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의 방법에 따라 가르치는 사람들은 선택의지를 행사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고 격려합니다. 부모와 지도자, 교사는 가족과 회중, 반원 대신 자신이 느끼거나 배우고 회개할 수 없다는 점을 압니다. 그보다는 ‘자녀, 반원,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고 자문할 것입니다. 성신이 역사하심에 따라 가르치는 부모는 가정을 그저 가치 자체에 대해 가르치는 곳이 아닌, 가치를 소중히 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로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교사는 단지 교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복음 교리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도록 돕습니다. 개인이 선택의지를 올바르게 행사할 때 성신은 제한 받지 않고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정과 모임, 복음을 공부하는 반에서 진정한 학습과 가르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때로는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벽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전 정도에 대해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 자녀들과 등산했던 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걸음을 멈출 때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가야 하는지를

신경 쓰는 대신 돌아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기로 했습니다. 산 아래 경치를 보며 서로에게 “와, 많이 올라왔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깊이 들이마신 다음, 재빨리 돌아서서 산 정상에 바라보고 한 번에 한 걸음씩 다시 올라갔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이 역사하심에 따라 부모 역할을 수행하고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제 삶은 영을 동반하고 특히 영으로 가르친 진정한 교사들 덕분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성신의 방법에 따라 가르칠 것을 권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주이시며 그분의 복음이 회복되었음을 간증드립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부모,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교사, 진정한 학습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간증드리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복음 교육을 위한 참고 지도서(1999년), 3쪽 참조.
2. 교리와 성약 50:14.
3. 모로나이서 6:9.
4. 모로나이서 10:5; 또한 교리와 성약 50:14; 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2004), 81쪽 참조.
5. 니파이후서 28:30.
6.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신앙으로 배움을 추구함”, 리아호나, 2007년 9월호, 16~24쪽 참조.
7. 누가복음 12:12 참조.
8. 요한복음 7:17 참조.
9. 니파이후서 32:1~5 참조.



가즈히코 야마시타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선교사들은 교회의 보배입니다

주께서 선교사들을 부르시고, 선교사들이 그 부름을 받아들여 전 세계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수년 전 어느 날 밤, 갓 선교사 부름을 받은 스완 장로님이 일본인 선임 동반자와 함께 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집에 있었기에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문에서 선교사들을 맞이하는데 스완 장로님이 입은 외투에 눈길이 갔습니다. 별 뜻 없이 저는 “정말 멋진 외투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투는 새 것이 아닌데다가 색상도 바랬습니다. 저는 이전 선교사가 숙소에 두고 간 외투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완 장로님은 제 말을 듣자마자 전혀 예상치도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어눌한 일본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외투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20여 년 전에 일본에서 선교사로 봉사하실 때 입으시던 옷이거든요.”

스완 장로님의 아버지는 일본 오카야마 선교부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일본으로 선교 사업을 떠날 때 그 외투를 물려 준 것입니다. 이 사진에 있는 옷이 바로 아버지 스완 장로님과 아들 스완 장로님이 일본에서 입었던 외투입니다.

저는 스완 장로님의 말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아버지의

외투를 입고 전도를 하는 이유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스완 장로님의 선교 사업은 일본과 그 국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에서 봉사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은 저에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또는 삼촌이 일본에서 봉사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봉사한 귀환 선교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랑과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표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여러분을 늘 기억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저도 그런 개종자 중 한 사람입니다. 저는 열일곱 살 때 개종했으며,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저에게 침례를 준 선교사는 아이다호에서 온 러프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아이다호에서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다가 최근에 해임되었습니다. 침례를 받은 이후로 그분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메일을 주고받고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결코 그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친절하고 웃음 띤 얼굴은 제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무척 행복해하셨습니다.

열일곱 살 때 저는 선교사들이 가르쳐 주는 내용을 정말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에 대해 특별한 기분을 느꼈으며, 저도 그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변치 않는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제가 침례 받던 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5일이었고 날씨가 정말 무더웠습니다. 그날 저와 함께 다른 자매님 한 분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탕은 선교사들이 직접 만든 것이었는데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은 후 바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먼저 로이드 장로님이 그 자매님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다른 회원들과 함께 앉아 눈을 감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로이드 장로님은 그 자매님을 확인한 후에 축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로이드 장로님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장로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로이드 장로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성령에 둘러싸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 저는 로이드 장로님이 우리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확인을 받을 차례였습니다. 이번에도 로이드 장로님이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제 머리 위에 두 손을 올리고 저를 교회 회원으로 확인한 후 성신의 은사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분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진실로 선교사들과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신을 통해 알았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태도와 사랑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저는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교리를 그 즉시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큰 사랑을 느꼈으며, 친절함 행동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메시지는 사랑이며 희망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태도와 행동은 영을 불러오며, 영은 중요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보배입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래의 선교사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자녀 중 네 명은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다섯째 자녀가 이번 달 말에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막내아이도 선교 사업을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제 아들들과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복음을 전하겠다고 소망하십시오. 주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양들을 찾아 나서고 그들을 찾아내기를 바라십니다.<sup>2</sup>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그들이 있는 곳으로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선교사보다 더 열심히 애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구조받은 이들 중 한 사람입니다.

2. 간증을 키우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sup>3</sup>을 요구하십니다.

3.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아버지의 외투에 일본과 그 국민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도 함께 담아서 선교사로 나온 스완 장로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감독님을 찾아가십시오. 감독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선교사들을 부르시고, 선교사들이 그 부름을 받아들여 전 세계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귀환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하신 모든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보배입니다. 언젠가나 계속해서 선교사가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 면전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이사야 52:7
2. 에스겔 34:11
3. 교리와 성약 64:34.



랜들 케이 베넷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영생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우연히 결정되지 않습니다. 바로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생을 선택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몇 해 전에 가족과 바다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거센 조류에 대해 경고하는 해안 표지와 깃발을 보았습니다. 해안에서 깊고 사나운 바다로 빨려 들어가는 조류였습니다. 그런 내용을 잘 몰랐던 저는 그 강한 물살을 보지 못했지만 근처 망루에 있는 인명 구조원은 십사리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전한 해변을 벗어나 바다로 들어가는 모든 이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말로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수영에는 자신이 있으니까 좋은 운동이 될 거야. 얕은 물에서는 별일 없겠지.”

제 판단이 옳다고 믿은 저는 경고를 무시한 채 바다에 뛰어들어 ‘상쾌하게’ 수영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해변에 있는 가족을 찾으려 고개를 들어 보니 물이 아득히 멀어져 있는 게 아닙니까! 경고한 대로 그 조류는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저를 붙잡아서 가족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빠르게 달음질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내 물을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급류에 휘말린 채 점점 더 깊고 거친 바다로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친데다 물을 먹어서 숨을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역사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저는 마지막으로 사력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인명 구조원이 이미 제 옆까지 헤엄쳐 와 있었습니다. 제가 물에 뛰어 드는 것을 그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인명 구조원은 제가 조류에 휩쓸려 갈 것과 그 지점도 알았기에 물살을 피해 주위를 맴돌면서 제가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지쳐서 혼자서는 도저히 해변까지 갈 수 없던 저를 구조한 인명 구조원에게 저는 무척 감사합니다. 그 도움이 없었더라면 저는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선택은 하마터면 저와 가족에게 큰 비극을 안겨 줄 뻔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선택이라는 은사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함께 생각하는 시간 동안 성신이 함께하시어 우리 각자가 한 선택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결정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점을 강하게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결과가 따르지 않는 영원한 결정은 없습니다.”<sup>1</sup>

이번 대회에서 배웠듯이 여러분은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딸이며,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타고 났습니다.<sup>2</sup> 전세에서 살면서 여러분은 진리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영원한 선택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현세에서 필멸의 삶을 사는 동안 성장과 진보에



캐나다 퀘벡 몬트리올

도움이 될 고난과 역경, 슬픔과 고통, 시험과 시련을 겪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선지자 리하이는 선택에 대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리하이는 우리가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면 악마의 사로잡음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크신 중보자를 바라보고 그의 큰 계명들을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충실하여 …… 영생을 택하라.”<sup>3</sup>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과 느낌과 행동을 선택해야만 영생을 선택하는 것이 될까요?

제 손자 손녀들은 선택을 할 때 그 결과도 동시에 결정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 살 난 손녀가 저녁을 먹지 않겠다고 하자 아이의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잘 시간이 다 됐잖아.

저녁을 먹으면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고를 수 있단다. 저녁을 먹지 않으면 아이스크림도 못 먹고 바로 자러 가야 해.” 손녀는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할래요. 놀면서 아이스크림만 먹고 잠은 안 잘 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놀면서 아이스크림만 먹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영양실조와 피로와 같은 결과를 피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에게 두 가지 영원한 선택만이 있을 뿐이며 각 선택에는 영원한 결과가 따릅니다. 즉, 세상의 구주를 따르기로 결심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영생을 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따르기로 결심하여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을 선택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으로 얻게 되는 안전과 세상을 따르는 데서 얻는 위험 모두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바다에 들어가는 일은 해롭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상쾌한’ 수영처럼 말입니다.

제 가족의 삶을 바꿀 수도 있었던 그 몰살처럼 오늘날 세속화라는 조류와 거짓된 철학, 그릇된 가르침, 견잡을 수 없는 부도덕은 우리를 끌어내 가족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떼 놓으려 합니다.

살아 있는 선지자, 선전자, 계시자들은 우리를 위협하는 교묘하고도 위험한 세상의 풍조를 보고 경고를 외칩니다. 사랑으로 권고하고, 독려하며, 가르치고, 일깨우며, 경고합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함으로써 얻는 (1) 통찰력과 (2) 성신의 인도, (3) 그분들이 주는 예언과 같은 권고를 따를 때에만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을 압니다. 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복음에 따라 생활해야만 안전과 궁극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조금 전에 열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도 가르치셨듯이 우리 구주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sup>4</sup>

레쉬트니코브 부부는 구소련이

붕괴되어 역경과 고통이 가득하던 시기에도 세상이 아닌 의로움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들어오고 나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남편인 아나톨리가 직장에서 강등되었지만 부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할 시간이 더 많이 생겼군!” 부부는 여러 가지 위협이 되풀이되었지만 복음을 중심으로 생활하겠다고 선택했습니다. 아나톨리 레쉬트니코브 장로는 첫 번째 러시아 지역 칠십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레쉬트니코브 부부는 선택을 할 때마다 변함없이 영생을 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역경을 겪고 유혹을 받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선택을 하기에 너무 힘들거나 늦은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회개는 그러한 중요한 올바른 선택 중 하나입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리로부터 작은 오류와 사소한 진로 이탈은 우리 삶에 슬픈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 위해, 단지 어떤 식으로든 오류가 저절로 바로잡히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빠르고도 결단력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훈련되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난이 도사리고 있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바로잡기 위한 행동을 미룰수록 바꾸어야 할 것은 더 많아지며, 올바른 진로로 돌아가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sup>5</sup>

자비로운 마음으로 내미시는 구주의 팔은 언제나 우리를 향합니다.<sup>6</sup> 진지하고 온전하게 회개하면 잘못을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으며 구주께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sup>7</sup>

자신이 한 선택과 그 결과를 평가하려 할 때,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깊이 생각하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가, 아니면 너무 바쁘다거나 무관심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부하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시간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살아 있는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기로 했는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따르거나 선지자의 권고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가?

생각과 느낌과 행동을 선택할 때 매일 성신의 인도를 구하는가?

계속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며 구조하기 위해 손길을 내미는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우연히 결정되지 않습니다. 바로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생을 선택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

덕분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고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결정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청년 성인을 위한 교회 교육 기구 노년의 모임, 2005년 11월 6일), institute.lds.org.
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참조.
3. 니파이후서 2:27~28.
4. 요한복음 14:6.
5.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몇 도의 차이”,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59쪽.
6. *앨마서* 5:33 참조.
7. *교리와 성약* 58:42 참조.



제이 데븐 코니쉬 장로  
칠십인 정원회

# 기도라는 특권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귀중한 은사입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떤 감정이나 생각, 물리적  
따위가 아닙니다. 거룩한 인격체로서,  
경전에서 이야기하듯 얼굴과 손이 있는,  
영화로운 불멸하는 몸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알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태복음  
7:9~11)

제가 겪은 이 경험을 그 원리를 잘  
보여 줄 것 같습니다. 보스턴 어린이  
병원 레지던트였던 젊은 시절, 저는  
근무 시간이 매우 길었습니다. 자동차는  
아내와 아이들이 써야 했기 때문에 저는  
병원과 매사추세츠 주 워터타운에 있는 집  
사이를 주로 자전거로 오갔습니다. 기나긴  
근무를 마친 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어느 저녁에는 몹시 피곤하고  
허기가 저서 다소 기운이 빠졌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와 어린 네 아이들을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며 힘을 쏘아야 하고

쾌활한 모습도 보여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솔직히 페달을 밟는 것조차 힘겨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로 오가던 길에는 통닭집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닭고기튀김  
한 조각을 먹는다면 허기와 피로가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닭다리 또는 넓적다리 하나를  
29센트에 파는 행사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제 지갑에서는  
5센트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주님께 제 형편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셔서  
길에서 25센트 동전 하나를 주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어떤 표적이  
필요해져가 아니며, 단지 이 친절한  
축복을 주셔야겠다고 느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바닥을 유심히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통닭집 쪽으로  
자전거를 몰면서 신앙으로 마음을 채우고  
유순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서 통닭집 건너편 길 위쪽을  
보니, 땅에 떨어져 있는 25센트 동전이  
보였습니다. 저는 감사와 안도의 마음으로  
동전을 주워 왔고, 결국 닭다리 한 조각을  
사서 맛있게 먹은 후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만유를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은 것처럼 작은 것을 바라는 기도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이 왜 이처럼 사소한

일에도 관여하시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그분께 중요한 일이 된다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러할진대, 더  
크고 옳은 일을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간절하게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겠습니까?(제3니파이 18:20 참조)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성인이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실 것이기에 그분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보통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정말  
귀중한 선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이렇게 여쭙곤 적이  
있습니다. “주여 …… 기도를 ……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누가복음  
11:1) 이에 예수님은 기도에 관한  
핵심 원리로 이끌어 줄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러셀 엠 넬슨, “주기도문에서  
배우는 교훈”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46~49쪽; 또한 마태복음 6:9~13, 누가복음  
11:1~4 참조) 예수께서 주신 본보기에  
따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마태복음 6:9; 누가복음 11:2)  
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떠한 존재에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이름을 너무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을 포함하여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9; 누가복음 11:2)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위대함을 인정하며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 경배하는 자세로 아버지께 말을 거셨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진심을 담아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하는 것이 바로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중요한 열쇠임이 분명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 이루어지이다”(마태복음 6:10; 누가복음 11:2) 주께 의지한다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인정하며 비록 주님의 뜻과 우리 뜻이 다를지라도 주께 순종하겠다는 소망을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 사전에는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기도는 서로 소통을 통해 아버지의 뜻과 자녀의 뜻을 일치시키는 행위이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이미 하나님께서 기꺼이 허락하고자 하시나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축복들을 공고히 하려는 데 있다.”(Bible Dictionary, “Prayer”)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마태복음 6:11; 또한 누가복음 11:3 참조) 우리는 주님께 원하는 것들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려면 반드시 정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에 집중하지도 않고 숙제와 시험공부도 안 하면서 학교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도와 달라고 간구한다면 이는

온전히 정직한 행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종종 기도를 드릴 때 간구하는 도움을 얻으려면 제 스스로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영의 속삭임을 느낍니다. 그러면 다짐을 하고 제 몫을 완수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이 대신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마태복음 6:12) 또는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누가복음 11:4) 개인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때로 간과되기도 하는 부분은 회개입니다. 실제로 회개하고자 한다면, 회개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회개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으며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마태복음 6:12, 누가복음 11:4) 구주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잘못으로 받는 고통이 너무나 혹독하여 이를 용서하거나 잊기가 무척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고 이를 주께 돌리라는 주님의 권유에서 위안과 치유를 얻을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교리와 성약 64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 또 너희는 마땅히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 하나님께서는 나와 그대 사이를 판단하사 그대의 행위에 따라 그대에게 갚으실지라도 라고 하여야 하느니라.”(10~11절) 치유를 받고자 한다면 그 일을 완전히 잊어버려야 하고 주께서 그 일을 맡으시도록 우리는 물러서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버려두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마태복음 6:14) 이와 같이 우리는 기도 중에 앞날을 내다 보며 때로 두려운 일들에 직면하게 될 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절차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일에(에베소서 6:11; 교리와 성약 27:15 참조)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 소중한 친구 여러분, 주님께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함께해 주시도록 간청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마태복음 6:13) 예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경과 순종을 표현하며 기도를 마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 모든 권능과 영광이 있음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아끼시며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기쁘게 살아가는 한 가지 비결이 바로 자신의 생각보다 주님의 방법을 따를 때 더 큰 행복이 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기도할 마음이 내키지 않아 하는 위험에 처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데, 그 영은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니파이후서 32:8 참조) 기도하기에는 너무 죄가 많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아픈 사람이 의사한테 가기에는 너무 아프다고 우기는 것처럼 비극적인 일입니다!

하는 것이라곤 고작 기도 드리는 것뿐이라면 그 기도가 어떤 형태의 기도이든, 진지한 정도에 상관없이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려야 할 뿐 아니라 그 기도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기도만 하는 사람보다는 기도하고 나서 할 일을 하는 사람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먹는 약과 마찬가지로 기도도 지시를 따를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감미로운 특권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그분의 영을 느낄 수 있다는 기쁨 때문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흔히 우리가 듣는 음성과는 다릅니다.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감미롭고 조용한 영감의 음성은 소리보다는 느낌으로 옵니다. 순수한 예지가 정신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인도는 생각과 느낌으로, 또 속삭임과 감명으로 인식됩니다.”(“기도와 속삭임”,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44쪽)

사력을 다해 드리는 진지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려면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미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는 점을 깨달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단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외국어를 배울 때처럼 이는 실천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영의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언어를 터득하면 의외로 가운데 큰 신앙과 권능을 얻게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주신 이 권고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지금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분들 중에서 크고 작은 난관과 도전에 맞서 힘겹게 투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영적인 힘을 제공합니다. 기도는 평화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여권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가가는 방편입니다. 그분께 기도로 말하고 귀 기울여 응답을 받으십시오. 기적들은 기도를 통해 일어납니다.”(“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68쪽)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는 기도의 특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없이 많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 때로는 예견한 방법으로, 또 다른 때에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압니다. 또한 그분의 거룩한 아들 예수께서 살아 계신 구주임을 증거합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자 지상에 세워진 왕국이며 이 사업은 참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그분의 선지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전한 확신으로 이 모든 것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Francis M. Lyman, “Proprieties in Prayer,” Brian H. Stuy, comp., Collected Discourses Delivered by President Wilford Woodruff, His Two Counselors, the Twelve Apostles, and Others, 5 vols. (1987-92), 3:76-79; B. H. Roberts, comp., The Seventy’s Course in Theology, 5 vols. (1907-12), 4:120; Encyclopedia of Mormonism (1992), “Prayer,” 1118-19; Bruce R. McConkie, Mormon Doctrine, 2nd ed. (1966), 583쪽 참조.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마음에서 울리는 노래

우리가 모든 답을 알지는 못합니다만, …… 믿음과 확신으로 시련에 맞서게 해 주는 중요한 원리는 알고 있습니다.

**필** 멸의 삶을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심지어 비극에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시련과 고난을 목격합니다.<sup>1</sup> TV에 나오는 죽음의 장면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 절망하는 모습들은 우리 영혼을 울립니다. 우리는 일본 국민이 지진과 쓰나미 피해에 의연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계무역센터가 무참히 무너지던 장면을 최근에 다시 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에게 닥친 비극을 떠올릴 때 가슴이 아려옵니다.

비극은 개인에게도 일어납니다. 어린 아들딸이 죽거나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고, 사고나 무심히 저지른 행동이 사랑하는 부모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슬픈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애통해하고 서로의 짐을 지려고 노력합니다.<sup>2</sup> 못 다 이룬 일과 불러 보지 못한 노래로 마음 아파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받는 질문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 공의로운 하나님이 나쁜 일이, 그것도 선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분에게 봉사하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비록 모든 답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시련에

맞서게 해 주는 중요한 원리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리들은 우리 각자를 위한 밝은 미래가 계획되어 있다고 믿고 확신하게 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아시고 사랑하시며 우리가 겪는 고난을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며, 그분이 치르신 속죄는 구원과 승영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삶에 부여된 모든 부당함까지도 보상해줄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위한 행복의 계획은 전세와 현세뿐 아니라 영생까지 아우르며, 우리는 죽음으로 헤어진 사람들과 영광스럽게 재회할 것입니다. 모든 잘못이 바로잡히며, 우리는 분명하고 완전무결한 시야와 이해력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한 지식과 이해, 신앙이 없는 사람의 시야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필멸의 눈으로 세상의 전쟁과 폭력, 질병과 사악함을 보면 삶이 우울하고 무질서하며 불공평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을 3막으로 된 연극을 중간부터 보기 시작한 사람의 관점에 비유했습니다.<sup>3</sup>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1막,

즉 전세에서 있었던 일과 그곳에서 제시된 목적을 알지 못하며, 아버지의 계획이 영광스럽게 성취되는 3막에서 있을 설명과 해결 방법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이 종합적인 계획에서 자기 잘못이 아닌 일로 해를 입은 사람들이 끝까지 피해를 보는 일은 없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sup>4</sup>

몇 달 후면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100년이 되는 날이 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둘러싼 비참한 상황은 사건 발생 후 한 세기가 지나도록 내내 잊혀지지 않았습다. 높이가 11층, 길이가 축구장 세 배에 달하는 이 최신 호화 여객선<sup>5</sup>은 당시에 빙산이 가득한 겨울 바다에서도 끄떡 없다는 과장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선전에 따르면 이 배는 침몰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으나 결국은 유빙에 덮인 대서양 아래로 가라앉아, 1,500명 이상이 희생되었습니다.<sup>6</sup>

여러 면에서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은 우리 삶과 여러 복음 원리에 관한 은유가 됩니다. 그것은 지상 생활에 국한된 시야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보여 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 경악할 만한 인명 피해는 사실 사람이 초래한 사고였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일어난 대량 살상과, 얼마 전 10주년인 된 세계무역센터 붕괴 사건에서도 보듯이, 우리는 선택의지를 악하게 사용한 사건들로 생긴 충격과 고통, 도덕적 분쟁을 목격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러한 비극은 가족과 친구들, 국가가 끔찍한 영향을 받는 결말로 이어집니다.

타이타닉호 사건에서 사람들은 자만심과 험한 바다를 향해하는 일의 위험성을 깨닫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sup>7</sup>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희생자들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존 제이콥 에스토처럼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도 있었고, 노동자, 이민자, 여자와 아이들, 선원들도 있었습니다.<sup>8</sup>

타이타닉호와 관련된 후기 성도의 이야기도 최소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시련과 변뇌와 비극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 줍니다. 첫 번째 예는 사고를 면하게 된 사람이 주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를 드린 이야기입니다. 이 일화는 훗날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한 엘마 소니와 연관되어 있습니다.<sup>9</sup> 그분은 제가 유타 주 로건에서 태어났을 때 스테이크 회장님이셨습니다. 선교사로 떠날 때 저는 소니 장로님과 접견했습니다. 당시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총관리 역원과 접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니 장로님은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그분은 저활동 회원인 프레드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친구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 함께 여러 차례 토론을 했고, 엘마 소니는 선교 사업을 준비하자고 프레드를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모두 영국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 사업이 끝날 무렵 선교부 서기였던 소니 장로는 미국으로 돌아갈 교통편을

예약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프레드, 그리고 함께 귀환하는 다른 네 장로들을 위해 타이타닉호 표를 예약했습니다.<sup>10</sup> 이윽고 배를 타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프레드는 다른 사정 때문에 늦고 말았습니다. 소니 장로는 처녀 항해를 앞둔 최신택 호화 여객선에 예약한 자리 여섯 개를 모두 취소하고 다음날 떠나는 배표를 다시 끊었습니다.<sup>11</sup> 타이타닉호로 여행할 것에 들떠 있던 네 선교사들은 실망스러워했습니다. 이에 소니 장로는 창세기에 나오는 애굽의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기록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찌 우리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이까?”<sup>12</sup> 그는 동료들에게 모두 영국에 함께 왔으니 돌아갈 때도 함께 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소니 장로는 친구인 프레드에게 “네가 내 목숨을 구했어.” 하고 말하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나 프레드는 “아니야, 내가 선교 사업을 하도록 네가 권유했으니 네가 내 인생을 구한 거야.”<sup>13</sup>라고 답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은 그들을 지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sup>14</sup>

때로 소니 장로와 그 동료 선교사들처럼 충실한 사람들은 큰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임하는 주님의 친절하신 자비에 감사드려야 합니다.<sup>15</sup> 우리는 날마다 깨닫지 못한 채 수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늘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sup>16</sup>

경전에는 의롭고, 구주를 따르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번영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삶에서 영을 동반해야 합니다.<sup>17</sup>

그러나 의로움과 기도, 충실함이 필멸의 삶에서 언제나 행복한 결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혹독한 시련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시간 속에서도 신앙으로 신권 축복을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장로[들] …… 불러 내 이름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안수하게 할지니, 그리고서 만일 그들이 죽으면 나를 위하여 죽을 것이요, 만일 그들이 살면 나를 위하여 살 것이니라.”<sup>18</sup>

타이타닉호와 관련된 두 번째 후기 성도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이 아니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sup>19</sup> 아이린 코벳은 당시 서른 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유타 주 프로보에서 온 젊은 아내이자 어머니였습니다. 재능 있는 화가이자 음악가였고 교사이면서 간호사인 그녀는 프로보에 의료진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느껴 런던에서 6개월에 걸쳐 조산사 수련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중하고, 생각이 깊으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용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올 때 타이타닉호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선교사들도 함께 탈 것이므로 여행이 한결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린은 이 끔찍한 재난에서 생명을 잃은 몇 안 되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대부분 여자와 어린이는 구명정에 태워졌고 결국은 구출되었습니다. 구명정이 턱없이 부족하기는 했지만, 추측하기로는 그녀는 구명정에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훈련된 간호사인 그녀는 배가 빙산과 충돌했을 때 부상을 입은 수많은 승객들을 돌보았을 것입니다.

시련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일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이 됩니다. 지상 생활에서 겪는 부정적인 결과는 우리 신앙이 부족하다거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연단하는 자의 불은 실제로 존재하며, 고난이라는 용광로에서 만들어지는 훌륭한 성품과 의로운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정화시키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준비시켜 줍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주님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재난이 올 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구주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깊은 물에 던져질지라도, 몰아치는 큰 파도가 너에 대하여 음모를 꾸밀지라도, 맹렬한 바람이 네 원수가 될지라도 …… 모든 원소가 힘을 합쳐 길을 가로막을지라도 …… 이 모든 일이 네게 경험이 되고 네 유익이 될 줄 알라.”<sup>20</sup>



구주께서는 그분의 가르침을 이렇게 끝맺으셨습니다. “너의 날은 알려져 있고 너의 해는 더 짧게 헤아림을 받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므로 …… 두려워 말라. 이는 하나님이 영원무궁토록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sup>21</sup>

어떤 고난은 다른 사람이 행사한 선택이지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선택의지는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악한 행동 또한 선택의지의 한 측면입니다. 모로나이 장군은 이 중요한 교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께서 그의 공의와 심판이 악인들에게 임하게 하시려고 의인들의 죽임 당함을 용납하심이라.”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주 그들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sup>22</sup>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악한 사람들은 그들이 저지르는 잔혹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sup>23</sup>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담배, 술, 약물 남용은 건강에 심각한 해로움을 끼칩니다. 술과 마약 관련 범죄로 감옥에 수감되는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sup>24</sup>

부정 때문에 생긴 이혼도 빈번합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 중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다면 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sup>25</sup>

사랑하는 저의 선교부 회장님이신 메리온 디 헵크스 장로님은 (지난 8월에 돌아가셨는데) 선교사들에게 지상 생활에서 겪는 고난에 맞서기 위해 이 문장을 외우라고 하셨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굳은 의지는 어떠한 우연이나 필연, 운명에도 기만을 당하거나 방해받거나 제한받지 않는다.”<sup>26</sup>

장로님은 이 말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련에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영적인 문제에서는 옳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권고에 감사드리게 됩니다.

타이타닉호 사망자 수가 그렇게 많았던 이유 중 하나는 구명정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든 간에 구주의 속죄는 모든 이를 위해 구명정을 제공해 줍니다. 자신이 겪는 고난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속죄를 통해 인생에서 겪는 모든 부당함을 보상받을 것입니다.<sup>27</sup>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이 특별히 어려워하는 것은 이생에서 그들이 상실한 여러 기회에 미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종종 젊어서 죽는 사람들은 특출한 능력과 관심과 재능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해력이 제한된 우리는 못다 이룬 일과 불러 보지 못한 노래에 대해 슬퍼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음악을 미처 연주해 보지 못한 채 죽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음악은 어느 종류이든 꽃 피워 보지 못한 가능성을 빚댄 은유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훌륭히 준비를 했으나 이생에서 그것을 실행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sup>28</sup> 많이 인용되는 고전인 토머스 그레이의 시, “시골 교회 묘지의 만가”가 또한 잃어버린 기회를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꽃들이 보는 이 없는 곳에서  
만개하고  
사막 바람에 그 아름다움을 소진한다.<sup>29</sup>

그렇게 잃어버린 기회에는 가족, 직업, 재능, 경험, 또는 다른 것들과 관련된 일들이 있습니다. 코벳 자매는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녀에게도 부르지 못한 노래와 이생에서 발휘하지 못한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멸의 상태에서 보는 제한된 시야가 아니라 더 넓고 선명한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약속된 크고 영원한 상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sup>30</sup>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 한 소절, “마음에서 울리는 노래 예수 들으시네.”<sup>31</sup>는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고 똑바른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구주는 “그러므로 …… 너희 마음에 위로를 받으라. ……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sup>32</sup>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노래”<sup>33</sup>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요한복음 16:33 참조.
2. 모사이야서 18:8~9; 또한 니파이후서 32:7 참조.
3. 보이드 케이 패커, “The Play and the Plan”(청년 독신 성인을 위한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 1995년 5월 7일), 3쪽 참조: “지상에서 우리는 2막이 오르자마자 극장에 들어온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1막을 보지 못했습니다. …… ‘그 후로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구절은 2막 대본에는 없습니다. 그 구절은 모든 의문이 풀리고 모든 것이 바로잡히는 3막이 되어야 나옵니다.”; 또한 닐 에이 맥스웰, *All These Things Shall Give Thee Experience* (1979), 37쪽 참조: “하나님은 …… 시작과 끝을 함께 보십니다. …… 유한한 생명을 지닌 우리는 그 방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숫자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합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에 갇혀 있고 이 둘째 지체의 좁은 시야로 제한을 받습니다.”
4. 책임질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 전에 죽은 모든 어린 아이는 해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는다.(교리와 성약 137:10 참조)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로서 만일 기회가 있었다면 그것을 받아들였을 이들 또한



- 해의 왕국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137:7 참조) 또한 그다지 의롭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장차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축복받을 것이다.(교리와 성약 76:89 참조.)
5. Conway B. Sonne, *A Man Named Alma: The World of Alma Sonne*(1988), 83쪽 참조.
6. Sonne, *A Man Named Alma*, 84쪽 참조.
7. 사도행전 10:34; “The Sinking of the World’s Greatest Liner,” *Millennial Star*, 1912년 4월 18일, 250쪽 참조.
8. *Millennial Star*, 1912년 8월 18일, 250쪽 참조.
9. 소니 장로는 엘 톰 페리 장로의 삼촌이다.
10. Sonne, *A Man Named Alma*, 83쪽 참조.
11. Sonne, *A Man Named Alma*, 83~84쪽 참조; 또한 “From the Mission Field,” *Millennial Star*, 1912년 4월 18일, 254쪽; “해임 및 출발. 다음 선교사들은 영예롭게 해임되어 1912년 4월 13일에 모리타니아호를 타고 귀환했다. 영국에서 엘마 소니, 조지 비 챔버스, 윌라드 리차드, 존 알 세이어, 에프 에이 달, 네덜란드에서 엘 제이 서틀리프.” 참조.
12. 창세기 44:30~31, 34 참조.
13. Frank Millward, “Eight Elders Missed Voyage on Titanic,” *Deseret News*, 2008년 7월 24일.
14. “Friend to Friend,” *Friend*, 1977년 5월, 39쪽 참조.
15.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리아호나*, 2005년 5월, 99~102쪽 참조.
16. 교리와 성약 59:21 참조.
17. 엘마서 36:30 참조.
18. 교리와 성약 42:44.
19. 아이린 코벳의 손자 도날드 엠 코벳 인터뷰, 2010년 10월 30일, 케리 에이지 쿡이 인터뷰함.
20. 교리와 성약 122:7.
21. 교리와 성약 122:9.
22. 엘마서 60:13.
23. 구주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누가복음 17:1)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24. 교리와 성약 89편 -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의 현세적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와 뜻”(2절) - 은 후기 성도들을 점점 더 축복하고 있다.
25. 교리와 성약 42:22~24 참조.
26. “Will”, *Poetical Works of Ella Wheeler Wilcox*(1917), 129 참조.
27. “속죄”, *선교 사업 지도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2004), 51~52쪽 참조.
28. “The Song That I Came to Sing,” *The Complete Poems of Rabindranath Tagore’s Gitanjali*, ed. S. K. Paul (2006), 64: “나는 내 약기의 줄을 걸고 풀기를 반복하며 일생을 보냈고 그 동안 내가 부르려던 노래는 오늘까지도 부르지 못했다.” 참조
29. Thomas Gray, “Elegy Written in a Country Church Yard,” *The Oxford Book of English Verse*, ed. Christopher Ricks (1999), 279.
30. 고린도전서 2:9.
31. “내 영혼이 햇빛을 받아”, 찬송가 153장.
32. 교리와 성약 101:16; 또한 시편 46:10 참조.
33. 교리와 성약 101:18; 45:71 참조.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다시 만날 때까지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을 하는 동안에도 이곳에서 느낀 영이 매일같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이 대회는 참으로 영감에 찬 대회였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는 주님의 영을 풍성하게 느끼고 감동을 받았으며, 이 신성한 사업에 대한 간증도 굳건해졌습니다. 기도를 해 주신 형제님들과 말씀을 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음악이 매우 훌륭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 점에서 재능을 기꺼이 발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제 고마운 마음과 함께 교회 모든 회원들의 감사를 전합니다.

이 대회에서 해임되신 총관리 직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매우 충실하고 훌륭하게 봉사하셨으며, 주님의 사업에 지대한 공헌을 해 주셨습니다.

충실하고 헌신적인 제 보좌 두 분께 가슴 깊이 감사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낌없는 지지와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정 지혜와 이해력이 뛰어난 분들이며, 그분들이 보여 주는 봉사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치지 않고 훌륭하게 주님의 사업에 매진하시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형제님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자신을 잊고 뛰어난 봉사를 보여 주시는 칠십인 정원회와 감리 감독단 형제님들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마찬가지로 본부 보조 조직 역원으로 수고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아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자 힘쓰고 기도로 그분을 찾았다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덕분에는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복음에서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왜 이곳에 있으며, 이생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에 관해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삶에 의미와 목적, 그리고 희망을 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그토록 기꺼이 봉사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임무를 이 지상에서 수행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와드와 지부에서 여러분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직책이 무엇이든, 그 직책에서 기꺼이 애쓰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주님의 사업이 나아가는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대회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실 때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셔서 해야 할 일을 하는 동안에도 이곳에서 느낀 영이 매일같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서로에게 더 많이 친절하십시오. 늘 주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조화롭고





줄리 비 벡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간증을 키우셔서 여러분의 간증이 사탄을 막는 보호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겸손한 종인 저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과 여러분을 섬기고자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와 모든 총관리 역원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이 놀라운 사업에서 여러분과 저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모두 함께 해야 하며, 모든 남성과 여성, 아이들까지도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투자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업이 참됨을 간증합니다. 구주께서는 살아 계시며, 지상에 있는 이 교회를 인도하고 다스리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 아버지이시며, 인격이 있고 실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돕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기꺼이 가고자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또 그렇게 하기를 얼마나 소망하시는지 모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6개월 후 다시 만날 때까지 작별을 고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내 손녀 (손자)들이 상호부조회에 대해 이해했으면 하는 것들

이 경륜의 시대에 복음 회복이 시작된 날부터 주께는 그분의 제자로서 참여할 충실한 여성들이 필요하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모임에서 말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함께 모이는 이 기회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저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더 넓은 시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말씀 제목은 “내 손녀 (손자)들이 상호부조회에 대해 이해했으면 하는 것들”입니다. 제 손녀들은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하면서 의로운 여성이 갖춰야 할 습관과 특성을 키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또래들은 머지않아 이 세계적인 위대한 자매 조직에서 책임을 맡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을 듣거나 읽게 되실 모든 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호부조회가 조직되었을 때 주께서 그분의 딸들을 위해 무엇을 염두에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상호부조회가 고대

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제자 정신을 본받아 조직되었다는 것을 제 손녀들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신약시대에 구주께서 교회를 조직하셨을 때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따르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당시 관습에 따라 그분을 접대하자 주님은 마르다가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좋은 편”<sup>2</sup>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임을 이해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 온화한 말씀은 주님의 성역에 참여하라는 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약전서 뒷부분에서 구주의 신성에 대한 마르다의 강한 간증을 통해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녀의 신앙과 마음가짐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sup>3</sup>

신약전서를 더 읽다 보면 사도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로서 교회 성장에 기여한 충실한 여성들에



본문 회장님의 말씀을 시청하려면 QR 코드를 인식하는 스마트폰으로 왼쪽의 QR 코드를 인식하십시오.



### 신권과 연결된 상호부조회

주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신권 방식을 좇아 신권 권능에 따라”<sup>7</sup> 교회 여성들을 조직하고 그들에게 “신권의 특권과 축복과 은사를 어떻게 갖게 되는지를”<sup>8</sup> 가르치라는 영감을 주셨음을 제 손녀들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상호부조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고 에머 스미스는 지도자로서 계속 봉사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조직의 회장으로 지명되어 두 보좌와 함께 회장단을 구성하여 봉사했습니다. 이 회장단은 다른 사회 조직에서 하듯이 인기 투표로 선임되지 않았으며, 계시로 부름을 받아 그들이 인도하게 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부름에서 봉사하도록 신권 지도자들에게 성별을 받아, 말 그대로 “예언에 의하여 또 권세 있는 자에 의한 안수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부름”<sup>9</sup> 받았습니 다. 회장단은 신권 관리 하에 조직되었기 때문에 특정한 일에 대해 주님과 그분의 선지자에게서 지시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상호부조회가 조직되었기 때문에 재능과 시간, 재물로 채워진 주님의 창고를 지혜롭고 질서정연하게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자신이 주님의 구원 사업을 도울 제자로서 자매들을 가르치고 영감을 주고 조직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매들은 첫 모임에서 상호부조회를 이끌어갈 목적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과 의로움을 키우고,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서 돕는 것이었습니다.

상호부조회 조직은 성도들이 성전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권과 축복과 은사를 받도록 준비시키는 일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을 제 손녀들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상호부조회가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며,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sup>4</sup>와 빌립보<sup>5</sup> 등지에 있는 여성 제자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가 배도에 빠지면서 제자 정신의 본보기 또한 사라졌습니다.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그분의 교회를 회복하시면서 제자 정신을 발휘하는 일에 여성들을 다시 참여시키셨습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고 몇 달 후에 주님은 에머 스미스를 교회에서 지도자와 교사로, 또한 남편인 선지자 조셉의 공식적인 조력자로 성별해야 한다는 계시를 주셨습니다.<sup>6</sup> 주님을 도와 그분의 왕국을 세우라는 부름을 받은 어머니는 자신의 신앙과 의로움을 키우고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며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복음 회복이 시작된 날부터 주께서는 그분의 제자로서 참여할

충실한 여성들이 필요하셨음을 제 손녀들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의 기여가 비범하게 나타난 한 가지 예는 바로 선교 사업입니다. 교회가 초기에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충실한 형제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가족을 남겨둔 채 고생과 역경을 감내하면서 미지의 곳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형제들은 그들의 삶에 여성들이 보여 준 충실한 신앙과 협조가 없었다면 선교 사업을 나가지 못했을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여성들은 가정과 생업을 지키고 가족과 선교사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로 모여드는 수천 명의 개종자들을 보살폈습니다. 자매들은 확고한 의지로 새로운 생활 방식을 따르며 주님 왕국이 건설되도록 돕고 구원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이 조직의 충실한 회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립하여 운영”<sup>10</sup>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조셉 스미스의 붉은 벽돌 상점에서 최초로 열린 상호부조회 모임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성전이 한창 건축 중인 맞은편 언덕을 향해 서서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훌륭하고 유덕하며 거룩한 것만을 추구하는 뛰어난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sup>11</sup>라고 자매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제 손녀들이 초기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처럼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 자매님들은 성전 축복이 모든 후기 성도 여성들이 받는 가장 큰 상이며 위대한 목표라고 믿었습니다. 그분들처럼 제 손녀들도 매일 노력하여 성스러운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킬 만큼 충분히 성숙해져서 성전에 가게 될 때 그곳에서 듣고 행하는 모든 것들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성전 축복을 통해 권능으로 무장되고<sup>12</sup>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sup>13</sup> 축복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서만 받을 수 있는 신권 의식을 통해 신성하고 영원한 자신의 책임을 성취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며, 헌신적인 제자로 생활하겠다고 약속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상호부조회를 조직하신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전 의식과 성약을 통해 더 큰 신권 축복을”<sup>14</sup> 준비하도록 서로 돕는 책임을 여성에게 주기 위해서였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 전 세계적인 자매 조직의 인식처와 영향력

상호부조회라는 범세계적인 대규모 자매 조직의 중요한 영향력과 능력을 제 손녀들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1842년 이후로 교회는 나뉘를 넘어 멀리 퍼져 나갔으며, 현재 상호부조회는 175개국 이상에 조직되어 있으며, 80여 가지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매주 새로운 와드와 지부가 조직되고, 새로운 상호부조회는 날로 확장되는 자매 조직의 한 부분이 되어 “온 대륙에 펼쳐[져]”<sup>15</sup> 있습니다. 상호부조회가 수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고 주로 유타 주에만 조직되어 있던 시절, 상호부조회의 지도자들은 조직의 초점과 제자 정신의 많은 부분을 지역 사고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구호 사업에 쏟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내 공업을 발전시키고 병원을 세우고 곡물을 저장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런 초기 상호부조회 활동은 현재 지구촌에서 벌이는 제자 정신의 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더 커지면서 상호부조회는 계속 변해 가는 세상에서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조정하면서 모든 와드와 지부, 모든 스테이크와 지방부에서 그 목적을 달성해 나갑니다.

전 세계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매일 세상에서 온갖 경험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날 여성들과 그 가족들은 정신적, 신체적, 영적 질병과 사고, 사망 등 생각지도 못한 일들과 부닥치면서 생활합니다.

가족이 없기 때문에 고독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가족이 좋지 못한 선택을 해서 고통받는 자매들도 있습니다. 전쟁이나 굶주림, 자연 재해를



겪거나 중독이나 실업, 부족한 교육과 훈련에 따른 중압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 때문에 신앙의 근간이 퇴색되고 개인과 가족의 힘이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자매들을 제자로서 조직하신 목적 중 하나는 “여성들[이] 기쁨과 발전을 방해하는 모든 어려움”<sup>16</sup>을 딛고 일어서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와드와 지부에 있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계시를 구하고 받을 수 있으며, 신권 지도자들과 상의하여 서로 힘을 북돋고 각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제자 정신이 상호부조회를 통해 더 확대되어서 제 손녀들이 구주께서 하셨던 놀랍고도 영웅적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자매들에게 요구되는 일들은 결코 주께 작은 일이 아니며, 주께 중요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충실함을 통해 자매들은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그분의 영을 동반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제 손녀들은 상호부조회라는 자매 조직이 안전한 곳, 안식처, 보호수단<sup>17</sup>을 제공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충실한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세상의 요란한 소리와 악탈하고 선동하는 악마의 영향력으로부터 시온의 가정을 보호하도록 단합할 것입니다. 상호부조회를 통해 의로운 여성들은 배우고 강화되며 더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 보살피고 돕는 제자 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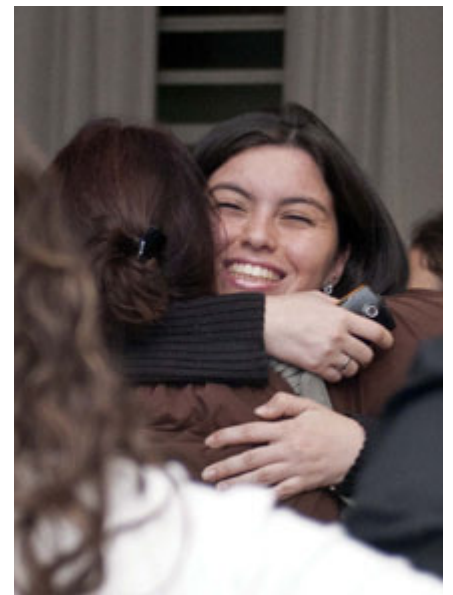
방문 교육은 제자 정신을 표현하는 경로이며 그들의 성약을 존중하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점을 제 손녀들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제자 정신에서 이런 요소는 구주의 성역과 매우 유사합니다. 상호부조회 초기에 각 와드의 방문 위원회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나눠 줄 기부 물품을 모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지도자들은 한 번에 한 걸음씩 배웠으며 사람들을 보살피는 역량을 키워 나갔습니다. 자매들이 자매들을 방문하고, 공과를 가르치고, 자매들의 집에 들러서 쪽지를 남기는 일에 더 집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자매들이

보살피는 방법을 배우는 데 기여했습니다. 모세 시대 사람들이 수많은 규칙들을 지키는 데 온 신경을 썼던 것처럼 상호부조회 자매들도 서로를 강화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많은 성문화된 규칙과 불문 규칙들을 시행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자매들과 그 가족의 생활에서 구제와 구조가 무척이나 필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더 높은 길을 따르고 그분의 자녀들을 진정으로 보살피서 그리스도의 제자 정신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은 이런 중요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자매들과 그 가족의 영적, 현세적 복지에 관해, 그리고 봉사에 관해 보고하도록 요청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sup>18</sup> 그리고 방문 교사들은 “자매 각자를 진정으로 알고 사랑하며, 그 자매들이 신앙을 강화하도록 돕고, 봉사를”<sup>19</sup> 베푸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주를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로서 그분이 이곳에 계셨다면 하셨을 일을 행하며 우리의 역량을 키웁니다. 우리는 목록에 따라 할 일을 해치우는 것보다는 자매들을 보살피는 데 더 집중하려 노력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봉사는 완벽한 통계 자료보다는 우리가 지닌 사랑의 깊이로 측정됩니다.

### 브라질 이투



자매들이 “우리 방문 교사는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제 방문 교사는 저와 가족을 잘 보살펴 줍니다” “세계 문제가 생기면 우리 방문 교사는 부탁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합니다.”라고 한결같이 말할 때, 방문 교사로서의 봉사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중요성을 이해하는 자매들과 지도자들은 서로 논의하여 방문 교사들을 교화하는 방법과, 영감 어린 봉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관해 계시를 구하고 받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방문 교육은 주님의 양 떼를 돌보는 감독의 책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감독과 상호부조회 회장은 책임을 성취하도록 돕는 영감 어린 방문 교사들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상호부조회 회장은 방문 교사들의 봉사를 통해 와드에서 각 자매의 복지를 파악하여 감독에게 보고하고 그것들에 관해 상의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우리가 맡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노력하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을 구하며 우리의 책임을 수행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sup>20</sup>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 손녀들이 방문 교육을 도와 제자 정신으로 본을 보이며 이런 기적에 참여하여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이루며

“내 왕국의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에는 상호부조회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실려 있어 제 손녀들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상호부조회와 이 교회 여성들이 남긴 유산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자매 조직을 상호부조회의 목적과 제자 정신의 모범과 특권으로 단합시키고 정렬시킬 것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에서 여성이 맡은 주요한 역할을 증거하며, 우리 믿음과 하는 일, 우리가 수호하는 것에 대해 불변하는 표준을 제공합니다. 제일회장단은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할 때, 그 안에 담긴 변하지 않는 진리와 영감을 불어넣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를”<sup>21</sup> 바란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상호부조회가 신성하게 조직된 것을 아신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장서서 세상을, 특히 세상의 여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꼬리가 아니라 머리입니다”<sup>22</sup>

주께서 재림하실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손녀들이 생활 속에서 상호부조회의 원리와 모범을 적용하는 강하고 충실한 여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상호부조회가 그들이 따라가야 할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봉사를 통해 그 신성한 목적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참으로 회복되었음을 간증드리며, 주님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상호부조회를

조직하라고 영감을 주시면서 제자 정신도 함께 회복시켜 주셨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 (2011), 3쪽.
2. 누가복음 10:38~42 참조.
3. 요한복음 11:20~27 참조.
4. 사도행전 18:24~26; 로마서 16:3~5 참조.
5. 빌립보서 4:1~4 참조.
6. 교리와 성약 25:1~9 참조.
7. 조셉 스미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12쪽.
8. Joseph Smith, in *History of the Church*, 4:602.
9. 신앙개조 제5조.
10. 조셉 필딩 스미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97쪽.
11. 조셉 스미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15쪽.
12. 교리와 성약 109:22; 또한 세리 엘 듀, 내 왕국에 속한 딸들, 128쪽 참조.
13. 교리와 성약 84:19; 또한 에즈라 페트르 벤슨, 내 왕국에 속한 딸들, 129쪽 참조.
14. 내 왕국에 속한 딸들, 131쪽.
15. 보이드 케이 페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99쪽.
16. 존 에이 윌소, 내 왕국에 속한 딸들, 25쪽.
17. 내 왕국에 속한 딸들, 87쪽 참조.
18.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9.5.4 참조.
19. 지침서 제2권, 9.5.1.
20. 토마스 에스 몬슨, 내 왕국에 속한 딸들, 91쪽.
21. 제일회장단, 내 왕국에 속한 딸들, ix쪽.
22. 조셉 에프 스미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66쪽.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인 사랑(charity)의 은사로 가득 찬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최** 근에 저는 남편과 함께 일리노이 주 나부 시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집무를 보며 사무실로 사용한 붉은 벽돌 상점을 방문했습니다. 건물 이층 방에 앉아서 저희는 회복이 일어난 그 시절에 바로 그 장소에서 있었던 몇몇 역사적 사건들에 관하여 안내인이 설명해 주는 말을 열심히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바로 그 방에서 있었던 상호부조회 창립에 관한 일과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전해진 선지자 조셉의 가르침이 생각났습니다. 그 가르침은 상호부조회를 창립하는 데 기틀이 되는 원칙이 되었습니다. 신앙을 키우고, 시온의 가정을 강화하며, 궁핍한 사람을 찾아 돕는 상호부조회의 목적은 창립 당시부터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언제나 일치했습니다.

교회 초기 시절, 한 모임에서 선지자 조셉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한을 인용했습니다. 바울은 사랑에 관해 역설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charity)을 언급한 후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바울은 사랑에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sup>2</sup> (이 성구는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로 번역되어 상호부조회 모토로 사용되고 있다. - 옮긴이)

선지자 조셉은 자매들에게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좁은 시야로 이웃의 장점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 예수님처럼 행하고 싶다면 이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영혼을 키워야 합니다. …… 순수함과 덕성을 기르고 선을 더 많이 행하면서 마음을 키워 가십시오. 이웃을 향한 마음을 더욱 넓히십시오. 오랜 인내가 필요하며 인간의 실수와 잘못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참으로 고귀합니다!”<sup>3</sup>

경전에 나오는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라는 선언이 상호부조회의 모토가 된 근거는 이 문구가 “빈곤한 사람들을

돕[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준 가르침과 임무를 아우르기 때문입니다.<sup>4</sup>

전 세계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이러한 근본 원칙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근본 원칙은 바로 상호부조회가 하는 일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어떻게 연습니까?

선지자 몰몬은 사랑을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고 정의했고,<sup>5</sup> 바울은 “사랑[은] …… 온전하게 매는 띠”<sup>6</sup>라고 가르쳤으며, 니파이는 “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어 모든 사람은 자애를 가져야 한다고 하셨으니, 이 자애는 곧 사랑이라.”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앞서 바울이 설명한 사랑을 되새겨 보면, 사랑이란 한 번 하고 마는 행위나 무언가를 거저 주는 일이 아니라, 사람됨과 마음 상태를 의미하며, 사랑이 담긴 행위가 생겨나는 친절함 감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몰몬은 또한 주님을 참되게 따르는 이들은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순결하게 되리라고 가르쳤습니다.<sup>8</sup> 우리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찾고 간구해야 할 신성한 은사임을 배웁니다. 해의 왕국을 상속받으려 한다면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sup>9</sup>

주께서 우리에게 “외투와 같이 사랑의 띠로 몸을 두르[도록]”<sup>10</sup> 요청하셨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질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을 키우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몰몬은 우리에게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신성한 사랑이 바로 자애이며, 이 사랑이



우리를 채운다면 “우리(는) 그와 같이 [될]”<sup>11</sup> 것입니다.

매일 경전을 읽으면 마음을 구주께 돌릴 수 있고 더욱 그분을 닮고자 하는 소망이 솟아날 것입니다.

제 사무실에는 미네르바 테이체르트가 그린 잃어버린 양을 구하며라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양들 사이에 서신 구주께서 어린 양을 포근히 안고 계신 모습이 담긴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저는 “내 양을 먹이라”<sup>12</sup>라고 하신 그분의 부탁이 떠오릅니다. 저는 구주께서 남기신 이 말씀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돌보고 궁핍한 이들에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구주께서는 사랑을 베푸는 방법을 완전한 모범으로 보이셨습니다.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그분은 굶주리거나 죄지은 사람, 고통받거나 병든 이들을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가난하거나 부유한 사람, 여성이나 어린이, 남성, 가족, 친구, 나그네를 가리지 않고 돌보셨습니다.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을 용서하셨고, 온

인류를 위해 고통을 겪고 돌아가셨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 또한 온 생애에 걸쳐 사람들에게 형제애와 존경을 보이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호의, 연민과 배려심을 보이는 사람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애로운 선지자와 함께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우리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되십니다. 회장님은 사랑이라는 망토를 입고 계십니다. 친절하고 연민이 가득하며 관대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이란 기대를 저버린 사람을 참음성 있게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쉽게 화내려는 충동을 이겨냅니다. 사랑은 부족함과 결점을 받아들입니다.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랑으로 바라보면 외모가 아닌, 시간이 가도 희미해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은 사람을 구분 지으려는 충동을 거부합니다.”<sup>13</sup>

사랑이 있으면 형편이 어려울 때에도 기꺼이 봉사하고 사람들을 도우며 사람들의 인정이나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또 사랑이 본성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임무를 지명받지 않더라도 기꺼이 남을 돕습니다. 그러므로 친절하고 다정하며 관대하고 인내하며 흔쾌히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포용하고 이기심을 버린다면 사랑으로 충만해진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상호부조회는 사람들을 섬기는 수많은 방법을 알려 줍니다. 사랑을 실행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방문 교육입니다. 훌륭한 방문 교육에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며 섬길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자애 혹은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 영혼은 순결하고 성결해지며 더욱 구주를 닮아가게 됩니다.

방문 교사들은 매일 전 세계에서 사심 없이 가정을 방문하여 자매들과 가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보살피며 사랑이 담긴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광경들은 절로 경탄을 자아냅니다. 충실한 방문 교사인 여러분은 사랑이 담긴 그 작은 행동으로 자신이 담당할 자매들을 돕고 돌보며 고양시키고 위로하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하고 보살피고 가르치고 강화함으로써 구주를 따르고, 구주께서 친히 쓰시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한 성역을 보여 주는 간단한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로사는 심신을 약화시키는 당뇨병을 비롯해 여러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녀는 몇 해 전에 교회에 들어 왔습니다. 로사는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을 둔 미혼모입니다. 그녀는 병원에 며칠씩 입원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러나 상냥한 방문 교사들이 로사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병문안을 가서 위안을 줍니다. 로사의 아들을 집과 학교에서 돌봐 주기도 합니다. 방문 교사들은 그녀를 친구와 가족으로 여기며, 봉사합니다.

#### 브라질 이투





캐티는 한 자매를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그 자매님이 글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캐티는 글을 가르치려면 시간과 인내와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돕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에밀리는 진리를 찾던 젊은 주부입니다. 남편인 마이클은 종교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이웃인 상호부조회 자매 칼리는 그 가족을 위해 식사를 차려 주고 아기를 돌보며 집안을 치워 주었을 뿐 아니라 에밀리가 신권 축복을 받도록 해 주었습니다. 사랑에서 우리나라 그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마이클은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이클은 교회에 참석하고 선교사들을 만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에밀리와 마이클은 최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sup>14</sup>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호부조회의 역사는 경이로울 정도로 비이기적인 봉사를 했던 일화로 가득합니다. …… 상호부조회는 가슴에 사랑이 가득한 여성들로 구성됩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마음에 가득한 그 사랑은 오직 주님의 참된 교회에서만 맺는 성약을 지키고 합당하게 생활하여 마음이 변화될 때 얻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속죄를 통하여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매들은 주님이 베푸신 무한한 자비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분이 보이신 모범을 따라 성신의 인도를 받으며 사랑을 실천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종들이 자비를 베푸라는 사명을 수행할 때 성신을 보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비범한 일을 해 왔고, 또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sup>15</sup>

남에게 봉사를 하고 사랑을 베풀면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 짐이 덜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제 다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회복 초창기에 자매들에게 주었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사랑과 자신을 실천하도록 촉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대로 생활한다면, 해의 왕국에서 받을 여러분의 상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특권에 부응하는 합당한 삶을 산다면, 천사가 여러분과 친구가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sup>16</sup>

초창기 나부 시절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자매들 역시 궁핍한 사람들을 찾아 돕습니다. 왕국의 자매들은 영적인 힘과 자비로운 봉사와 헌신으로 세워진 위대한 기둥입니다. 헌신적인 방문 교사들은 서로를 방문하고 돌봅니다. 구주의 모범을 따르며 구주께서 행하신 대로 행합니다.

상호부조회에 속한 모든 여성은 사랑에서 우리나라 자신의 작은 행위에

다른 사람과 자신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charity)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의미하며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상호부조회의 역사를 읽어 본다면, 이 중요한 복음 원리가 그 역사 전체에 담긴 공통된 주제임을 발견하고 벽찬 감동을 느끼실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여성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인 사랑(charity)의 은사로 가득 찬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도록 권유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자원을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여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을 구조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쏟은 노력을 성공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리를 아끼시는 위대한 사랑에 대한 지식으로 그리고 속죄에 대한 신앙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움직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실천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고린도전서 13:13.
2. 고린도전서 13:4-8.
3. 조셉 스미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23.
4. 조셉 스미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16쪽.
5. 모로나이사서 7:47 참조.
6. 골로새서 3:14.
7. 니파이후서 26:30.
8. 모로나이사서 7:48 참조.
9. 이터서 12:34; 모로나이사서 10:21 참조.
10. 교리와 성약 88:125.
11. 모로나이사서 7:48.
12. 요한복음 21:16-17.
13. 토마스 에스 문슨,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4쪽.
14. 고린도전서 13: 4, 5, 6, 8.
15. 헨리 비 아이어링, “영원히 지속될 상호부조회의 유산”,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54쪽.



**바바라 톰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 성약에 충실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성약에 충실하면 거룩한 경전에 언급되어 있고 후기 선지자들이 약속한 것처럼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네** 마음을 고양시키고 기뻐하며, 네가 맺은 성약에 충실하라.”<sup>1</sup> 이 구절을 입을 때면 저는 항상 기쁨을 느낍니다. 제가 제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성약에 충실하고자 애쓰면서 받은 수많은 축복과 약속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기에 올해 그분들이 사시던 집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매들은 부모님이 지내시던 집을 지난 몇 달에 걸쳐 청소하고 정리했는데, 가족 역사 기록과, 그 밖의 중요한 서류와 자료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축복문들과 개인 역사 기록들을 흥미진진하게 읽었으며, 그분들이 맺고 지켰던 성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이신 엘런 행크스 라이머는 갖 결혼한 초보 엄마였던 1912년에 축복사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축복문에서 다음 부분을 읽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대는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선택되었으며, 이 시기에 나아오도록 선택된 영이니 …… 그대는 간증이 커져 이를 나누게 되리라 …… 파괴자가 그대를 멸하려 할 것이나 그대가 하나님께 충실하면 그 [파괴자]는 그대를 해할 힘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대의 충실함으로 위대한 권능을 갖게 되고

그대의 의로움으로 멸하는 자가 도망칠 것이라 …… 두려움과 시련이 닥쳐 올 때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마음에 위안을 받으며 장애물이 사라지리라.”<sup>2</sup>

외할머니는 성약을 지키고 하나님 가까이 머문다면 사탄이 그분을 다스릴 힘을 얻지 못하리라는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고난 중에 위안과 도움을 얻을 것이라고 했으며 이러한 약속은 그분의 일생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성약에 충실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성약을 지킬 때 어떤 기쁨과 보호를 받는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몇 가지 사례는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에서 인용했습니다. 이 책에는 성약을 지켜 큰 기쁨을 누린 여성들의 일화가 가득합니다.

## 성약에 충실한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영어 성경사전에 성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협약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심에 따라 성약의 조건들을 주고, 사람들은 이에 동의한다. …… 복음은 그런 방식으로 정해졌다. 성약을 통해 원리와 의식들을 받아들이며 성약을 맺은 사람은 그 약속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강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sup>3</sup> “성약에 충실하라”라는 말에서 충실하다(cleave)라는 단어는 무엇인가에

“굳게 단단히 들러붙다.”라는 뜻입니다.<sup>4</sup>

우리는 경전에서 하나님과 성약을 맺은 사람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약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알려 주셨으며, 우리가 그 일들을 함으로써 성약을 지키면 약속된 축복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죄를 회개하며, 기꺼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으로써 스스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항상 구주를 기억하겠다고 약속하고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하[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겠다는 다짐을 나타내 보입니다.<sup>5</sup>

거룩한 성전에서는 또 다른 성스러운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습니다. 회복 초기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성도들이 성전에서 약속된 축복을 받기를 열망했습니다. 주님은 “이 집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되게 하여 내가 그 안에서 나의 백성에게 나의 의식을 드러낼 수 있게 할지이다.”<sup>6</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상호부조회를 조직하신 목적 중 하나는 성전 의식과 성약을 통해 더 큰 신권 축복을 받도록 그분의 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나부 시절 자매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머시 필딩 톰슨에게 약속했듯이 엔다우먼트를 통해 ‘어둠에서 벗어나 기적의 빛으로’ 인도될 것임을 알았기에 부푼 기대를 안고 성전이 완공되기만을 기다렸다.”<sup>7</sup>

“나부 성전이 헌납되고 나서 5천 명이 넘는 성도들은 앞날이 불투명한 [솔트레이크 계곡으로의]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엔다우먼트와 인봉 의식을 받으려고 모여들었다.”<sup>8</sup> 결국 브리검 영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전



봉사자들이 밤낮으로 봉사한 덕분에 이 중요한 일을 성도들을 위해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맺은 성약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 즉 시간, 돈, 재능과 같은 모든 자원을 지상에서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일에 바치겠다고 성약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선을 행하겠다고 성약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약의 백성이며 성전은 우리 성약의 중심입니다. 성전은 성약의 원천입니다.”<sup>9</sup>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성약이 되리니 곧 - 우리는 주의 모든 의식을 지켜 행하리라 하는 것이니라.”<sup>10</sup>

성약에 충실할 때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 성약을 지킬 때 얻는 기쁨과 보호

물론경에는 베냐민 왕의 가르침이 실려 있습니다. 베냐민 왕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시어 온갖 고난을 겪으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것이며, 사람은 오직 그분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sup>11</sup>

백성들은 이 훌륭한 가르침을 듣고 겸손해졌으며, 온 마음을 다해 죄에서 벗어나 정결하게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맺었습니다.<sup>12</sup>

“주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신지라, 그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자신의 죄 사함을 받으며 양심의 평안을 얻으니, 이는 ……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들의 놀라운 신앙으로 인함이었더라.”<sup>13</sup>

충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며 기쁨을 누리 예를 한 가지 더 들자면 암몬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암몬과 그 형제들은 수천 사람을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암몬은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는 것을 보며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일이 얼마나 크냐.”<sup>14</sup>

“나의 기쁨이 충만하고, 참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으니, 내가 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라.”<sup>15</sup>

“나는 내가 느끼는 바의 지극히 적은 부분도 말할 수 없노라.”<sup>16</sup>

“우리만큼 기뻐할 큰 이유를 가졌던 사람들이 결코 없었느니라.”<sup>17</sup>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성신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 주[는]”<sup>18</sup>영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독일 성도들 역시 많은 시련을 감내했습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충실하게 봉사하신 마리아 스페이텔 자매님은 자신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그분의 교회에 대한 간증은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었다. ……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시온의 노래를 부르고 주님을 신뢰한다. 주께서 모든 일을 잘되게 하시리니.”<sup>19</sup>

이처럼 성약을 지키는 회원들은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느낍니다.

나부에 살았던 사라 리치라는 의로운 여성은 성도들이 나부에서 추방당하기 직전에 성전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라는 성전 성약의 축복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다. 그 축복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과 위안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여정이 막연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격려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sup>20</sup>

이에 앞서 성도들이 커틀랜드 성전을 완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헌납식에 참석했습니다. 헌납식이 끝나고 주님은 성전을 받아들이셨으며, 성도들에게 “나의 백성의 머리 위에 부여될 축복[으로] …… 크게 기뻐하리라”<sup>21</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세계 도처에 세워지고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회원들의 삶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보아왔습니다. 2008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온 한 부부를 만난 적이 있는데, 성전 의식을 받으러 독일 프라이베르크로 간다고 말하는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성전까지는 가는 데에만 버스로 27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때문에 이 헌신적인 회원들은 성전에 자주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키예프 성전이 곧 완공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성전에 더 자주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무척 기뻐했습니다. 키예프 성전은 이제 완공되어 성전 업무를 시작했으며 수천 명이 그곳에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외할머니의 개인 역사 기록을 읽으면서 저는 그분이 성약 안에서 큰 기쁨을 느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성전에 가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의식을 받는 일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 삶의 사명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성전 봉사자로서 유타 맨타이 성전에서 20년 이상 봉사하셨습니다. 기적적인 병 고침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성전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된 이야기도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분의 손녀로서 외할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외할머니는 성약을 지킨 의로운 여성이었으며 우리 역시 것처럼 하기를 바라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남긴 유품 중 우리가 성약을 지켰다는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지난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가고 그 안에서 맺는 성약을 기억한다면 모든 시련을 더 잘 견뎌 내고 유혹을 더 잘 극복해 낼 것입니다. 또한 그 성스러운 곳에서 평안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으며 강화될 것입니다.”<sup>22</sup>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 마음을 고양시키고 기뻐하며, 네가 맺은 성약에 충실하라.”<sup>23</sup> 성약을 지키는 것은 참된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안과 평안을 선사하고, 세상에 도사리고 있는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성약을 지킨다면 시련이 닥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성약에 충실하면 거룩한 경전에 언급되어 있고 후기 선지자들이 약속한 것처럼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이 위대한 기쁨을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25:13.
2. 윌터 이 행크스가 준 축복사 축복문, 1912년 10월 25일, 유타 주 웨인 카운티, 라이먼.
3. Bible Dictionary, “Covenant.”
4.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1판 (2003), “cleave.”
5. 모사이야서 18:8-9 참조; 토마스 에스 몬슨, “오늘

6. 교리와 성약 124:40.
7.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 (2011), 131~132쪽.
8. 내 왕국에 속한 딸들, 29쪽.
9. Boyd K. Packer, *The Holy Temple*(1980), 170쪽.
10. 교리와 성약 136:4.
11. 모사이야서 3:5~18 참조.
12. 모사이야서 4:2; 5:5 참조.
13. 모사이야서 4:3.
14. 엘마서 26:1.
15. 엘마서 26:11.
16. 엘마서 26:16.
17. 엘마서 26:35.
18. 교리와 성약 11:13.
19. 마리아 스페이델, *내 왕국에 속한 딸들*, 76쪽.
20. 사라 리치, *내 왕국에 속한 딸들*, 30쪽.
21. 교리와 성약 110:9-10.
22. 토마스 에스 몬슨, “거룩한 성전은 세상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93쪽.
23. 교리와 성약 25:13.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 물망초

저는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왕국의 소중한 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년 개최되는 이 상호부조회 총회와 이곳에서 전해지는 훌륭한 말씀들을 늘 고대합니다. 자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지명을 받아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몇 가지 생각을 전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아내와 딸과 함께 한 멋진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창조물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그때 수려한 꽃들 사이로 작디작은 꽃 한 송이가 눈에 띄었는데 제가 잘 아는 꽃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애똥한 끌림을 느껴 왔던 꽃, 바로 ‘저를 잊지 마세요’라는 뜻이 있는 물망초였습니다.

이 작은 꽃이 왜 그리 오랫동안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눈에 잘 띄지 않아 크고 화려한 꽃들에 가려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청명한 하늘빛이 담긴 듯 그 꽃의 그윽한 색깔은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아마 그래서도 제가 그 꽃을 좋아하나 봅니다.

꽃 이름에는 잊혀지지 않을 애원이 담겨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해 오는 전설에 따르면, 하나님이 모든 식물에 이름을 지어 주실 때 하나를 빠뜨리셨다고 합니다. 그때 희미하게 “주님, 저를 잊지

마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고, 하나님은 그 말을 꽃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오늘밤 저는 이 앙증맞은 꽃을 비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그만 그 꽃에 달린 다섯 꽃잎을 보며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다섯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 첫째, 자신에게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했으면 하는 어떤 것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제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을 잘 아십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실사 여러분 눈에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느라, 특히 자기 약점을 남의 강점과 비교하느라 너무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결코 다다를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남이 한 것에 비해 부족해 보인다는 이유로 본인이 열심히 경주한 노력에 대해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강점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약점이 있는 것도 현세에서 겪게 되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약점이 강점으로 변화하도록 돕고 싶어 하시지만<sup>1</sup> 이 일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 또한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바라십니다.<sup>2</sup> 그러나 제자로서 가야 할 길에 계속 머문다면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멀어 보인다 해도 괜찮습니다. 노력은 계속하되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중에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안쓰러워하며 끝없이 인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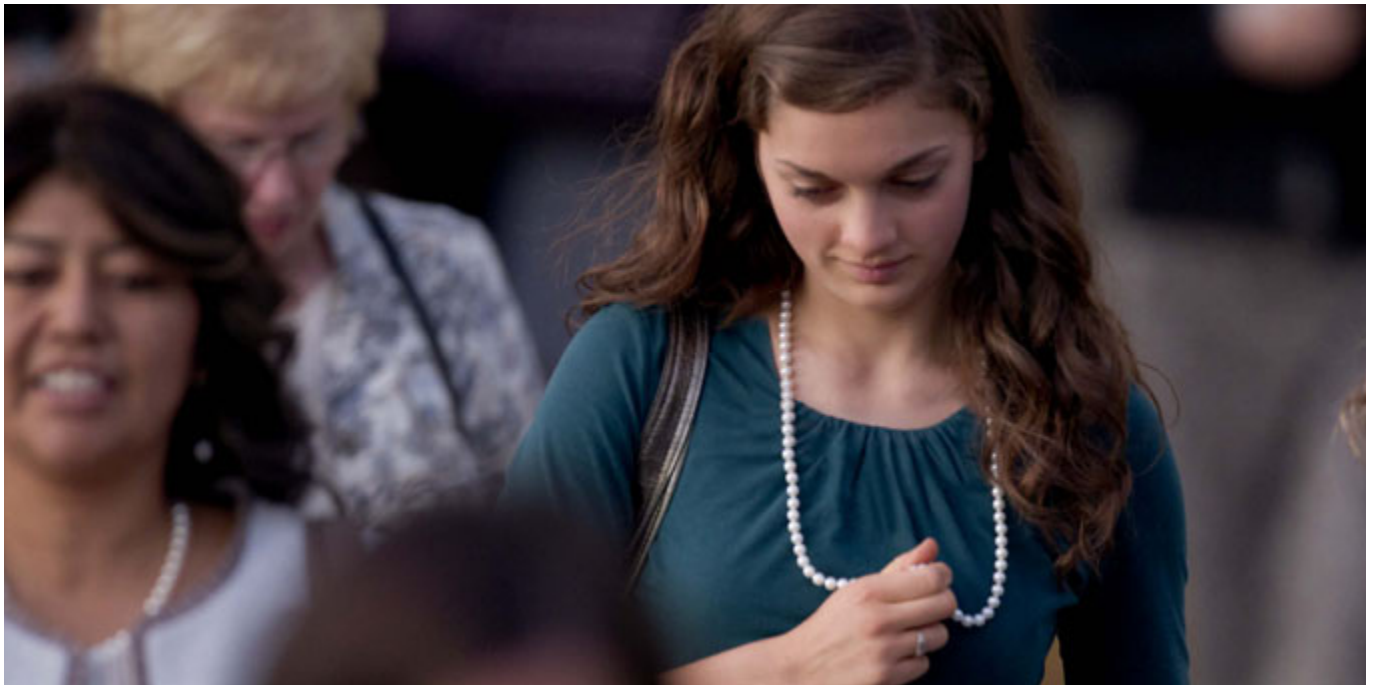
가정과 가족 관계, 학업, 생계, 또는 교회 일과 개인 발전 과정에서 거두는 모든 작은 성공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공들이 물망초처럼 소소해 보이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를 아시며,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만개한 장미나 수려한 난이 되어야만 성공했다고 여기신다면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일들을 놓쳐 버릴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자신과 주위 사람 모두를 힘들게 만들더라도 매주 “한 폭의 그림 같은 완벽한” 가정의 밤을 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가족 모두가 즐거워하면서도, 영이 함께하고, 서로가 가까워지게 할 수 있을까?” 다루는 내용이 대단치 않고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긴 안목에서 보면 그런 가정의 밤이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완전으로 향하는 여정은 길지만 작은 한 걸음에서도 우리는 경이로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둘째, 훌륭한 희생과 어리석은 희생의 차이를 잊지 마십시오.

바람직한 희생은 어떤 좋은 것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포기하는 것입니다.

악몽을 꾸 아이를 달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은 훌륭한 희생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딸이 입을 의상에 꼭 맞는 장식을 만드느라 밤을 새워 건강을 해친다면 훌륭한 희생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경전을 공부하거나 공과를 가르칠 준비를 한다면 훌륭한 희생이라 하겠지만, 반원 모두에게 주려고 손수 만든 주전자 받침대에 공과 제목을 수 놓느라 많은 시간을 쏟는다면 그건 어쩌면 훌륭한 희생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훌륭한 희생이 다른 경우에는 어리석은 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장 소중한 일에 힘과 시간을 들이는가?” 해야 할 좋은 일은 많지만 모두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관점에서 훨씬 더 고귀한 어떤 것을 위해 좋은 무언가를 희생할 때 제일 기뻐하십니다. 때로 그것은 이국적인 꽃들로 가득 찬 넓은 정원을 가꾸는 대신 작고 아름다운 물망초를 키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이야기에서 신비에 싸인 초콜릿 공장주 윌리 윙카 사장은 황금빛 초대장을 초콜릿 바 다섯 개에 감춘 후, 누구든 그것을 찾아 가져오면 공장을 맘껏 구경하게 해 주고 평생 초콜릿을 공짜로 받게 해 주겠다고 발표합니다.

황금빛 초대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황금빛 초대장을 찾은 행운의 주인공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엄청난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며 ……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들로 …… 여러분은 기뻐하고 …… 깜짝 놀라고, 어리둥절해질 것입니다.”<sup>3</sup>

이에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애타게 찾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모든 미래가 그 황금빛 초대장을 찾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들떠 초콜릿 바를 먹을 때 느끼던 소박한 기쁨을 잊기 시작하고, 황금빛 초대장이 들어 있지 않은 초콜릿 바에서는 실망감만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황금빛 초대장만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늘 꿈꿔 왔던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황금빛 초대장이 완벽한 결혼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잡지 표지에 나올 만한 집이거나 혹은 압박이나 걱정에서 벗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의로운 갈망은 나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sup>4</sup>을 추구합니다. 문제는 미래에 닥칠 어떤 일, 즉 황금빛 초대장만을 기다리며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뒤로 미루는 데서 생깁니다.

의로운 신권 소유자와 성전에서 결혼하여 어머니와 아내가 되기만을 간절히 바란 한 의로운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온통 그 꿈으로 가득했습니다. 아, 그녀는 정말 멋진 어머니와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었을 것입니다. 집안에는 사랑과 친절이 넘치고 격한 말은 절대로 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음식을 태우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저녁 시간과 주말에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대신 아빠 엄마와 함께 지내기를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바로 그 꿈이 황금빛 초대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 한 가지에 달렸다고 느꼈습니다. 세상 모든 것 중에서도 그것만을 애타게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외톨이가 되어 갔으며, 억울해하게 되고 심지어 화도 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의로운 소망을 도대체 왜 들어주시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녀는 그저 황금빛 초대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생각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실망은 깊어 갔고 더욱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 곁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았고, 되도록 그녀를 피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의 좌절감을 아이들에게 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로 발끈했다가 치절한 고독에 빠져들기를 되풀이했습니다.

비극은, 이 사랑스러운 여성이 황금빛 초대장을 손에 넣지 못한 실망감에 휩싸여 자기가 받은 축복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비록 자기 가정에 자기 아이는 없었지만 교실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주님은 남들이 좀처럼 얻기 어려운, 교사로서 수많은 아이들과 그 가족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이 일화는 환상적인 장미만을 기다리며 매일을 허비하다가는 주위에 가득한 조그만 물망초가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로운지 보지 못하게 된다는 교훈을 알려 줍니다.

희망을 버리고 목표를 낮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내재된 훌륭한 것을 위해 계속 노력하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의로운 소망을 하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일상의 짧은 순간들에서 느끼는 소박하고 고귀한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도록 눈과 마음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에서 풍요롭고 윤택한 삶이 시작됩니다.

제가 아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황금빛 초대장을 찾는 대신 값진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날마다 찾아오는 순간에서

아름다움과 감미로움을 발견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이러한 분들은 매일 조금씩 감사와 경이로움으로, 온 생애에 걸쳐 용단을 짜 나갑니다. 바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 넷째, 복음이 '왜' 있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예쁘고 깜찍한 물망초를 못보고 지나치는 것처럼 판에 박힌 일상 생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측면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맡은 책무를 달성하고자 부지런히 노력하다 보면, 때로는 복음이 이미 불가능할 정도로 길어진, “해야 할 일” 목록에 넣어야 하는 긴 과제 목록이나, 바쁜 일정 속에 끼워 넣어야 하는 일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만 집중하면서 때로는 왜 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의무로 만든 굴레가 아니라 우리가 걷는 길입니다. 그 길은 인생에서는 행복과 화평에 도달하고, 다가올 생애에서는 영광과, 표현할 수도 없는 엄청난 성취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갖 이정표와 표지를 세워 두신 길입니다. 복음은 필멸의 삶을 넘어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을 밝히는 불빛입니다.

복음에서 우리는 ‘무엇’과 ‘어떻게’를 반드시 이해해야 하지만, 복음의 영원한 불길과 장엄함은 바로 ‘왜’에서 분출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이 같은 방식으로 살도록 하셨는지 이해하고, 우리가 왜 복음을 삶의 토대로 삼고자 했는지 기억한다면, 복음은 짐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옵니다. 복음이 소중해지고 달콤해집니다.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앞에 놓인

과제와 의무만 생각하며 땅만 바라보며 걷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를 둘러싼 영화로운 세상 풍경과 영적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지 못한 채 걷지 않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왜’에서 위대함과 아름다움, 가슴 벅찬 기쁨을 찾아보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순종하냐 하는 것은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 길에 머물게 합니다. 순종에서의 ‘왜’는 우리의 행동을 성결하게 하고, 단순한 일상을 위대한 생활로 바꿉니다. ‘왜’는 단순한 순종을 거룩한 헌납으로 바꾸어 줍니다.

### 다섯째,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릴 적에 작은 물망초를 바라볼 때면 종종 제 자신이 그 꽃처럼 작고 미미한 존재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이나 하나님 아버지께 잊혀지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그 소년 시절을 애뜻한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절대 잊혀지지 않았음을 압니다.

알게 된 것이 더 있습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온 마음을 다해 추호의 의심도 없이, 여러분 또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은 잊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암울하게 보일지라도, 자신이 보잘것없게 느껴지더라도, 어두운 그들이 드리워졌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그분은 여러분을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하며



영화로우신 분이 여러분을 알고 기억하십니다! 무한한 공간과 영원한 시간을 다스리는 왕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별들을 창조하고 헤아리시는 분께서 여러분이 누구이며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여러분은 그분 왕국의 딸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sup>5</sup>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때로 여러분이 외롭다고 느끼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된 복음의 힘은 속죄와 구원을 이루는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신성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어떤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고, 어떤 아픔도 나을 수 있으며, 어떤 슬픔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호부조회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국에 가까이 있습니다.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를 운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위대하고 참된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은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상호부조회라는 축복된 조직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은사를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계속해서 가정과 가족을 강화하십시오. 여러분과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계속해서 찾고 도우십시오.

자매 여러분, 물망초에는 감동을 주는 송고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꽃이 여러분의 삶을 즐겁고 감미롭게 하는 작은 것들의 상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인내와 사랑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희생은 다른 희생보다 더 값지다는 것을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 황금빛 초대장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왜’가 영감을 주고 여러분을 들어올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시며, 소중히 여기신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베푸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교회, 지역 사회와 여러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애써 주실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왕국의 소중한 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이더서 12:27 참조.
2. 제3니파이 12:48 참조.
3. Roald Dahl,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1964), 55~56.
4. 신앙개조 제13조.
5. 시편 8:3~5.



우호트도르프 회장님의 말씀을 시청하려면 QR 코드를 인식하는 스마트폰으로 왼쪽의 QR 코드를 인식하십시오.

##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 색인

다음은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를 선별한 목록입니다. 이 내용은 개인 학습과 가정의 밤, 그리고 그 밖에 복음을 가르치는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각 말씀이 실린 첫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연사	일화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6) 가족을 위해 물몬경을 녹음한 리처드 지 스코트.
호세 엘 알론소 장로	(14) 혼잡한 멕시코시티에서 어린 아들을 잃고서 걱정한 부모.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16) 축복사의 축복을 받은 보이드 케이 패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19) 공군 조종사 훈련에 참가하는 동안 집회소 짓는 일을 도운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어느 충실한 부부.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24) 가족 역사반을 가르친 아론 신권 청소년들.
닐 엘 앤더슨 장로	(28) 자녀 갖는 것을 미루지 않기로 결정한 제임스 오 메이슨과 그의 아내. 결혼한 지 25년 만에 자녀를 입양한 스코트 도리우스와 베키 도리우스.
칼 비 쿡 장로	(23) 칼 비 쿡에게 위를 보라고 권고한 토마스 에스 몬슨. 헬름 풍선과 함께 “마음의 짐”을 하늘로 날려 보낸 자매들.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장로	(35) 교회로 다시 돌아오라는 권유를 받고서 구속받은 저활동 회원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38) 존슨의 목장에서 본 아침을 기억한 도너 일행의 생존자.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델 장로	(50) 자신의 아버지에게 침례를 준 사람을 만난 선교사 자비에르 미시에고.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56) 와드 자매를 방문한 어린 헨리 비 아이어링과 그의 감독. 늦은 밤에 원고를 검토한 고든 비 힝클리 와 헨리 비 아이어링.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60) 신병 훈련소에서 자신이 유일한 교회 회원이라고 생각한 토마스 에스 몬슨. 버스에서 사람들에게 교회에 관해 설명한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68)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받은 후 대학교에서 연설한 헨리 비 아이어링. 딸들을 데리고 암으로 죽어가는 친구를 방문한 헨리 비 아이어링. 신권 축복을 위해 일요일 복장을 차려 입은 죽어가는 남자. 집을 떠나 돌아다니던 지 여러 해가 지난 후, 물몬경을 읽고 간증을 얻은 남자.
태드 알 콜리스터 장로	(74) 자신의 친구에게 물몬경이 참됨을 간증한 청년.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82)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5달러 지폐를 찾은 후 기도의 힘을 배운 토마스 에스 몬슨. 독일 프랑크푸르트 성전 헌납식에서 피터 모릭이 말씀을 하도록 발표하라는 느낌을 받은 토마스 에스 몬슨.
러셀 엠 넬슨 장로	(86) 자신의 성전 결혼을 소중히 여긴 러시아 개종자.
랜들 케이 베네트 장로	(98) 급류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랜들 케이 베네트.
제이 데븐 코니쉬 장로	(101)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25센트짜리 동전을 기적으로 발견한 제이 데븐 코니쉬.
쿠엔틴 엘 쿡 장로	(104) 타이타닉호의 예약을 취소한 엘마 소니. 타이타닉호에서 죽은 아이린 코벳.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114) 만성 질병으로 고통을 겪던 중 방문 교사들에게서 위안을 받은 자매. 방문 교사들이 자신의 가족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본 후 개종한 남자.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120) 결혼을 못하고 자녀도 갖지 못해 비판적이 된 여성.

##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넷**째 주 일요일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공과 시간에는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을 공부한다. 각 공과로 최근 연차 대회 말씀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사용하여 준비할 수 있다. 스테이크 회장 또는 지방부 회장은 어느 말씀을 사용할 것인지 직접 선택하거나, 감독 또는 지부 회장에게 이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지도자들은 멜기세덱 신권 형제들과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같은 일요일에 같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넷째 주 일요일 공과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최근 연차 대회 특집호를 공부하고 공과 시간에 가져오도록 권유한다.

### 말씀을 활용한 공과 준비 제언

말씀(들)을 공부하고 가르칠 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기도한다. 다른 자료를 사용하여 공과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으나 대회 말씀은 승인된

교과 과정이다. 여러분의 책임은 사람들이 교회의 최근 연차 대회에서 가르침 받은 대로 복음을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도록 돕는 것이다.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반원들의 필요에 맞는 원리와 교리를 찾는다. 또한 그러한 진리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이야기, 참조 성구, 문구들을 말씀(들)에서 찾아본다.

원리와 교리를 가르칠 방법에 관해 개요를 작성한다. 개요에는 다음과 같이 반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 말씀(들)에서 원리와 교리를 찾아보게 하는 질문.
-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
- 깨달음, 생각, 경험, 간증을 나누게 하는 질문.
- 이런 원리와 교리를 생활에 적용하게 하는 질문. ■

공과를 가르칠 달	넷째 주 일요일 공과 자료
2011년 11월~2012년 4월	2011년 11월호 <i>리아호나</i> 및 <i>Ensign</i> 에 실린 말씀*
2012년 5월~2012년 10월	2012년 5월호 <i>리아호나</i> 및 <i>Ensign</i> 에 실린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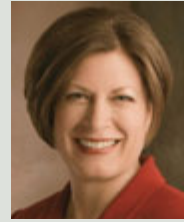
\*이 말씀들은 [conference.lds.org](http://conference.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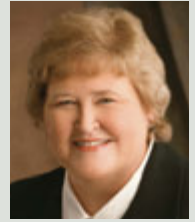
### 상호부조회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제1보좌



줄리 비 벅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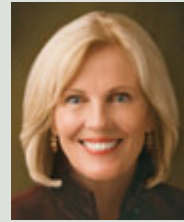


바바라 톰슨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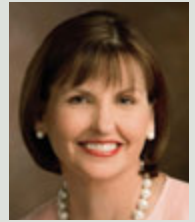
### 청녀



메리 앤 쿡  
제1보좌



일레인 에스 돌튼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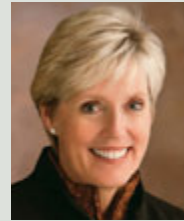


앤 엠 딘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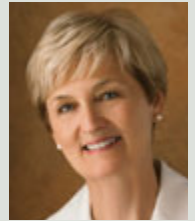
### 초등학교



진 에이 스티브스  
제1보좌



로즈메리 엠 워익스  
회장



체럴 에이 에스플린  
제2보좌

### 청남



래리 엠 킵슨  
제1보좌



데이비드 엘 벅  
회장



에이드리안 오초아  
제2보좌

### 주일학교



데이비드 엠 맥콩키  
제1보좌



러셀 티 오스구토프  
회장



매튜 오 리차드슨  
제2보좌



한 화가가 그린 프로보 태버네클 모습이다. 이 건물은 화재로 소실된 후 미국 유타 주 프로보에 소재한 두 번째 성전으로 복구될 것이다.

## 제181차 반연차 대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0월 1일과 2일에 걸쳐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81차 반연차 대회 다섯 개 모임에 참석했다. 그 외에도 수백만 명 이상이 텔레비전, 라디오, 위성방송, 인터넷 방송을 통해 대회를 시청하거나 청취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10월 1일, 토요일 첫 번째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새로운 성전 부지 여섯 곳을 발표했다. 콜롬비아 바랑기야, 남아프리카 더반,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프랑스 파리, 미국 유타 프로보, 미국 와이오밍 스타벨리.

몬슨 회장은 이 발표에 이어서 회원들에게 교회 일반 성전 참여자 지원 기금에 현금하도록 권유했다. “이 기금은 성전 방문을 갈망하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엄두를 내지 못하는 회원들이 한 차례 성전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쓰입니다.”라고 몬슨 회장은 말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youth.lds.org—FamilySearch Youth and

Family History[FamilySearch 청소년 및 가족 역사](lds.org/familyhistoryyouth) 사이트를 발표했다. 이 새로운 사이트는 청소년들이 가족 역사에 대해 알고 기록을 찾아냄으로써 조상을 위해 봉사하도록 돕고자 마련되었다.(128쪽 기사 참조)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클라우드오 알 엠 코스타 장로가 칠십인 회장단에서 해임되고 테드 알 콜리스터 장로가 칠십인 회장단으로 지지되었다.(128쪽 참조) 그 외에도 칠십인과 지역 칠십인 열두 명이 해임되거나 명예 총관리 역원에 임명되었다.(23쪽 지지 및 해임 참조)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일요일 오전 모임에서 말씀하면서 올해 초 4월 연차 대회에서 권고한 사항, 즉 모든 회원이 2011년 동안 봉사의 날 행사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일깨워 주었다.(헨리 비 아이어링, “선을 행할 기회”, 리아호나 및 *Ensign*, 2011년 5월호, 22쪽 참조)

전 세계 회원들은 93개 언어로 대회를 청취했다. lds.org/general-conference/when-conference-materials-will-be-available에 접속하면 대회 말씀 원문,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를 어떤 언어로 언제부터 이용 가능한지 볼 수 있다. ■

##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오늘날 후기 성도 여성을 위한 역사적 업적

첼시 니버글  
교회 잡지

**제**일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준비되어 새로 나온 책,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에는 상호부조회의 유산과 교회 여성들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다고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줄리 비 백 자매가 2011년 9월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말했다.

“이 책은 세계적인 자매 조직을 상호부조회의 목적과 제자 정신의 모범과 특권으로 단합시키고 정렬시킬 것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에서 여성이 맡은 주요한 역할을 증거하며, 우리 믿음과 하는 일, 우리가 수호할 것에 대해 불변하는 표준을 제공합니다.”(이번호 113쪽)

백 자매는 여성들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근거를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이 책을 공부하면서 상호부조회가 각 자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

이 작업은 제일회장단으로부터 임무를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수잔 더블유 태너는 이 책을 집필하도록 성별되었다. 백 자매와 두 보좌인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와 바바라 톰슨은 이 작업을 관리하고 태너 자매, 편집자들, 도안가들,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은 함께 협력하여 계시의 영을 통해 진행 과정을 결정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백 자매는 “지금껏 일해오면서 이 일보다 영의 인도를 더 많이 받은 작업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과정에는 수천 쪽이나 되는 역사 기록 중 어느 것을 책에 실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일도 포함되었다. 백 자매와 그 보좌들과 태너 자매는 나무에서 열린 초기 상호부조회 모임 의사록과 상호부조회 및 교회 여성들에 관한 기타 역사 자료와 기록을 살펴보았다.

백 자매는 그 결과물을 전형적인 연대기적 역사가 아니라 교회 여성들과 상호부조회의 영적 역사라고 칭했다.

“상호부조회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를 공부합니다.”라고 백 자매는 2010년 9월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말씀했다. “결국 역사의 가치는 시간, 시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를 통해 원리, 목적, 따라야 할 모범을 배우고 우리가 누구인지, 할 일이 무엇인지 배우기 때문에, 그리고 단합하여 시온의 가정을 강화하고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발휘되는 것입니다.”(“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 *리아호나* 및 *Ensign*, 2010년 11월호, 115쪽)

이 책이 연대표를 따르기는 하지만 각 장에 나오는 가르침은 주제별로 실려

있다.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치기 위해 경전과 현대 선지자의 말씀,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에게서 나온 이야기와 예들이 사용되었다.

### 이 책이 미치는 영향

백 자매는 자매들이 이 책을 통해 상호부조회의 목적과 성약을 지키는 제자라는 여성 단체의 목적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성취할지를 배우게 된다고 말했다.

“자매들은 신앙과 의로움을 키우고,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돕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라고 백 자매는 교회 잡지 인터뷰에서 말했다. “자매들이 상호부조회의 사업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이해하면 고대와 후기에 여성이 교회 발전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깨닫고, 그들의 목적과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백 자매는 이 책을 읽는 이들이 모범과 교훈을 통해 어떻게 성신에 귀를 기울이고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또한 일상 생활에서, 그리고 시련과 역경 중에 힘을 얻고 강화될 수 있다.

“이 책에는 많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모범이라는] 힘이 있습니다.”라고 백 자매는 말했다. “그러므로 저는 사람들이 이 책을 늘 곁에 두고 있다가 힘들 때면 집어 들어서 힘이 되어줄 이야기나 일화를 읽기 바랍니다.”

백 자매는 또한 이 책이 자매들의 손에 들려져서 교회의 각 가정으로 가게 되지만 이 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임을 믿는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자신이 어떻게 거대한 세계적인 여성 단체의 일부가 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며, 남편과 아내들은 가족을 인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스러운 일에서 단합할 수 있을 것이다.

유타 블러프 시리쿠스 스테이크 회장인

데일 쿡은 이 책을 공부한 후 이것이 교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책을 읽으면 그것[상호부조회]이 신권과 어떻게 연결되고 엮여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라고 쿡 회장이 말했다. “저는 제 배우자에게 내재된 힘을 깨달았으며 아내를 [어떻게 더] 사랑하고 돕고 지지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 이 책에 관하여

이 책은 개인 학습과 더불어 가정과 상호부조회, 기타 교회 모임에서 가르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현재 감독과 지부 회장들에게 배송되고 있으며, 그들은 상호부조회 회장과 협의하여 어떻게 이 책을 배부해야 와드 및 지부 자매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 책은 2012년 1월 말까지 거의 24개 언어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이미 다수 언어가 인터넷으로 이용 가능하며, 회원들은 인터넷에서 관련 비디오를 찾아보고, 인용문을 나누고, 이 책에 나오는 메시지를 나누고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제언을 읽어볼 수 있다. [lds.org/relief-society/daughters-in-my-kingdom](http://lds.org/relief-society/daughters-in-my-kingdom)에 접속한다. 그 화면 한가운데에서 “Related Resources” 아래에 있는 “Additional Languages (PDF)”를 클릭한다. 그 다음 화면 오른쪽에 이용 가능한 언어 목록이 나타날 것이다. 이 웹사이트는 최종적으로 몇몇 언어로 번역될 것이다.

이 책의 양장본은 올해 말까지 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 발행될 계획이며, 배부 센터와 [store.lds.org](http://store.lds.org)를 통해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

## 십대들이 가족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사이트

**새**로운 FamilySearch Youth and Family History[FamilySearch 청소년 및 가족 역사] 사이트인 youth.lds.org(lds.org/familyhistoryyouth)는 청소년들이 가족 역사에 대해 알고 자기 조상의 기록을 찾아냄으로써 조상을 위해 봉사하도록 돕고자 마련되었다.

이 사이트의 특징은 십대들이 FamilySearch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자료들이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다섯 가지 간단한 단계로 가계도를 조사하고, 가족 기록을 만들고, 성전에 가져갈 이름을 준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 사이트에는 또한 반과 정원회가 가족 역사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도 나와 있다.



이 새로운 사이트는 현재 스페인어, 영어, 포르투갈어로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언어로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

## 청소년들이 빛을 발할 미술 경연 대회

**교**회 역사 박물관에서는 만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제1회 국제 청소년 미술 경연 대회에 참가하도록 초대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교리와 성약 115:4~6 참조)라는 성구가 의미하는 바를 잘 표현하는 작품을 창작해야 한다.

미술품은 2009년 1월 이후에 창작된 것이어야 한다. 참가자는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저 나이가 만 13세여야 하며, 2012년 1월 2일부터 마감일인 2012년 6월 1일까지 인터넷으로 작품 하나를 제출할 수 있다. 크기는 가장 긴 쪽 치수를 기준으로 213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어떤 예술적 매체와 양식이라도 모두 이 대회에서는 환영한다.

제출 정보는 lds.org/youthartcomp에서 볼 수 있다.

입상자들은 2012년 11월 16일부터 2013년 6월 17일까지 전시할 수 있도록 원작품을 박물관으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것이다. ■



## 태드 알 콜리스터 장로

칠십인 회장단

**칠**십인 제이 정원회 일원으로서 칠십인 회장단으로 지지된 태드 리차드스 콜리스터 장로는

총관리 역원의 목표 중 하나는 교회에서 “실질적 성장”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렇게 될 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성찬을 취하게 되고, 교회 의식들을 받게 되며, 성약을 지키게 됩니다.”라고 콜리스터 장로가 말했다.

그렇게 노력하는 지역 교회 지도자들을 돕고 싶어 하는 콜리스터 장로는 주께서 자신에게 여러 부름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해 한다. “현재 함께 일하는 스테이크 회장, 감독, 장로 정원회 회장들의 직책에서 전에 일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 사항에 더욱 민감하고 또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콜리스터 장로는 대서양 동부 주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 장로 정원회 회장, 스테이크 선교 회장, 스테이크 회장 보좌, 감독, 스테이크 회장, 지역 대표, 지역 칠십인, 캐나다 토론토 동 선교부 회장(2005~2008)으로 봉사했으며, 태평양 지역 회장으로 봉사하던 중에 칠십인 회장단으로 부름 받게 되었다.

1945년 12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에서 리드 콜리스터와 노린 콜리스터 사이에 태어난 콜리스터 장로는 1968년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회계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1971년에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1972년에 뉴욕 대학교에서 세법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2년부터 2005년까지 변호사로 일했으며, 속죄와 배도, 회복에 관한 책들을 집필했다.

콜리스터 장로는 1968년 12월에 캐스린 루이스 새포리티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성전에서 결혼했다. 이 부부는 여섯 자녀를 두었다.

콜리스터 장로는 자신의 인생에 함께 한 주님의 손길에 대해 감사해한다. “구주의 사랑은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흘러 넘쳐서 저는 그분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행하는 가장 사소한 선행에도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마음을 쓰시며 기다리시는 분이려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분들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



###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성전

엘살바도르에 위치한 이 장엄한 성전은 전 세계에서 운영되는 135개의 성전 중 가장 최근의 성전으로 2011년 8월 21일에 헌납되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1907~1995) 회장님은 1994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성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성전에 참석하는 사람이 됩시다. 사정이 허락하는 한 자주 성전을 방문하십시오.

성전 사진을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걸어 두십시오.”(“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8쪽)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제181차 반연차 대회 마지막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사업이 참됨을 간증합니다. 구주께서는 살아 계시며, 지상에 있는 이 교회를 인도하고 다스리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 아버지이시며, 인격이 있고 실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돕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기꺼이 가고자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또 그렇게 하기를 얼마나 소망하시는지 모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